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2년 제221호

공군본부



너의 功勳으로 白日이 빛난다

趙 芝 薰

보라매여! 네 이름은 御東靑. 너의 祖國은 韓半島다. 五·六月 첫빛 구름 속에 날개를 솟구쳤다가 七·八月 드높은 하늘 세푸로이드 같이 매끄러운 靑空에 화리바람을 일으키며 너는 비끄러진다.

보라매여! 너는 靑島한 사냥매. 너의 基地은 손바닥이다. 그리고 또 어께다. 아무리 날랜 새라도 너 앞에는 느림보 달치서 움켜쥐고 돌아오는 네 깃털 위에 이는 바람이 향그럽다.

보라매여! 너는 御國의 空軍. 너의 고향은 하늘이다. 네 날개는 祖國 뜻 너의 動力은 民族의 피다. 날개 붙어지고 열풍마저 터지면 너는 滿春의 꽃잎처럼 靑空에 흩날린다.

보라매여! 너는 大空의 城壁. 너의 싸움터는 하늘이다. 꽃다운 靑이여 網羅의 肉身이여 오늘 가엾게 날려라. 아름답게 휘몰아라 눈부름뜨고 자커라. 진실로 虛心히! 너의 勳功으로 白日이 빛난다.

조국영공수호 임무완수할 지휘권이양



제 20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식 및 제 21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이 72년 9월 8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이필섭 참참의장을 비롯한 리스카시 한미연합사령관, 육·해군 참모총장, 각국 부관들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어 최세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이일로 신임공군참모총장이 공군기를 넘겨받았다.

38년의 세월, 명예롭고 보람찬 날들...

찬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참모총장의 소임을 명예롭게 마치고 38년동안 정철했던 군문을 떠나면서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여러분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8년동안 본인이 참모총장의 중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각하의 탁월하신 영도력과,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한 상사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관달, 육군·해군 전우와 추한미군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각급 지휘관 참모들의 헌신적인 보좌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창공을 누비며 조국의 영광을 지키고 있는 전투조종사, 산간오지에서 우리의 하늘을 물심양면 감시하고 있는 방공 관제사와 방공보병 장병, 활주로와

격납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정비사와 무장사, 그리고 각자의 맡은바 소임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군 장병 모두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자화와 격려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돌아해보면 본인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 오늘에 이르는 38년의 세월은 오직 충성과 희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조국의 항공수호에 젊음과 모든 정열을 바칠 수 있었던 참으로 명예롭고 보람찬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필승의 장례공군 육성을 목표로 전 장병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완벽한 전비태세 확립과 임무행 실천적 교육훈련을 통한 전투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자기성찰과 혁

신의 자세로 비합리적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솔선실천하여 산뜻하고 생동하는 강한 공군을 육성하고자 총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참모총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남은 과제를 완결하지 못하고 군문을 떠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글할길 없으나, 풍부한 경험과 지휘역량을 겸비한 이양호 장군에게 지휘권을 인계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못다한 일은 신임참모총장이 훌륭하게 수행하리라 확신합니다.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은 신임참모총장을 충심으로 한마음 한뜻이되어 국가방위의 핵심요원으로서 더 높은 이상과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일의 강한 공군을 육성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인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공군을 떠나지만 조국과 겨레와 하늘에 몸과 마음을 바치겠노라고 다짐했던 전투조종사의 신조를 늘 가슴에 새기며 언제 어디서건 우리 군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리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투조종사의 가족이 되어 온갖 어려움을 참고 맡 없이 내조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가 공중에서 산화한 호국영령 앞에 삼가 땀을 빙니다



‘미래 지향적 공군력 건설’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명예 의하역 제 22대 공군 참모총장직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소임의 막중함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각하의 통수 이념을 충실히 받들고 역대 참모총장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과 장병 여러분의 뜨거운 충성심을 바탕으로 공군발전에 헌신전력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임하시는 한주석 전임 참모총장님!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천 장병과 한마음 한뜻을 이루사어 우리 공군이 한차원 높은 내일의 공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와 기반을 마련하시고 영예롭게 전역하시게 된대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전임 총장님께서 재임기간중 필승의 정예공군 육성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셨던 많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마감하고 22세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에는 친구가 되었고 가까운 우방이 무서운 경쟁 상대로 변하는 등 국내외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들어섰으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의 적화 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상무적 위장 평화관술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여 통일성일이 완수될 때까지 힘으로 대화를



적발침해야 하는 사명을 경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속도전을 위주로 하는 우리 공군은 적의 기술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항시 고도의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하여 민족의 영원한 민주·번영·통일을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정책의 성과로 더욱 가까워진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군력 건설에 관심과 노력을倾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한 대로 싸운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훈을 가슴 살아 평생 임무가 곧 유

사시를 대비한 훈련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적 교육훈련에 우리의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내실, 무리보다는 합리적 부대관리로 신뢰와 존경 속에 활기찬 부대를 이룩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믿음직한 공군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우리는 유구히 이어나갈 공군사에서 현재를 담당하고 있는 주역으로서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출중한 역사와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후배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항상 명심합니다.

강압에 의한 복종보다는 자발적인 실천으로 명량한 분위기 속에서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39년간의 공군생활을 마치고 영예롭게 전역하시는 한주석 전임총장님의 앞날에 항상 하나님의 가호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취임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차례

● 화 보	_____	1
● 권 두 언	정훈감 대령 홍중도 _____	10
● 격 려 사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상호 _____	11
● 축 시	대위 김해룡 / 시민 고훈기 / 중사 양하운 _____	12
● 보리매칼럼	"Yes"와 "No" / 소경 박정규 _____	15
● 조직관리	이것이 팀워크를 깨뜨리는 주범이다 _____	18
	부하를 이렇게 키워라 _____	23
	늘 곁에 두고 하루에 한번씩 _____	24
	당신은 어떤 팀입니까? _____	25
● 시사인테나	통제아래 추진대는 북한의 무역 _____	26
	유엔 평화유지 활동 / 중령 조영일 _____	29
● 연구분석	탈냉전시대의 군사력과 항공전력의 역할 변화 _____	38
● 군사지식	A Replacement for the F-16 _____	45
	대공재압기 WILD WEASEL / 소령 이철희 _____	47
● 걸프전참전기	비마의 황수 / 소령 김찬수 _____	51
● 공군지 창간 40주년 특집 ●	_____	53
	공군지 발전사 _____	54
	항공구약부 시절 _____	56
	공군지 창간기의 숨겨진 이야기들 _____	62
	우리들의 생각모음 : 공군지에 바란다 _____	66
● 공군지를 위한 제언 / 박재기	_____	67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사모의 역할 _____	
● 건강상식	젊은 병들 고쳐치 _____	71
● 화 보	제7회 진흥 창작전 _____	73

글 차례

● 특별기고	무주전과 군사위전 문물실태 / 육군소령 지병철	81
● 기술정보	정보관리 정보화에 관한 제언 / 소령 안병철	90
	신병도 중심정보 / 중령 김진웅	94
● 만 화	치마를 만입는 마유 / 고석환	103
● 청 진 기	파트리머트 / 곡면 갈포전의 영웅인가 / 중령 이백두	107
● 역사탐구	왜 이슬람교를 싫어한 반공주의자가 되었나 / 중령 윤동현	110
	한국 전쟁과 공중전 11 / 이병복	116
● 발명교실	발명에도 기법이 있다 / 황연중	119
● 만화이야기	군대생활과 만화의 활용 / 임형신	123
● 예술의 멋	세계의 주요 음악생구르	126
	말사가 끄는 10종의 책	131
● 心 의 터		132
	동전저금통 / 강선옥	132
	일복찬 군복속의 당신 / 고미애	134
	주종사의 길 / 이학환	136
	조종박의 의미 / 중사 오성률	139
● 무관통신	쿠마나이 국군의 날	140
● 독 후 감	'정보화 인간의 매력'을 읽고 / 소령 김규진	142
● 조 사	책 김정렬 장군님께 / 참모총장 이양호	146
● 우리말 바로압시다		148
● 우리말 바로 쓰기		149
● 안전운전		150
● 편집후기		151

공군창설의 주역이며 산파역



국무총리 재임시의 김정렬 장군(18대)

공군 창설의 주역으로서 창군 7인 간부 중의 한사람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며, 초대 및 3대 참모총장으로 우리 공군력 현대화의 기초를 닦아 한국 공군의 산파역이며 역사로 불려와 오던 김정렬 전 국무총리의 안장식이 9일 상오 11시 30분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이양호 공군참모총장과 군 주요지휘관, 정계, 재계, 관계의 주요인사 및 유족들, 많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애도하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김 전총리는 지난 9월 7일 하오 7시, 서울대 병원에서 숙환으로 향년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김창균 5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참모총장을 고문으로, 이양호 공군 참모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장례위원회에 의해 공군장으로 거행된 김 전 총리의 장례식은 서울대 병원 영안실에서 열린데에, 국립묘지 현충관에서의 영결식, 국립묘지 유공자 제 1묘역에서의 안장식 순으로 시종 엄숙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전유성 목사(공군 군종장)의 인도로 진행된 발인에 배를 떠난후 원세, 노란색 국화도 단장된 영구차에 실린 고인의 유해는 현행 선묘차를 따라 중앙박물관, 남대문, 서울역, 삼각지, 용산을 거쳐 국립묘지에 도착하여, 공군 군악대의 진혼곡과 유족 및 추모객들의 애도 속에 국립묘지 유공자 제 1묘역에 안장되었다.



김신 장군에게 지휘하는 김정렬 장군(오른쪽)
(여의도 기지 1951. 4.)

김 전 총리는 해방 직후 건군 작업이 한창일 때 자주 국상을 위해서는 공군의 독립과 공군력의 강화가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군 창설 7인간부로 일컬어지는 최용덕, 마병집, 장익창, 이근식, 이영무, 김영환 등과 함께 48년 국군 조직법 제정과정에서의 독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48년 10월 1일 공군 창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육군으로 부터 분리, 독립시 1천여명의 병력과 L-4, L-5 연락기로 시작한 우리 공군은 김 전 총리와 참모총장 재임시, 건국기 한남운동을 통해 T-6연습기 10대를 도입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F-51 전투기, P-80F 제트 전투기, C-47 수송기를 도입하는 등 공군력 기반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인 공군력의

중요성을 내다본 예지를 지냈던 김 전 총리는 해방 직후 국가재정이 곤란하여 비행기의 도입이 어렵자 공군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항공의 결종』을 자비로 발간하여 전국적인 간국기 헌납운동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참모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현재전에 있어서 공군이 가진바 그 역할은 다시 말할 것 없이 전승의 관건이니 적이 그러함 아공군에게 강타를 당해 가면서 또 항공 세력강화에 급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고 자주 피력, 현대전에 대한 깊은 조예와 공군력의 중요성에 대한 날카로운 예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초대 참모총장으로 재직할 시 김 전 총리는 군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후진양성을 위해서는 참모총장직이 임기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모총장직을 면케 해달라는 시한을 이승만대통령에게 보내 많은 후배 장교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다.

공군 군번 1번으로 참모총장을 두번씩이나 역임한 외에도 19대 국무총리와 7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경제와 관계에서 두루 활약한 김 전 총리는 공군발전엔 이바지한 혁혁한 공로와 의연한 기풍으로 공군 전 장병으로 부터 장군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김 전 총리의 시신은 공군의 장대의 21발의 조총 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에 밝혀 국립묘지 장군묘역에 안장되었다. 유족으로는 이희재여사와 3남2녀가 있다.

故 김정열 장군 약력

- 생년월일 1917년 9월 29일
- 1936년 경성공립중학교 졸업
- 1941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
- 1948년 9월 국군항공사령부 항공사관학교장
- 1949년 10월 초대 공군 참모총장(대령-소장)
- 1952년 12월 UN군 사령부 한국군사 사절단장
- 1953년 3월 공군중장
- 1954년 12월 제3대 공군참모총장(중장)
- 1957년 7월~1960년 제7대 국방부장관
- 1963년 2월~1963년 4월 민주공화당 초대의정
- 1963년 4월~1964년 11월 주미 특명전권대사
- 1966년 2월~1966년 12월 대한상공연맹 이사장
- 1967년 7월~1971년 제7대 국회의원
- 1971년 8월~1974년 12월 삼성물산주식회사 사장
- 1973년 8월~1975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1981년 4월~1987년 7월 국정자문위원
- 1981년 6월~1985년 6월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1987년 7월~1988년 2월 제19대 국무총리

■ 서훈

- 1951년 2월 1956년 12월 미국수공훈장(지휘관급)
- 1951년 10월 태극무공훈장
- 1954년 10월 을지무공훈장
- 1956년 4월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 1963년 12월 수교훈장 흥인장
- 1987년 7월 수교훈장 광화대장
- 1992년 9월 국민훈장 무궁화장

故 김정열 전 총리의
장례식은 공군장으로
치루어졌다 ▶



하늘을 날고자하는 꿈의 실현

제 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글라이딩 대회가 모두 17개팀 57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항공사상의 양양과 항공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공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성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 85년 경주 토함산에서 있었던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공군본부가 주최하고 공군사관학교가 주관했다.

일반부, 대학부, 여성부 및 단체부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이번대회에서 일반부에 참가한 이정운씨를 비롯해서 대학부의 이민우씨와 여성부의 최선희씨가 개인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단체상은 일반부 에어마스터클럽과 대학부의 공시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본 대회에 앞서 공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한 1천여명의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시범행사에서는 동력 행글라이딩 전인 시범과 유인글라이딩 시범 및 고공 점프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학생 및 시민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자아냈다.





參謀總長 指揮方針

完璧한 領空防衛任務完遂

高度의 戰備態勢 維持
實戰的 敎育訓練
合理的 部隊管理

“하나의 끝은 새로운 것의 시작인 것을”



예부터 남자가 40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말이있다.

공군의 해환과 같이 흠뻑 서려있는 공군지는 6.25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52년 한국문화사에 빛나는 자취목으로 크게 자리한 최해송, 김동리, 최정희, 황순원 선생들과 같이 정훈감실 주관으로 항공구마부를 결성하고 “코메트”지와 “주간공군”을 창간하여 공군 장병들의 신의 고취와 전사의 자족, 전쟁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래 이제 1992년 10월 창간 40주년의 경력을 맞게 되었다.

“코메트”지는 창간 최고 수준의 문인들에 의해 편집, 발전되면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출판계에 이정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군”지로 명칭 변경과 함께 편집면도 젊은 현역장교 중심으로

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지난 40년은 숱한 내외 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군지를 격월간에서 계간지로, 주간 공군은 계주간지로 발간주기와 발행부수를 조정하여 발행하는 등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공군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공군지를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단념하에 끈질긴 노력을 결집시킨 연고의 세월이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군은 근래 최고 최장기간 발행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군지의 창간 40주년을 맞는 특집 기념호 발간을 기쁨으로 외주 인쇄를 시도, 더욱 신뜻하고 율력을 갖추도록써 시대 감각에 맞는 변신을 거듭함에 전력하고 있다.

또한, 장교용 교재로 하던 시대에서 현재에 모든 공군 가족과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한 내용의 공군지 종합 교양지로서 변신하였으며 발행과 사후에서 같이 사당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어려운 시대를 끈기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한 결실을 보았으므로 여기저기 “하나의 끝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는 단념으로 환호 찬호의 발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간 것이다.

과거 창간 당시의 그 명분 들던 정황에는 큰 격차를 보이며, 지금 경험도 능력도 지식도 부족한 젊은 장교들에게는 전무의 지성과 도전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공군지가 공군장병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과 정신을 한곳에 결집시킬 수 있도록 더 좋은 매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믿음직 수혜에 나간 것을 제일 다짐한다.

공군지는 이제 창간 40주년을 맞아 과거와 오늘과까지는 물론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군인들의 결심과 지주로서 새롭게 재탄생하여 스스로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훌륭한 모습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

정 호 감 대령 홍 종 도

공군지 창간 40돌을 축하하며...

먼저 공군지 창간 40돌을 경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공군이 고유한 역사적 경험 축적을 통하여 공군의 고유문화를 창간함에 있어서 공군지의 역할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공군문화의 거점인 공군지는 조직의 장애이탈 수 있는 장하, 수백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공군조직에 활력을 주고 신바람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지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독창성과 신선감을 주는 후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 공군가족을 위한 정신적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군지가 좀더 과감하게 구태를 벗어날 보다 더 널리 읽히는 길로도 제작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층에서는 공군지가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성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제작진에서는 공군의 얼굴, 행동, 마음이 담긴 자문을 믿는다는 전문가적 기질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 장병 및 군무원들을 보다 적극적인 창으로 공군지를 빛내야 할 것입니다.

공군지의 창간 40돌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공군지가 공군의 미래를 밝히려는 중추로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공군 참모총장

공군대령 이 양 호

추천받은 순서대로 책읽기
천천히歷史의 흐름을어느 글까지 읽고
공간의 구석구석을 살고, 넘어
오지 眞理를 태만하고, 우리 眞理를 이끌어온 그 노자가
영광이 많았는지요?

는 어머니 유족관을 故鄆의 피수관으로
대중 귀족은 自由臣의 조수으로
계절이 바뀔때마다
기다리며 살래면 우편의 가슴에 낙년봉 훈기를 치환관지유

사랑을 맞이한 이 어둠
 수레와 분화지 원형을 이루어
 보다 달당하게, 보다 무뎌지게
 되고, 함음만큼 미미하게 되어
 새겨 나갔지만 남아있지 않은지요

비하여 우리네 인간에 존재하는 연중일으
서와 해의 빛과 열을 조금씩 해에 준다면...

*** 그레이시 씨 카를은 지금 그리움에 남습니다.

또다른 8월을 준비하는 공간에서, 우리들의 열렬한 애정
공간에서 뜨거운 감사와, 따뜻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른 역사 속에서도
외면한 발걸음 멈추지 않은
그대, 공군이어
오늘 돌아 보는 바흔 줄의 나미태가
차라리 아픔받기까지 하구나

천하에 가을이 왔음을 일러고
애써 뿌린 씨앗은 가을이 열매 맺어
들관의 낮가리처럼 높이 뿔었네
우리가 손을 맞잡고
가슴 부풀도록 바라보니

조국의 하늘에 높이 올라
달려갈 내일을 밝히려 다오
푸르른 역사가 그 어깨에 얹혀
비장의 날개로 커를 잡고 나가는
그대, 공군이어.



“코멧, 미사일”이라는
과거의 이름도 그리운 중년!
青春의 피가 끓었고
空軍人의 가슴마다
잊을 수 없는 영광되어
장담 수 없는 깊은 밤이
몇 세 왔던가!
내 마음엔 늘 푸른 하늘
작은 불씨는 공군표
노래하고 “純” “이런
이름으로 새롭게 피어나
아, 아아,
永壽한 행복이어
너희 밝아라.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사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므로 개인에게는 추측
상도 있고 선념과 소신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그 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공동체속에서 생
활하는 때는 자기만의 생각과 소신
대로만 살아갈 수 없고, 집단의 생
존을 위해서는 공동의 가치관에 대
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식
이나 Commons, 즉 공감대가 요구
되며, 이것이 집단에서 무리함이
없이 전체와 개인을 조화시킬수
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옛말에 『外侮內訌 而
亡』과 하였던가.

즉 외적으로 동규동갈하고 내적

으로든 모가 있어야 하여 같이 조
화해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리라는 하
는 식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뜻을
담고있는 이 말씀에는 사람이 부딪
치며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화합하는 매우
직한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데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
고 화합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는 개인에게 각각 상충
되는 이해 관계나 생각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 개인의 가
치관이 상충됨에 따라 사회에서 표
구되는 공감대도 상충조절 될 것이
고 이것은 개인의 생활속에서
'Yes'와 'No'를 잘 소화시켜 나가
므로써 아낄수 있을 것이다.

지휘관 장수의 한다.

'지휘관 비독'에서 지휘관(특히
배배를 이끌어하는 지휘관)에게 일부
러 근소한 차로 저드리는 것을 비
유한 말이다.

실제로 군 생활을 하다보면 지휘
관이 게임에서 계속 졌을때 화를
내고 바둑판을 뒤엎는 경우가, 부
대내에서의 바둑 실력을 믿고 사회
에 나가서는 대참패를 하는 사례를
이따금씩 듣거나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조직에서는 특히
계급이 높고 권한이 많은 사람일수
록 'Yes sir'에 숙달되어 있고
'No sir'에는 숙달되어 있지 않다.

장구나 바둑에 이기거나 'No
sir'를 자꾸하는 사람은 충성심이
부족하고 배짱이 없는 사람으로

탈무드에 보면 사형판결시 전원일치 사형이면 무효

간주와 자나 최소한 대하면 지루할 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되기가 쉽다.

인간세상에서 'No'하기 위해서는 '당장, 부장'이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굳에서도 진질 좋은 결심을 맺기 위해서는 'Yes, sir' 뿐만 아니라 'No, sir'에도 숙달되어야 한다.

누군지 정화의 기적이 나지 않지만 2차 대전시에 연합군의 어느 사령관은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선고실에서 정 일설으로 권하의 임무를 'No'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회상하는 것이다.

그 비서실장은 참모들의 의견중 공식직장에서 'No'라고 하기 곤란한 의견을 수집해서 사령관에게 'No'의 권을 자주 제기하고, 그 사령관은 재검토하고 보유했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얘기이다.

'No'라고 얘기하는 용기와 'No'를 스스로 없이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굳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일대일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는 IRVING L. JANIS가 쓴 'Victims of Groupthink'라는 책을 보면 Johnson 대통령의 책임중 그의 가까운 조수이었던 Bill Moyers 말투에도 때때로 권하에 반대

의 조언을 잠깐했다고 하는데 그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순순히 받아들였고 Moyers가 회의에 도착할 때 대통령은 "Mr. Stop the Bombing이 온다"라고 초청하고 "Our favorite dove"라고 지기 세우면서 겸자 걸릴어진 반대자로 변신도도 했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자주 'No'라고 하면 헛새람은 기분이 나쁘고 'No'라고 하는 반대자도 걸들려진 반대자의 입장에 있어야 학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해 존재의 상충에서 본질은 변질되게 마련인 것이며 어떠한 이러한 과정에서 끝났다는 건내 권으로 끝나지 않았던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지자 지자이라 샌더스는 "일본인은 스스로 망한 일본의 'No'를 자라할 때 때로는 어떤 일본인으로서 재해에 뛰어들어, 동심원으로서 세계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폐쇄된 사회보다 개방된 사회를 일본인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자국내의 권고한 보호주의자에게는 아니까리나 'No'를 말하고 동시에 일본에서도 넓은 의미의 일본인들을 향해 일본 정치가는 다른 많은 일본인을 위해서도 분명히 'No'라고 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악해의 보고'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사형의 판결을 내릴 경우 재판소에서 관사들이 전원일치로 사형이라고 판시한 경우는 무효라고 되어있다.

그 재판관중 재판에 대해서는 언제나 두가지 권하가 있어야지 한쪽의 의견 밖에 나타나지 않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이다.

이런 면에서 볼때 우리가 외국 자립들과 같이 근부하게 되면 몇가지점 배우게 된다. 그곳에서도 자인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고, 토론의 과정이 매우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며 공과 사가 명확하여 토론시 어떠한 반대 의견을 내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집장사가 사치에서는 사령관의 어깨를 두들기고 얘기하면서 'Yes'와 'No'를 스스로없이 분명

조직사회의 진정한 뜻은

‘No’의 용기와 ‘Yes’라는 복종의 조화

히 하는것을 보곤한다.

우리도 이러한 선견의식을 갖기 위해 많은 지휘관들이 토론 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토론의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고 No라고 얘기한 사람에 대한 추방율이 있고 지휘관의 의도에 어긋나는 토론의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토론의 필요성마저 의문시 하게 된다.

언론가 TV에서 토론 문화에 관한 주제를 내용으로 코메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사장이 직원들 제후대회를 무슨 운동이 좋은가를 생각해보라고 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의 반반씩 축구, 탁구로 나뉘어 격문을 벌이다가 가끔으로 탁구를 하기도 경쟁하여 사장에게 전이 했더니, 사장 할 '토론' 했지요, 자 그럼 축구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다. 즉 토론은 허허쑤니 없는 때론상 정도로 여기고 웃고 넘어갈지 몰라도 나는 군생활의 연배가 어느 부대를 옮긴 것 같이 가슴이 행랑을 느꼈다.

조직사회에서의 진정한 뜻은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Yes'라고 복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함께 할 때이다.

토론시에는 자기의 정황과 의견을 기초로 하여 No라고 할 것은 분명히 No라고 하고 토론의 결과

자기의 의견과 반박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Yes'라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토론시에는 죽사나 패서 아무런 애기도 하지 않다가 결정되고 나면 뒷전에서 불평불만 하는자는 조직의 발전에 가장 반하는 것이다.

재능이 올라가고 나이가 많아지면 권위와 경험에 의해 판단하려고 하며 재능이 낮거나 젊은층 일수록 열정과 창의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 두 부분의 조화가 잘 이루어 지려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Yes'라고 수용하는 개인적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Yes'와 'No'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의견을 주도하는 자나 세공하는 자의 민주적 사고 방식과 행동절차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적 정보체계 하에서는 상급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식견도 넓고 정황에 의한 판단력도 많기 때문에 토론이 잘 진행되더라도 일정한 방향의 제안이 나오면 금방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지만, 늘어있는 상급일수록 여러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민주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나는 군생활 중 항상 사람들 사장의 눈으로 보고, 사장을 이해하는 태도로 보는 살권을 모신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귀찮으로 삼고 존경하고 있다. 이런 분과 같이 얘기 할 때는 'Yes'와 'No'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직접로 만들어지고 솔직담백한 의견을 기초로 최선의 방책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속담에 'It's not the result, but the process what is more important.' (더욱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란 말이 있는데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체제를 탄생시킨 오랜 경험에서 흘러나온 속담이 아닐까.

'Yes'와 'No'를 스스럼 없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갖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쟁 'Yes'와 'No'할 수 있는 멋진 승리가 되자.

이해록을 533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공민**

100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팀웍을 깨뜨리는 주범이다.

조직이 운영되고 할 수 있는 일책이 잘 짜여지고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어
닌 조직원 모두의 헌신과 열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조직의 근간을 깨고 일을 위태시키는 요소
들이 적지 않고 드물. 그런 행위를 이루는 자각없이
행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 생활 속에서 (이것이 바로
팀웍을 깨뜨리는 주범) 그리고 지대한 내용을 소개
해 본다. 우리와 비교해 본다.

《관심자》

사리사욕을 앞세운다. 또는, 과·부단위의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회사 전체의 이익을 등한시하게 된다.

이른 바 개인의 이기주의와 부사이기주의가 문제가 된다.

번지,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를 따져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킨다는 데 있다. 자신의 동요나 회사를 팔아 사라지도록 차리는 사람에게 어떤 팀워크를 기대하겠는가. (내가 제 이익을 제아 함니까?)하고 자손 질문하는 사람, 대화를 할 때 있어서 (나) 또는 (내가)나의 등 이른 바 (현장) 대명사를 자주 쓰는 사람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사이기주의는 과도한 경쟁심에서 생겨난다. 일하지 않는 관리직이나 근사한적인 조직구성원들이 만들어 내는 별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 부사이기주의에 빠진 조직은 부사간 커뮤니케이션이냐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회사는 거대한 유기체임이 분명함에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전체가 죽은 조직이나 나무가 없는 것이다.

맛은 지각·결국은 근무분위기를 댈한다

근태문제를 자칫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

회사는 어디까지나 조직사회이므로 어느 누구도 상대를 대신하지 못한다.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밖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지이다. 결론으로 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야만 하고, 이것은 단순한

근무분위기의 차이를 넘어 심각한 조직장애를 유발하는 결과로까지 확대된다.

영업사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납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깨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불이익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그 일을 함께 한 이들 모두의 심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조직의 일이라는 것이 연구, 생산, 영업, 관리, 경영 등 모든 분야와 함께 모르게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조직원 모두에 다름 아니다.

(스리의식)에 빠져 있다. 아무리 (세멋)에 산다지만...

누가 나 만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과신과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간섭하느냐는 식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과 팀워크를 맞추어 나가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중지를 모으는 일이 보람 것 없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어쩌다 회화에 참석을 하면 거의 합의에 이른 사안에 대해서도 꼬리를 달고 이유를 붙이기가 일쑤여서 도무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또한 심수를 무고리워 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당연시하면서 남의 조그만 잘못을 모조리 크게 확대를 해야만 착안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부르짖기 전에 먼저 평소 사용하는 언어를 순화하자

팀워크를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인정해 주는 문화에서 비롯된다.

따뜻한 위로와 부드러운 경우의식에서 조박을 입고 자기성찰을 외할 수 있을 때 소속감과 책임의식도 같이 뜨는 것이다.

업무수행이나 정보교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함께 인간적인 대화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는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서 오가는 말들을 들어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 웃고와 같이 남카롭게 제크고, 인정을 기아라곤 한 지도 보이지 않는 혼란한 이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기회가 놀다요 해서 자신이 바쁘다요 해서, 무관심에서, 미라는 나무나 한한 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또한 팀워크를 해친다는 사실을 업무에 주어야 한다.

개인주의— 동료 일에 무관심하고 전제적인 모임이나 교육에 불참하기 일쑤다.

한국인은 모래알과 같다는 부끄러운 말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개인임을 보면 한결같이 강하고 뛰어난데 여럿이 힘을 합치는 데는 익숙하지가 못하다는 얘기다.

제 말야, 두레 들지 않은 좋은 전통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사태의 변화 탓도 있었기나마 무엇보다 큰 원인은 현대 삶의 방식에서 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해서, 회사에서는 팀워크관이나 단합대화나 부서회의 아니 화이 단재행사를 자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급자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평소에도 동료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 자기 일에는 충실할지 모르나 네 할 일 다했으니 다른 일은 어떻게 되든 알 바 없다는 식의 냉혹한(?) 개인주의는 순말하지 않았는가?



정보교류를 기피한다. 중요한 문서나 정보를 독점하고 물어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

현대에는 지열한 정보관행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조직도 정보에 휘둘릴 뻔한지 못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여러 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익 극대화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정보를 독점하는 일의의 어법에는 독단과 권위주의가 들어가 있다.

“당신은 알 필요 없어. 상임위원 주재에 어떤 것을 알아서 피력한 말이야.”

“자네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알아야.”

“이건 태와이라서 공개하기가 곤란해. 좋은 자료가 외부에 이 일을 비드러기 위해 알려고 하는 것이 이런 줄을 알지만 알아야.”

이런 사람에게 공통의 목표나 일하기너를 설명한다는 것 조차 불가능한 일만지도 모른다.

분위주의·학연·지연·혈연 등을 내세워 파벌을 조장한다.

이것은 원형조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위다.

동행이나 한 곁의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피가 끓는다. 전하다는 것은 인자상정이다.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소위인이라는 대전제다.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결합이 확실히 할지라도 사내의 동행이나 동거나 또는 향우회 같은 모임은 그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타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 같은 모임 아첨에 보다 대응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회사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인생의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로서 연대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사가 무분별하다. 무단의출, 사적인 전화, 개인용무로 회사일을 킷전에...

이것은 조직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적 문제다.

도대의 회사에 일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 개인용 무를 보기 위해 나온 것인걸 알 수 없을 정도라면 중중 이 아닐 수 없다.

사적으로 걸려온 전화등을 붙잡고 사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잠시 책상머리에 붙어 앉아 있는가 싶으면 어느 틈에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나타나서는 이런 저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더스레를 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또한 항상 바쁘기 그지 없다.

"지금 바빠서 그 일은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고 말하기 일쑤다. 또,

"아아 회사일 더 흔하시 하나 누가 알아주거나 해!"

하여 이유를 꾸무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망쳐 놓는다. 회사에 불행불안이 많은 것은 두 말 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사람이 가정일에는 충실할 것 같지만 침만의 말줄이다.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 세지 않음에 하는 우리의 애통함이 있지 않은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관리와 조직력을 약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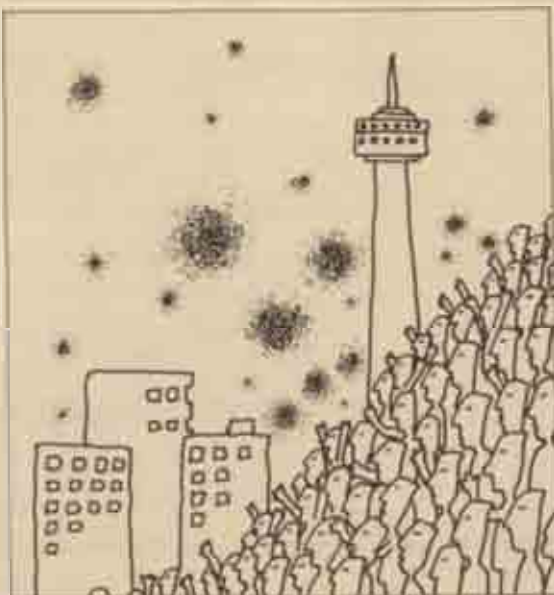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 서도 인사분제는 조직원 개개인의 이해와 작업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정실인사는 필책을 배치는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6·25 당시 미국 대통령의 아들과 모태동의 아들이 모두 한국전에 참가하여 목숨을 잃었다. 또, 독재자의 상형인 스탈린의 아들도 2차 대전에 참가했으며, 전선에서 실종되었고 그 시체조차 찾지 못했다고 한다.

세계사를 이끈 지도자들이 인사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잘 알려 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조선그림기획홍익출판사)



육성의 방법 · 목표 · 수단

1. 부하의 수준에 따라 처벌해 구분치라
 - "중저서 해문다"는 말은 현대에서는 예외.
 - 나누어 보면 할 수 있는 프로의 기준
2. 뭘 수 있는 한 대행시키고 자신감을 붙여라
 - 대행은 훌륭한 라이를 만든다.
 - 실사의 권한을 활용해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보라
3. 1인 3역 이상의 기능을 부여하라
 - 일을 복합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 다능화로 조직의 벽을 허물어라.
4. 전원을 소집단 리더로 육성하라
 - 소집단에 의한 팀워크는 가장 강력한 조직
 - 말프로의 조직 활성화의 본명
5. 2인 이상의 후계자를 육성하라
 - 정말로 실패하는 사람을 선정할 것
6. 귀가따가울 정도로 방한은 철저히 알려라
 - 무의식 가운데 강령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 귀에 못이 박아야 프로
7. 조치가 살아물리는 효과를 증시하라
 - 가치있는 것의 계속은 전통을 만든다
 - 조치는 생달과 의사봉인의 기회
8. 때로는 함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개선시켜라
 - 자세 겸손으로 사후에게 이야기 한다.
 - 고백은 대화로서 번갈린다.

이렇게 키워라

지시할 때 보고할 때, 일을 할당할 때

1. 말(인) 원래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상대말이 70퍼센트 알아주면 성공
 - 권위한 듯하면서 불편한 것이 많.
 - 말만으론 안이라 사실로 확인하라
2. 지시의 명령은 요점만 간결하게 하라
 - 숫자를 넣어서 명확하게 한다.
 - SWOT과 퍼스펙
3. 읽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르쳐라
 - 줄이에 쓰는 것이 과학의 시작.
 - 매뉴얼을 만드는 그 자체가 뜻이 있다.



늘 곁에두고 하루에 한번씩

명량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4가지 예절

1 전화 예절

- 전화를 꼭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본다.
- 용건을 밝히며 3초 이내에 끝마친다.
- 우선 자신의 이름부터 밝힌다.
- 언어사공(선배)에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 기다리게 할 때에는 상대방의 심정을 항상 확인한다.
- 부재자에 대한 연락을 철저히 한다.
- 상대방의 용건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전화를 끊는다.
- 회의 등의 내부사항으로 인하여 외부 전화를 받지 않는다.

2 접대 예절

- 방문객을 기다리지 않게 한다.
- 접대는 짧게 하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 준다.
-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로 접대에 임한다.
- 물자이나 말의 사용에 유의한다.
- 방문객에게 알차야 할 급한 물품은 예로로 전달한다.

3 방문 예절

- 상대방의 사정을 확인하고 방문일정(일시)을 약속한다.
- 약속시간 5분 전에 약속장소에 도착한다.
- 약속시간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 복장이나 매너에 항상 주의한다.
- 용건은 사전에 정리해 물어 단시간에 요점만을 정확하게 얘기한다.
-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한다.
- 반드시 방문처의 협수예를 가한다.
- 방문후 즉시 배를 꺼냈는지 예의상의 전화를 항상 한다.

4 대화 예절

- 항상 명량한 말을 사용한다(고압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무파합니다).
-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취한다.
- 반대이견도 존중한다.
-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한다.
- 모르는 것은 솔직히 묻고 듣는다.
-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솔직하게 의견을 표시한다.

조직관리의 10가지 정경표

1. 조직에 존속하는 부분은 없는가.
2.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 되지 않은가.
3. 부서가 많아서 통솔에 어려움이 없는가.
4. 소속부서가 불명확하다든지 이중으로 소속해 있는 사람은 없는가.
5. 과습이나 폐면 때문에 사람 중심의 조직이 구성돼 있지 않은가.
6. 책임과 권한 때문에 벗어나는 불위는 없는가.
7. 알려 지시계통이 제대로 되며 있는가.
8. 개인적 불화가 인간관계나 조직을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9. 인사면의 행동지침만 배워받은 직원이 있는가.
10. 조직의 목표는 잘 이해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형입니까?

대통령 연구소(KDI) 센터
국립경제연구소가 본지엔 경제이치
코너를 마련했다 (연말까지 끝)



● 평등주의적 독립형 ●

돈이 많은 게 하는 사람에 대한 평등한 과소비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 사회 제 평등의식을 갖고 있으며 직업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세치한다.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적 경제가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며 정부 주도 경제정책에 거부감을 갖는다. 차나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빚갚으며 간접적인 세금과 살아가는 인간적 자부심을 중시한다. 실업·나이·직업에 관계없이 골고루 분포돼 있으나 고학력자에 비교적 많다.

돈과 재산은 인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며 돈은 쓰기 위해 번다고 생각한다. 즐길 줄 모르고 돈만 버는 사람은 몰밭이라고까지 생각한다.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구분되며 귀한 직업이 희귀하다고 생각한다. 개인 생활이 간접적인 것을 싫어한다. 몸값이 높으면 차제도 구입한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자기 권력이 형. 20~30대에 입도적으로 많으며 월수입 1백만원~2백만원의 중간층에 많다.



● 현로 원유적 근대주의형 ●



● 가계지향적 실용형 ●

고성스러운 것도 부수에게만들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한다. 돈 없이 실용만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목돈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낀다. 과소비 시작보다는 구두의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약을 기대한다.

40~50대에 많다.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의 생계에 대한 걱정에 차여 있고 재산을 모르는 게 흠이무렵의 하나라고 믿는다.

가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가발전에 대한 의무감도 갖고 있지만 남에 대한 비판, 특히 부자에 대한 행동비판은 심하다. 본인은 과소비나 지출을 경계하지만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청우이탈에 대해서도 긍정적.

월수입 1백 5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 생산직 근로자에 상대적으로 많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으로 돌리고 싶은 것이 슬상파였다.

<1991년 5월 27일자 동아일보(제 4)>



● 관공적 지/는-형 ●

통제 아래 추진되는 북한의 무역

의 무역정책은 전반적으로
북한으로 '소극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극적 관점」이란 대외무역을
각국의 자위적·인위적 이전의 차
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
현상으로 인해, 민족적 경제발전이
대외무역을 자금자족 경제(Au-
tarky) 건설을 위한 보조수단으
로만 간주, 국가독점의 원리·자력
경제의 원리·호혜평등의 원칙하
에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물자수
입에 우선권을 두고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서만 추진
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에서는 무역
에 의한 이윤추구나 비교우위에 따
른 수출·입 경제성 등은 부수적인
의미밖에 없으며 무역계획도 철저
한 계획경제하에서 수출입 균형주
의를 원칙으로 해서 수립되고 있
다.

북한의 무역계획은 국가계획위
원회·무역부 및 관련부처·무역
상사 등이 참여, 대개 3가지 유형으
로 수립되고 있다.

기본무역계획, 연산무역계획, 수
출입 실행계획 등인데 기본무역계
획은 경제개발계획의 구성요소로
서 각 경제계획기간 단위로 기본경
계 개발계획을 고려해서 계획기간
동안 교역해야 할 품목 및 수량이
책정되고 있다.

연간 무역계획은 기본무역 계획
을 구체화한 총괄계획이며 수출입
실행계획은 총거래금액과 수량, 수
입에 필요한 외화금액, 해상수리

등을 자세하게 명시한 것을 말하고
있다.

기본무역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에서 연간무역계획은 무역부가 국
가계획위원회·무역은행·무역상
사 등과 협의해서, 그리고 수출입
실행계획은 각 무역상사가 분기별
로 작성토록 돼 있다.

■ 무역업무 8개 부서서 관여

이같은 북한의 무역계획의 내용
은 4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수출계획·수입계획·외화수입
및 지출계획·기타 무역관련계획
등인데 수출계획은 다시 상품 수출
계획과 종합합비 수출계획으로 구
분되며 대량국가·종목 및 경제방
법별로 수립되고 있다.

수입계획 역시 상품 수입계획과
종합합비 수입계획으로 구분, 대상
국가·종목 및 경제방법별로 작성
되며 외화수입·지출계획은 계획
기간중의 외화수입과 지출을 서로
대비해서 외화수지균형여부를 파
악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여 외화수입·지출계획은 무역
거래의 수입과 지출, 무역의 거래
의 수입과 지출을 합산, 무역부에
서 작성하고 있다.

기타 무역관련계획에는 각 무역
상사의 경제활동 및 재정, 금융에
관한 재무계획, 수출입 화물운송,
노동, 관세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무역을 담당하는 기구는
크게 보아 8개에 이르고 있다.

무역에 관한 기본입법을 수립하
는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 무역부

■ 내외통신에서



• 대외경제사업부 • 대외경제위원회 • 국제무역촉진위원회 • 대외경제위원회 • 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조선대외파라카출고위원회 • 대외경제위원회 • 무역상사 등이다.

무역부에서는 무역정책과 무역제도의 수립, 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등 대외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사업부는 70년대초 플랜트 수입 및 개항 및 수입외환 재원을 위해 무역부로부터 독립, 설립된 것으로 외국과의 무역상사, 세관장, 대외경제위원회, 조사 및 개항,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일을 맡고 있다.

대외경제위원회는 무역사업 또는 외국과의 경제협정 체결 업무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는 비수교국과의 무역 확대 및 대외경제

개발 촉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조선대외파라카출고위원회는 외국과의 파라카출고의 대외무역, 대외경제 무역기관은 북한의 무역부를 대표해서 대외에서 무역부의 업무 권한과 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 또는 알사관내에 있는 무역회사부와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 설치된 무역대표부 및 공표관 등이 이에 속하고 있다.

무역상사는 무역정책의 실천적인 수행자로 북한경제에서의 중요하게 운영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에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며 이 중의 일부는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 대외국가에 따라 무역형태 3가지

트 분류

북한은 무역부 관할과 대외경제사업부 관할로 구분되고 있으며 무역부 관할 상사에서는 상한의 총독 및 분관관 전문분관관, 대외경제사업부에서 관할하는 상사에서는 플랜트 및 장비류의 수출·입과 기술교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저급한 무역상사가 약 1백여개 설립돼 있으며 중앙 무역상사 • 조선일반수출회사 • 동로 무역상사 • 국제무역총회사 • 평양무역상사 • 평양무역총회사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형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대외국가의 정치 및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국가권과 제3세계국가권 그리고 시장국가권으로 나뉘고 있

다는 것인데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무역은 대체로 호혜평등주의에 입각, 쌍무원장에 의한 비터무역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3세계권의 국가와는 특점품목의 수입에 상응하는 상품대금은 외화로 지급하되 수출에 따른 대금과 거의 맞추는 유환구상무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방권 국가와는 다시 수교국 및 비수교국으로 나누어 수교국과는 부분적으로 비터무역을 행하며는 직접 교역의 형태로, 비수교국과는 중개무역, 주호무역, 민간합성무역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서방국가와의 결제는 「마크트화」 등 사용

결제방식 역시 대상국가에 따라 사회주의권 국가와는 쌍방간에 체결된 장기무역협정 및 무역의 정서에 의한 청산결제방식을, 서방권 국가와는 상업신용장(Commercial L/C)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결제통화는 사회주의국가와는 당사국간의 무역 및 지불원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아제르지는 원칙적으로 소련의 「루블화」를, 서방권 국가와는 영국의 「파운드화」, 독일의 「마르크화」 및 스위스의 「프랑화」를 중심으로 일본의 「엔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다.

차관결제 등 일체의 결제는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우에는 쌍방 특점은행에 무역자본, 인자본, 청산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산후의 차액은 다음해로 넘겨 차감년도 1/4분

기 내에 「루블화」로 결제하는 것이 아제르지의 상례로 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이 업무는 「조선중앙은행」에서 맡고 있다.

서방권 국가와는 홍콩·귀니히·런던 등에 있는 제3국의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남강은행·무역은행·대성은행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 얼마전에 평양에 설립한 「조선통일외환은행」에서도 앞으로 북한의 국내법과 국제 금융법에 따라 대외에서 은행 경제 대부·저금통 자금 형태의 금융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은 북한의 국영무역회사 오산외중국과 홍콩의 중핵투자 유한공사가 49:51의 비율의 설립한 북한외환의 외국파이 합작은행으로 자본금은 33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품의 인도 및 가격 조건은 계약의 일반 조항으로 관습 무역협정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에서는 코메콘(COMECON)국가들간에 사용되는 「상품상호납입의 일반 조건」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서방권 국가와는 F·D, C&F, CIF의 조건을 대체로 준용하고 있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계약상의 일반조항의 하나로 무역협정 및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고 있다.

수입 및 수출시 각각 관세입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

하고 있다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의 중재는 원리주의에 입각, 피고의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국제무역위원회 산하에 이 중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북한의 관세종류는 부과대상에 따라 수출관세·수입관세·통과관세로 나뉘며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제때 적용하고 있다.

최고세율은 일반세율로 적용, 통상 최저세율 2~4배 정도이며 최저세율은 협정세율로서 호혜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관세는 기계·설비류에 대한 수출세율은 극히 낮고 소비재에 대한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종량세보다는 종가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 관세업무는 무역부 산하기구인 관세관리총국에서 총관 통제 아래 실무는 세관과 세관검사국에서 맡고 있다.

세관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적법성을 검사하고 과세결액의 산정 및 징수, 불법수출·입화물의 단속업무, 세관 검사국에서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징수의 일을 맡고 있다. **등리**

유엔평화유지 활동 (PKO)의 이해와 일본인의 숙원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남침한
이 동시 기갑파병으로 우리도 정식
유엔회원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였다.

다음 1991년 6월 9일 일본참모원장
별위원회에서 PKO(Peacekeep-
ing Operation : 유엔평화유지
활동) 법안이 통과되었고, 우리도
보통을 포함한 평화유지활동에 중
점이 확실히 되고 있는 이때 유엔
평화유지의 어원, 배경 및 근거를
알아 보고, 앞으로 일본이 추구하
는 「군사대국화의 이상」을 위해 위
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
리가 취해야 할 대처방안을 다음과
정리해 보고자 이 글을 쓴다.

1. 유엔平和維持 概念의 背景

평화유지군의 사상적배경은 서기
100년 초 교회를 융호하는 프랑스왕국
들이 내세운 종교적인 지도자에 집단
적으로 군사병입하는 "전쟁에 대항하
는 전쟁"의 이념과 얼마후 군대국제군
의 가장 서구적인 개념으로 성직자의
국제군이 만행하는 가사들을 원형정화
한 것을 대추로 Amon of Bourges
가 추창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19세기 불부스교회 회의(Church
Council of Toulouse)는 14세 이상
의 모든 사람은 전쟁을 포기 할 것을
명령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러한 것을 위반하는 자는 집단행동
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화살받게 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전쟁을 지하러
는 임무를 부여 하였는데 이는 이상주
의적인 집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과 계획들이 계속해서 수행되어 오다가, 1948년에 국제연맹이 독일과 프랑스의 동맹하에서 Saar 지방에 국제군을 설치하고 국민투표기간을 결한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따라서 중립적인 경찰군의 사상은 국민투표시 평화와 질서를 위한 예비대로서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찰군의 행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이 적용되었다. 첫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군대를 투입하여 시위를 하고, 둘째, 경찰행위를 위해서 실제 긴장상황 동안에 군대를 파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셋째로는 대군으로 기동예비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원칙들이 오늘날 평화유지가 견제하는 기본행동원칙과 일치한다.

이처럼 평화를 위한 국제군대에 관한 사상들을 1차세계대전후 국제연맹의 설립자들이 사상에 이어지면 국제연맹의 약화와 함께 힘을 보지 못하다가 2차세계대전후의 국제연합에서 특이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은 한국전쟁당시의 국제연합군과 걸프전쟁시 다국적군과 같은 평화장요의 형태이며 또 다른 형태는 평화유지라는 형태이다.

2 유엔평화維持의 根據

유엔평화유지는 국제부위 유엔헌장에서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유엔 헌장에서 미묘하였던 것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는 평화를 강요하려는 평화강

요이었다. 그러나 안보리가 세계평화질 안보에 있어서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에 대한 대응으로 평화유지 기능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평화유지는 유엔헌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선적으로 특별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언어·실트사무총장은 평화유지가 평화정착의 새로운 도구로서 '예방외교'의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원래 헌장은 두가지 형태의 분쟁해결 방법을 설정하였는데 6장(33조~38조)에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국제평화와 질서를 고지, 판조 또는 달성을 하려는 것이고 7장(39조~42조)에서는 제재의 사용 또는 다른 강제적 수단의 사용을 통해서 국제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공적 헌장에 기초한 집단안보 제재는 전후의 냉전구조의 등장과 함께 무력화 되었다. 원래 안보리는 국제평화위원회(MSC)의 보좌를 받게 되었으나 이것이 구현되지 못했고, 그 결과 평화유지가 평화장소과정의 한 요소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유지가 헌장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참치라도 유엔헌장 1장 1조의 기본원칙으로서, 실천에 입각하여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유엔활동의 일환이었다. 평화유지는 헌장 6장에 대해서는 강한 질책을 갖는 것이고, 7장에 대해서는 온건한 견지이다. 그러나 이후에서 언어·실트사무총장은 평화유지와 현실상 그들을 묶는다면 그것은 헌장의 새로운 4차 12조라고 표현했다. 원질 자체가 역행하게 될 필요가 못한 6조와 7조의 애매한 규제

유엔헌장 1장 1조의 기본설립 정신에 입각하여 활동

다는 측면에서, 현상상의 전혀 다른 성격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평화유지는 현상상의 그 근거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말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상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탄생하였다고 보다는 유엔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였던 이상이 실패함으로써 그것을 대체하는 대안들 중의 하나로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유지의 근거는 역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탄생된 현실적정지책에 대해서 현상을 어떻게 차용하고, 현상 조항을 얼마나 융통성있게 해석하느냐 하는 차이에 있는 문제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평화유지의 근거는 할미·술츠사부총장의 표현처럼 (과 12장)에 대한 것이 더 타당한 것인까 모른다.

3 役割的側面으로 본 特徴

평화유지는 매우 전망아반사도 물론 명한 2중적 특성을 갖는다. 그것은 평화유지가 일관된 원칙과 상황에 따라서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례와 환경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적다양성과 적용의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관된 원칙과 특성을 보유함으로써 그 명백히 유지되고 있다.

평화유지는 그 스스로 현상을 숨지 시키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분쟁의 확산과 악화를 막고 화평적이 아닌 잠정적인 단계 (INTER STEP)를 거쳐서로써 부수적인 효과 (SIDE EFFECT)를 가져

“

개별적인 사례와 환경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치 및 운영

”

오는 것이다. 특히 미·소 냉전체제하에서는 전면전을 막으면서 군사유지를 위한 하나의 대차장치의 역할을 해 왔었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최후에 취해지는 조치가 아니라 2차적인 조치이며 비동적수단으로써 막다른 골목에서 취해지는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평화유지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자진수단, 명령, 구성 그리고 지휘관인명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안보리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명백하고 실현가능한 명목이 필요하다.

네째, 자위나 자위를 제치하고는 무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자위는 평화유치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수단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섯째, 적절한 수의 가용인원을 제공하고 명령과 상황에 요구하는 위협을 수용할 수 있는 병력기여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여섯째, 필요한 재정과 병력을 지원하려는 회원국들 특히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조건에서 설치된 평화유지는 기본적인 가치로서 첫째는 당사자들에게 위협을 주어서는 안되는 비강압적인 것이어야 하며, 두번째는 공

정신을 가져야 하고, 세번째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세가지의 가치는 매우 지킴기에 어려운 것이며 앞으로 평화유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첫 번째의 가치는 무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에게 인도감을 주고 평화유지가 활동하기 위한 공간과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고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려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행상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의 가치는 더욱 복잡한 것으로 실제 평화유지 활동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부분이다. 실제로 매우 복잡한 수목 관파적이라고 오해받기 쉬우며 그 가치는 매우 애매한 것이다.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화유지가 어느 일방의 부족을 편하기 쉬운 것이다. 특히 이러한 두가지의 가치는 항상 결합되어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그러한 전형적인 예는 콩고에서 분리주의자들에게 가해졌던 ONUC (United Nations Operation in Congo)의 부위사들이다. 세번째의 가치인 세심한 주의를 평화유지가 공적으로 일지되고 운영되는 초차이므로 이것은 아무리 살피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들이 이 가치를 부족하게 만들기 쉬운데 과거의 경험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집적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유지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위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중립적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행동해야 하고,

둘째, 자책발위를 제외하고는 무장을 사용하지는 안되며,

셋째, 당사국들이 동의한 범위내에서 행동해야 하고,

넷째, 국내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특히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경우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데 평화유지의 역사상 국내문제에 개입한 평화유지 활동이 훨씬 어려웠으며, 권위가 있는 일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일부자체의 수단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개입조건 조건과 행동원칙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최소한의 군사력의 사용으로 중립을 통해 하며, 한에 의한 강요가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평화유지는 권위를 어떻게 부여 받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평화유지는 사실 강력한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에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집단안보를 촉진하는 도구로서의 운영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국적인 특성에서 권위와 합법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와 합법성은 관한 당사자들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화유지에 대한 엄격한 안보리에 대해서, 합법성은 국제법제권으로서 각각 부여되며, 지휘는 사무총장의 권한과에 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상으로 조금씩 바뀌어 왔었다.

평화유지의 권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유엔에 의해에만 부여된다. 그러나 일체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각각의 군대는 자국의 지휘를 받게되므로 2중적인 입장을 하게 된다. 평화유지의 규정이

44

공공의 선에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집단안보를 촉진하는 도구

49

유례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하여서 평화유지가 유엔내부에서 빈의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둘째, 안보리상임이사국은 배제되고 셋째, 분쟁과 관련된 이해 당사국은 제외되며,

넷째, 지역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다섯째, 분쟁 직접당사자가 거부하는 국가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평화유지는 상비적인 유엔의 예비대가 아니며 잠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은 비합할 수 밖에 없고 구성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분쟁 지역의 유엔평화유지에서 차출하여서 구성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캐나다나 노르웨이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많이 담당한다.

이러한 구성원하에 대해서 구성되는 임원은 주로 군인선분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 지므로 군사적인 절차를 알아야 하고 군사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군사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권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들의 전문보조를 위하여 분쟁 군사요원들이 함께 투입되므로써 흔히 평화유지가 평화유지군과 혼동하며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평화유지가 수행하는 임무는 첫째 군사적인 차원의 임무, 둘째, 정보/민간차원의 임무, 그리고 셋째, 민간차원의 임무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임무의 성격은 감시와 관찰의

임무의 성격은 감시와 관찰의 임무와 중재의 임무가 주

임무와 중재의 임무가 주로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제 3세계지역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임무에와 관계되는 임무가 증가되고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관점에서 영국과 알렌·제임스교수는 평화유지가 화기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는 폭탄을 제거하고 인정과를 가져오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의 규모는 평화유지의 특성상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이고 그들이 담당하는 지역과 비교하여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무장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며 군의 구성상에서 나타나는 다국적인 특성에 의해서 표준장비의 정비 및 사용절차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원래의 두 가지 발전속도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지만 평화유지의 제3차적인 특성때문에 사전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평화유지의 질서는 미약할 수동 더욱 큰 힘을 유엔을 통해서 부여 받는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임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발전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감시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승태되고 있다.

평화유지는 모든 작전이 다르다. 그것은 위험이 다르고 그 구성이 다르며, 근본적인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유지작전은 일반적인 철칙을 제시할 수 없다. 그리고 평화유지의 개입명령은 명백하고 단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로 부터 의심과 반감을 사고 복잡한 상황에 대처

하기가 어려워진다.

평화유지는 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알빈·제임스 코수의 주장에 의하면 통상 그가 분류한 5가지 범주 중 7할 범주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적어도 15년 이상의 장기간의 평화유지가 포함되며 대체적으로 기간이 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개의 범주 즉 생명권과 재산권의 문제(backyard problem)에 있어서만이 통상 2년 이하로 짧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평화유지의 특징은 일제적인 운동에 있어서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이 결합해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그리고 평화유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활동이므로 정치, 외교적인 상황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정형은 없다. 오히려 부정형의 평화유지 활동이지만 오늘날 무결형의 활동으로 부터 새로운 정형을 지목하면서 진화되고 있는 유엔의 새로운 지류이자 역할이다.

4. 任務性格別 分類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개별적인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왔지만 군사적 활동인가 아닌가의 기준에 의해서 크게 두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감시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평화유지군이다.

최초의 감시임무는 1948년 팔레스타인에 설치된 유엔감시기구(UNTSO)이었으며 그 이후 유엔평화유지 감시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 감시활동 현황 (표1)

기간별 (기간)	지	역	대	장
1947년 1월 1일 - 1948년 12월 31일	팔레스타인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49년 1월 1일 - 1950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51년 1월 1일 - 1952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53년 1월 1일 - 1954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55년 1월 1일 - 1956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57년 1월 1일 - 1958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59년 1월 1일 - 1960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61년 1월 1일 - 1962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63년 1월 1일 - 1964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65년 1월 1일 - 1966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 * 간토(리정)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 (1966. 4. 25)/안토리
- * * 알바르도, 본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평화유지 활동은 군사적 활동여부를 기준으로 두가지로 분류

감시임무와는 다르게 유엔사무총장 산하에 분쟁해결을 위해서 군사적인 임무를 띠고 설치된 평화유지군의 지소는 1958년 11월 부터 5월까지 이집트, 이스라엘 지역에 설치되었던 유엔감시기구(UNEF)이다. UNEF는 총회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사무총장의 권한을 받는 최초의 유엔평화유지군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쟁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 활동(표2참조)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평화유지군 활동현황 (표2)

기간별 (기간)	지	역	대	장
1947년 1월 1일 - 1948년 12월 31일	팔레스타인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49년 1월 1일 - 1950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51년 1월 1일 - 1952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53년 1월 1일 - 1954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55년 1월 1일 - 1956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57년 1월 1일 - 1958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59년 1월 1일 - 1960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61년 1월 1일 - 1962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63년 1월 1일 - 1964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1965년 1월 1일 - 1966년 12월 31일	중국	감시	유엔감시기구	1명

이러한 활동현황을 보면 감시임무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만 굳이 부각되는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화유지가 특이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하아도 거의 대부분이 안보리가 권위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에서 평화유지는 안보리산하의 기능으로서 자리잡아 있음을 알 수 있다.

5. 47년간의 宿願을 품 日本人

소련의 몰락과 함께 전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세계는 국가들의 갈등과 긴장관계를 넘어서 와해와 합력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화려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세계절사의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여정이 필요한가를 오늘의 국제정치현실이 절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꿈이 가장 먼저 현실화되리라고 기대되었던 유럽도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더욱 아시아의 상황서의 꿈은 보다 더 어려운 정황에 놓여 있다. 유럽상황에 비해 아직도 냉전질서의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는 한국, 북한—미국, 북한—일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프카인 정치적 진퇴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신질서의 본격적 단계인 아시아의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 그리고 신질질서와 관계는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아시아 질서의 주요 당사국인 일본은 전쟁한 아시아의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많이 유엔평

일본의 평화유지 참여는 당분간 평화적인 분야에 국한

화유지(PKO) 헌법법안에만 집중함으로써 「아시아의 일본화」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993년 6월 17일에 일본 참의원 평화유지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일본이 지금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려는 것은 전후 군사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을 스스로 부과함으로써 과거의 죄과를 용서받고,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평화노선추진이라는 화려한 가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가면을 스스로 벗고 평화노선의 과거와 일본의 국시를 바꿔서 군복을 입고 나와도 두렵거나 수치비밀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본의 평화유지 참여가 급가 그대로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내에서도 논란이 있어 해수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평화유지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독소조항(3년후에 전면 해수정 제출을)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일본의 평화유지 참여는 당분간 평화적인 분야에 국한하고, 범죄같은 상황에 유엔평화유지군 등 본격적인 분쟁해결사 역할을 수행하자는 제약을 철폐한 것이나 다음이 없다. 먼저 조임스럽게 발판을 구축, 정세를 유리하게 유도한 후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여왔다는 의도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파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그 첫째는 일본내의 일본이다. 일본 국내 언론중에도 매일(메이니케), 조일(아사히)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같은 비

관라는 한해 반대로 상경(상케어) 해
해(요미우리)들은 서로 소리를 빚춘듯
이 결화유지법인 통치를 환영하는 논
조의 사실과 합일이 다함다는 것이다.
물론은 1921년 6월 19일 제1회 참의원 정
화유지법위원회에서 본 위기는 일본의
본질을 잘 드러내 보인 것이다 하겠
다. 사회당의 반대는 결국 명분을 전술
에 지나지 않으며, "대국일본은 일본
인이려면 누구든 실행적으로 관성하는
것이요, "평화헌법"이라는 것도 제헌후
마중에 부를 줄로 그 내심을 감추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으로 중전국 미
국도 좋다는데, 침략들이란 있을 수 없
다. 사회당의 자연관습과 관련된 논쟁
을 모두가 대외 명분용이요 국면제변
유지용으로 일본 법안들과 주 본위기는
어차피 모두 막수되고 놓날지는 산지
집 본위기가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언
론이나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양측
모두 공동점이 있다면 뜻은 같으면서
도 한쪽에서는 더욱 크게 반대의 목소
리를 내며 주제를 맞추어 가면서 자연
스럽게 그를 내심에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를 취하고 있어, 우리가 부딪쳐 볼
때는 한지한 노론과 양대의안이 수렴
된 것처럼 보이나, 그 건의를 보면 이
이 정치인들은 같은 언론, 국민들이 모
두 관용국임을 깨달아 보아야 한다.

일본이 제1노론은 평화유지 법안은
제 1안이 아니라 1921년 7월 19일에는 제
1안과 제2안(미비)에서 어떤 부사
비대결행과 중재위원(미비)자와 가이
파) 일본총리와 반함은 그런 시각에서
보면 거의 역사학이다. 여기에서 제1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유엔안보리상
임의사국에 될 자격을 갖추었다는 일

“

국제정치 무대에서 일본의 세계 대국의 야심의 노골화는 분명

”

본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겠지 않지만 전
후사에서 국제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은 전후전쟁도발
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한 만큼 최근들
어서는 그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사위일 것이다.

국제공화국이라는 명분 아래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자에 참여를 결정한 일본이
정치대국으로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를 가시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본의 유엔상
임이사국 가입문제는 미국과 일본 두
국가만의 함으로 결정될 사안은 아니
다 할지라도, 선결문제도 주변국들의
우려와 결계를 완전히 해소시킨 다음
에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어쨌든
합후 국제정치무대에서 일본 "세계대
국의 야심"의 노골화는 분명하며, 우리
는 여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노력으로
확실한 대비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다.

6. 結 言

한 국가의 결함들이 국가의 침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지만
알려야 한다고 결함을 제거할 수 없듯
이 평화유지법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평화유지법을 제
지하지는 어렵다. 결점만을 통하여 다
국적국이라고 하는 평화경요의 형태가
다양해지어도 완벽한 해결을 못했듯이
국제평화를 위한 완벽한 해결은 현재
모르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화

유지의 실패한 법안을 보지 말고, 업계 핵심되지 않은 끊임없는 분쟁이나 조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세계이동의 집중을 받게 못하면서 이해관계가 없는 선유과 태리의 현장에서 일투기 이루어졌다는 변을 상기해야 한다. 더우기 해커가 된 현장에서 공공사업이 이뤄진 지역의 교육, 의료 지원등의 도움을 주어 신랄한 민간인을 보호하고 최소한 분쟁화상을 막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화유지에 대한 엄격한 부속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평화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다.

근대에 와서 극동아시아 국가중에서 일본의 유엔평안유지법안이 관외권에 서 통과되고 우리도 참여가 확실이 되고 있는 이때 이에 대한 개념, 배경, 근거, 사실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대국의 이질적 불타는 일본의 적의를 배려" 보았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평화유지의 특징이다. 그중 분쟁당사국의 동화가 없이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외교적 역량과 세계 국가들의 신뢰도에 따라 참여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역량을 끌어 올리야만 국제공헌활동인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론

날씨 이야기

박위

가 집안으로 날아오고, 소가 한자로 들뜬으로 나가
와 피지 않고 고열이서 자기 힘을 잃고 가리없이
정처없이 돌아다니고 달나라가 들어오고, 또 해가 집에
장을 잃고 있으면 들뜬없이 곧 바가 온다.

공화국인 일기예보가 보완되기가 한 수에기 동안 지금
자살을 하면 생물의 종속성을 보고 날씨변화의 경향을 읽어
내곤 했다. 다들일 하나씩 방황한것이나 자기가 가리움을
치는 시간까지도 그냥 보아 날씨지 않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뻐, 그런 관찰을 일련의 인간으로만인 지적으로 얻어
태도로 인해 끝난 것이다.

한마디는 바가 오기 전이면 개구리가 아주 큰 소리로 울
아한다고 항상 말했어하곤 했는데, 이 말이나 재미한 큰
일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개구리를 잡아서 술에 넣
어 기쁘고 사람들이 있었다. 잡아서 술에는 물을 넣은 채
우고 조그만 사파리처럼 놓아 두었다.

개구리가 물속에 있으면 바가 올 것이고 개구리의 위로
오르면 날씨가 맑을거라는 것이었다.

자세히는 날씨의 변화에 구비 관찰한 것으로 생각되
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과 어떤 날씨학자는 1874년에 개구리발
행(발)을 이용한 측두선을 제안하면서 정지할 것을 경우에
있으면 지켜지 했다.

개구리미는 가난한 사람의 온도계라고 불리며 왔다. 정화
한 기온을 위해서 기쁘고 우리 때문이다. 개구리미가 이르
렀을 몇 천 수능가를 세어 거기에 숫을 더하면 화씨온도가 된
다.

또 "개구리가 생각만 곧 바가 온다"는 말도 근질 들어보
곤 하는데, 불무리는 실증(實證) 불변의 법칙인 국문(國文)
의속의 말(말)에 의해 생기는 열(熱)으로 이 말장이 바
가 온다고 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양과 질(量)이나 다량과 고
량과 두께 또는 모(母)의 열(熱)에 의해 개구리(蛙)의 바가 온
다면 개구리는 개구리(蛙)를 배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



1. 問題의 提起

냉전의 종식과 함께 분쟁, 협의, 억압 그리고 군사력에 관한 기존가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걸프전쟁이후에 이미 피해에 있어서 폭력적인 분쟁의 가능성과 탈냉전세계에 있어서 남당해야 할 군사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일부 논자들은 점진적인 안정, 경제후회에 있어서 전자군적인 협력 그리고 군사력 사용에 대한 충고를 예고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논자들은 이러한 예측을 시기상조라고 반박하였으며, 변화속진적인 전란이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을 수반하게 될 것이란 주장을 폈던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더불어 이 전쟁은 군사력의 효용성에 대한 기존의 논쟁에 있어서 관점전환을 초래해 왔던 것이다.

당면문제는 어떤 종류의 군사력을 앞으로 가두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군사력과 연계되는 전략적 개념이 군사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 4가지 방향이 부각된다.

① 냉전과 탈냉전간의 국제안보 환경에 있어서 그 계속성과 단절성

은 무엇인가?

② 냉전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전략적 개념인 억제가 앞으로는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 개념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게 혹은 더욱 적절할있게 적용될 것인가?

③ 1990년대를 위해 더욱 적절한 전략적 개념은 「강압」(Compellence)이 될 것인가?

④ 걸프전쟁사 전략·전술적으로 각광을 받고 응용되어 있는 항공전력이 향후 「강압」이란 전략적념에 어떠한 적용·기여하게 될 것인가?

2. 脫冷戰時代에 있어서 國際安保環境의 패턴변화

국제안보환경이 199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까지를 특성지워온 바와는 달리 말까지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이하에서 몇가지 발원의 「파일바이트」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국가 외교정책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효용성과 관련하여 과거, 현재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과 단절성을 대등하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본다.

논구의 구체적인 변화와 소강국면의 소강변화가 제3세계에 대한 전

탈냉전 시대의 군사력과 항공전력의 역할변화



이 선 호 박사
(한국전략학회연구소장)

주지할까 격변을 고위시점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있어서 현저한 새로운 추세를 시현하게 된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동차의 주안점인 「전지구적 협력의 체계질서」에 대한 색채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냉전이란 말전이란 간에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지식인이나 학자들간에는 국제관계가 황금시대로 전입하자 한다는 가정이 심박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 그리고 그 후의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실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했으며, 국제기구에 대한 평화유지능력의 예측과 신화에 기반 국가간의 경쟁, 지배배제가 군사력의 산물과 같기에 의해 계속되었을 따름이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국가이익이 더 큰 조화와 상호 이해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칸트의 어설적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로 이행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일부국가는 (Kantian epoch) 고차원의 규범을 내세워 군사력 사용을 회피하고 있으나, 국가간의 불화에 대한 마지막 조형자로서의 군사력의 효용성은 여전히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냉전시대에 있어서 냉전체제의 국제안보환경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지 않은 것까지 다른 점이 있으나, 지역불안정과 분쟁을 가져올 이들 요소를

간추려보기로 한다.

①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냉전체제하에서는 제한된 몇몇 핵보유국들에 의한 필수적인 핵의 양극화 (essential nuclear bipolarity)에 의해 핵의 확산이 강력하게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소련의 여러 공화국들이 핵을 나눠 가진 바 있듯이, 핵의 다중성 추세와 핵의 다극화 현상에 의한 「핵의 지역적 배분」을 추구하는 국가들 때문에 확산이 촉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화학·생물학무기 (CBW)의 확산도 계속될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90년대 말까지 적어도 15개국이 CBW를 획득하고 그 개발수단으로서의 원도반을 준비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이들 국가는 만일적인 분쟁당사국들로서 이란·이라크, 남·북한 등과 같이 자질학적으로 분쟁요인이 잠재해 있는 국가들로 손꼽히고 있다.

② 재래형 산에 무기의 제3세계 어랑 가속화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집중적인 재래형 군사력 증강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제3세계 국가들이 중장갑사단 (heavy armored division)개념에 의한 대규모의 현대화된 육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시리아가 이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는 F-4, F-15, F-16, 미라지 (Mi-

rage), 토네이도 (Tornado), Mig-23, Mig-25, Mig-29등 최첨단 전투항공기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아르가니스탄의 수중에 넘어간 엑소셋 (Exocet) 순항유도탄과 스틱거 (Stinger) 유도탄을 비롯한 정밀 유도무기가 포클랜드전쟁과 소련·아프가니스탄전쟁중 전투의 성과를 일신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또한 걸프전쟁 이후 스마트무기 (Smart weapon)의 확산은 중동 산유국들에게 새로운 국면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③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의 정찰, 항공기, 함정 그리고 유도탄 설계·생산·능력화

안드류 로스 (Andrew Ros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상의 4가지 무기체제를 자체적으로 설계 및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대만, 남아프리카, 인도, 이스라엘, 이집트의 8개국을 꼽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도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일파 확산을 촉진시키고, 최악의 경우엔 이들 당사국간의 국제대결을 가장 위험적인 대안으로서 이러한 산에무기에 의한 힘에 호소하게 할 공산이 크다.

④ 지역 안보환경의 중요성 증대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국제안보체제 수중에 있어서 초강이 유입에 모아졌었다.

앞으로도 유입의 중요성은 여전히 하겠지만, 여타지역의 중요성을 배



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중동·페르시아만·남·동북아·라틴 아메리카 등의 지역에 있어서 특히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분쟁을 동서관계의 안목(East-West lens)으로 부차적인 국가안보생각시켰으나, 이제는 소련의 위협이 소멸되고 있는 바, 제3세계 지역의 자강도 분쟁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의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① 자강도분쟁(LJC)의 도지 다발 가능성

레이건 행정부에서 자강도분쟁에 대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으로 1982년에 제시한 바가 아직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

「자강도 분쟁의 주요인은 제3세계의 사회불안과 정치·경제적 발전의 결여에 있다... 효과적인 미국의 대응전략은 미행정부의 자위취급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수단 뿐만 아니라, 군사행동이 시행되어야 한다」

② 불안정성을 불어넣었던 이념적 요인의 계속적인 확대

전후 대부분의 기간중, 사회적인 요인이 되어 온 아시아의 죽음과 같이 집단 마스·레닌주의 사상이 다양한 형태로 소련에게 반파적으로 연결되어 세속적 이상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공후에는 이 대신 이슬람주의와 기타 종교적인 근본주의(Fundamentalism), 극적인 분리주의(Secessionism)와 민족통일주의(Irrredentism) 등의 형태를 취한 종족주의(ethnicity), 그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Nationalism)가 확산된 현상이다.

③ 종족을 기반으로 한 자강도 분쟁의 제3세계 이외의 국외에서 발생 가능성

최근 소련의 발트3국을 비롯한 각 공화국이 분리독립을 선언한데 이어 동구에서 크리미가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근 중동과 소수민족의 집단행동도 같은 맥락의 민족주의적이라고 종족주의적인 운동이라고 하였다. 이는 앞으로 자강도 분쟁의 양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불확실한 요인이 불안전화 갈등의 형태도 세계도처에서 무법적으로 일어나 확산될 것임을 뜻한다.

3. 脫冷戰世界에 있어서 軍事力の 成能

앞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1990년대에도 국제안보환경이 군사력의 기능을 질적적 주수단으로 존속시키게 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있어서는 냉전시대의 4가지 주요기능인 방어(defense), 억제(deterrence), 강압(compellence), 및 식위(swaggering) 가운데 특히 강압 기능이 가민중 중요시될 것이다.

강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여 타국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토마스 쉐링(Thomas Schelling)이 그의 저서 「무력과 영향력」에서 생각하고 있다.

① 전쟁중인 활동을 중지 시킴으로써

② 기타 수행권 행위를 취소시킴으로써

③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범하게 함으로써

강압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논리적 근거는 냉전시대의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변수(parameters)에 두고 있다.

냉전시대의 양극구조에서는 초강대국들이 서로 불안정과 군사력의 행위를 직접·간접으로 자극하지 못하도록 불균형의 장치를 작동해왔던 것이다. 미·소간의 직접적인 부러대결이 기간중 없었던 것도 이러한 장치가 유효했던 때문이다. 즉 초강대국들은 영·수상국들의 힘의 사용을 구속함으로써 지역분쟁이 초강대국간의 대결로 번져나가지 못하게 예방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상례로 될 가능성은 적어진 것이다. 국제체제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다양성, 갈등과 불협화음, 그리고 국가적 요구의 중대 뿐만 아니라, 양극구조의 조짐효과 부재로 말미암아 지역분쟁의 빈도와 강도가 더 높아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그래이 캠프(Graffey Kamp)가 지적했듯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때문에 초강대국의 투쟁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지역 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것이다.

① 초강대국의 세력축소는 지역 세력이 급속히 패위에 할 힘의 공백을 만들어 놓는다.

② 세계 주요지역에 있어서 분쟁의 원인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③ 지역분쟁 해소를 위한 긴장완화 작업에 참여할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유인작동이 별로 없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치명적인

국가 이익 일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지역국가들이 이미 군사력을 운용해왔음을 알게 됨으로써 아들과 불완전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유지 상황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지역국가들은 군사력으로 성취한 기록권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아서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국의 불가피한 군사력의 산출에 의한 강압(Coercion)에동이 나오게 된다.

지역국가들은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화 동거부여가 관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 잘 투쟁되어야 할 것이다. 일해서 지적인 바 있거니와, 지난 10년간에 걸쳐 다양한 지역 세력은 극적인 군비증강을 실현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혼란스러운 국면은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자아내는 위험은 막대하다.

만약 이라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최근에 치른 이라크와의 전쟁이 얼마나 복잡했겠는가. 상상해 볼만하다.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과 같은 지도자의 수중에 든 핵무기는, 독자가 제시했듯이, 그 영향력을 완화시키거나 규제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란과의 전쟁시에 다른 대량 파괴무기(화학무기)를 사용했던 것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제적 압력과 법적 규제가 사단과 같은 패권 지도자들의 핵무장기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와 같은 제반 억제 노력이 추구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이 만족스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힘의 행사에 의한 강압적 수단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스라엘식 해결 방법'을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시설을 파괴했던 '바비본 작전'을 우리는 기억한다. 비록 이라크가 핵무장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지는 못했지만, 힘의 사용만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처방이었다.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이 중장급사단 개념에 바탕을 둔 지상군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대적 항공전력과 탄도탄을 도입한 바 있다. 이라크가 무력이드를 침공한 것이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그들은 현대화된 전략을 사용하고 지역적인 정치적목표를 실현하려고 자의적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의 무력행사가 미국과 국가이익을 여러가지로 위협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미국의 억제전략 개념이 확실성을 상실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 미국과 그 세력 '파트너'들은 고전적인 강압행동을 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강압적인 군사력 행사가 미래에

도, 최악의 경우라고 하지만, 제외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 안보의 활용, 확립키 위해 힘의 강압적인 사용은 정태태안의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안과로서 탈냉전시대의 전지한 고려라고 하겠다.

가까운 미래에는 본안(urgency), 레비리움, 아아압지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저강도의 강압적 분쟁이 동시에 대발적으로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각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조치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월남전이 끝난지 15년만에 다시 재현된 규범적인 정태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기능이 부활된 셈이다.

특히 이러한 간접적 형태의 공력은 미국과 몇몇 그 범주방국들에게 지형되고 있다. 이제 역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단히 유용한 전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강압」이 더욱 유효한 대응책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쟁되고 있거나 대두된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 및 불안정 사태는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미국에게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1세대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유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못지 않게 중동·페르시아만, 남·동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이 앞으로 중요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들 지역에 위협이 대두될 때 종래와 냉전적 전략개념으로서 대응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강압」의 중요성이 급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해가 통종분한 이들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태를 해결키 위해서는 강압적인 힘의 사용은 특히 타당하고 용의주도한 사전 지식과 문화적 및 구조적 복합성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할 것이다.

4. 강압수단으로써의 미래 航空戰力の 役割



전공전황시 미국주도로 운동권 현대 항공전력은 힘의 강압적 행사 수단으로서 잠만해있고, 침략적인 지능을 수행했던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착상이 존재한다.

이는 외교적 수단이나 다른 대안이 무지함이라고 인정할때, 적대국의 정치·군사적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도로 정교화된 실행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적대국에서 정치적 목표를 축소에 하고 군사력의 힘

수를 감소하며, 휴전을 수용하도록 하고 치명적인 군사능력을 포기·파괴보통 압박을 행사한 것이 가장 뚜렷한 실례라고 하겠다.

이들 각각의 정책목표는 공통적으로 적대국으로 하여금 군사력이 완전폐해 탈하거나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기 직전에 지함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의 전 영역에 걸쳐 적대행 전황이나 그 이하 자원에 있어, 강압이 그 정책목표라면, 현대 항공전력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군사적 도구로서 과광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① 「강압」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대 항공전력의 속성은 무엇인가?

② 전공전황은 이의 적용가능성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만약 전황에 질문에 대한 답은 미공군 당국에서 최초로 제시한 새로운 항공전력의 「파라다임」(new air power paradigm)으로 제시될 수 있다. 미공군 참모총장 에리

크(Merill McPeak) 장군은 전략 공군사령부(SAC)와 전술공군사령부(TAC)간의 차이를 구분했던 종래의 「퍼다임」을 이제 불분명해졌다는 것을 1981년 6월에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강조한 바 있다.

「전략공군사령부는 핵무기뿐, 전술공군사령부는 제대형 무기를 운용한다는 개념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 전술공군도 제대형 능력이 있으며, 전략공군도 제대형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전략 및 전술공군은 항공자산이나 화중(payload)과는 관계가 없게 된 것이다. 본인도 이 두가지의 구분을 더 이상 짓지 않으려 한다. 항공기의 성능에 따라 임무를 구분했던 것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으며 사실성도 잃어가고 있다.」

그의 주장은 앞으로 미공군은 핵항공사령부와 비핵항공사령부로 양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후자를 전술공군 사령부에서 「작전공군 사령부」(Operational Air Command)로 개정해야 하며, 그 기능은 제대형 전쟁과 그 수준 이하의 분쟁을 위한 「강압」 기능을 주임무로 수행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항공자산이나 지구상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 「작전공군사령부」는 독자적 또는 단독적 임무를 수행하고, 항공전력의 다양한 정도에 따라 연합국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타군종과도 완전히 통합된 합동작전(Integrated joint operations)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항공전력은 발명전시대에 있어서 「강압」 기능을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이란 것이다.

즉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분화적으로 그리고 이차적으로 완전히 분할된 이 새로운 항공전력은 절충적으로 비해 본래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래한 「퍼다임」은 군사력의 각 기능에 적용가능하며, 특히 방어나 억제 또는 시위 기능보다는 「강압」에 유효하고 적합할 것이다. 이는 전 지구적으로 강압행사가 가능한 힘의 투사능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미공군은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라도 신속하게 날다가 즉각적인 항공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혼성비행단」(Composite Wing)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이 구상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현대 항공전력의 속성을 살펴본다.

① 현대 항공전력의 「강압」작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속성은 세력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이 속성은 미국이 다수의 점진배치권 해외기지를 상실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사력의 전진현시(Forward Presence)가 세력투사를 통하여 실현될 것으로 본다.

② 두번째의 속성은 강압작전을 위한 기습달성 능력이다. 이는 전

프랑스사 은밀원무기의 역할에서 입증되었다. 한지를 회피하려는 F-117의 기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발휘되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깊숙히 침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종은 F-117이었다고 한다. 미래에도 F-117과 B-2가 은밀원무기능을 통하여 본래의 전 영역에 걸쳐 미국의 현대 항공전력을 「강압」능력으로 승화시키는데 있어 결정적인 기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③ 세번째의 속성은 「강압」작전을 수행을 위한 정보성이다.

속도 및 기습과 관련하여, 정보성은 미국으로 하여금 적대국의 치명적인 전략표적은 고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예를 들면, 미공군 참모총장의 「혼성비행단」 형성개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신속하게 목표지역에 도달하고 기습을 달성하며,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발명원동무기(PGM)의 즉각적인 공격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의 충격효과가 「강압」작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④ 네번째의 속성은 「강압」작전을 위한 융통성이다. 다양한 임무와 요구에 맞도록 적절한 편의의 「패키지」(package)를 형성함으로써 세력투사, 기습, 속도 그리고 정확성을 가일층 세고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리미티드 공격하기 위한 소규모세력투사로 부하

『사막의 폭풍』을 위한 대량전투에 이르기까지 작전적 차원에서 지동력의 폭을 광범위하게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현대 항공전력이 걸프전쟁에서 수행한 결정적인 역할과 「강압」의 무수행을 위한 효과성과 적합성을 알아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걸프전쟁을 위한 비항공전력의 대규모 전개는 미공군의 전 지구적 유희범위(global reach)와 세력투사 능력의 위용을 과시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전무기 무대가 미국본토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연속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명령수령 후 3시간 내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진 것이다. 명령을 받은지 5일만에 5개 전투기 대대가 현지에 추진 배치되었고, 3일만에 전투기 세력이 이라크와 수적인 균형을 이루었다. 그해 늦은 가을에는 엄청난 권구항공전력이 출격태세를 정비하였다. 여기에는 F-117, F-15, F-16E, A-10, F-111, EF-111, Raven, F-4G, F-16, B-52, AWACS, JSTARS 등 최상위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항공전력을 뒷받침 하고자 48만 2천명의 승조와 50만 3천톤의 화물과 7천마일을 비행하는 항공수송(airlift)이 전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항공전의 기본적표는 이라크 권역을 마비시키고, 민간인의 피해를 감소시키며, 무대이트로부터 이라

크군을 참수시키는데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지해공합동작전에 의한 이라크의 정치·군사적 지도력을 괴멸·무력화시키고, 항공무세권을 탈장하며, 모든 대량 파괴 무기를 파괴하고, 동세적인 군사능력을 제거하는데 두었다.

항공전력의 운용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라크 지상군을 초월·고립시키고, 그들의 항공세력과 방공능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하여 이라크의 민간 군사지도부를 격파, 마비시킴으로써 쉽게 실태표적을 파괴, 무력화 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쟁기간중 미공군은 6만 5천 소파를 출격 비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F-117기는 특히 오세화된 이라크의 지휘·통제·통신시설과 연관된 전파적 자산을 기술적으로 파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이라크는 C³I능력이 압도당하자, 전쟁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정밀유도 무기와 유도탄도 중요한 민간·군사 지휘본부, 군사상기, 그리고 전쟁수행을 위한 모든 하부구조를 황폐화 시킴으로써 「강압」효과를 교양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하 시설과 항공기 격납고도 30대수준적인 정화성으로 붕괴·파괴당하였다.

그리하여 이라크의 레이더와 통신시설을 마비시킴으로써 여제효과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여간 걸프전쟁에 있어서 항공전의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다도 효과적이었던 것은 이라크의 군동수세제를 조기에 마비시킴으로써 막대한 공군력이 무력화된 계급에 회복하지 못했다. 항공기들은 지하 격납고에 엄폐하거나 이란으로 도주하는 등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공군의 「강압」을 사할 이 겨내지 못했던 것이다.

아리하여 전 전장에 걸쳐 전략·전술적 표적이 정밀타격해 됨으로써 협도와 교양, 유도탄 기식와 화력무기 지장시설은 물론 지상군의 전차와 야포가 절반이상이나 파괴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유념할 것은 사상초유의 일반적인 대규모 항공 폭격에도 불구하고 해개발 시설이 잔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정보수집 및 판단능력의 한계성을 들어 낸 것이다.

발생전사태의 전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 관계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의 재래형군사력을 배경으로 핵무장 의지와 능력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때, 한국의 항공전력도 억제나 방위 또는 시위기능보다는 실질적인 「강압」기능 충실으로 증강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자원 건축추세에 여불라지 일그러면, 세미단배와 위협의 강도 및 성격에 의한 조파적 전략구조로 조성이 이루어지야 한다. **국문**

A Replacement for the F-16

By Frank Oliver, Associate Editor

The Air Force has disclosed that it wants to develop and produce a brand-new, stealthy, Multirole Fighter (MRF) and start replacing the F-16 fleet with it around 2015. Plans call for the service to buy about 2,000 of the new lightweight aircraft.

The MRF would be USAF's third new-development, low-observable, combat aircraft program for future years. High-volume production would come after the peak of F-22 fighter procurement but would coincide with production of a new advanced interdicator based on the Navy's A-X carrier-based attack plane.

In addition, the service might pursue a relatively inexpensive "force sustainer" fighter or fighters later in this decade.

Gen. Merrill A. McPeak, the Air Force Chief of Staff,

made public the basics of the program at a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April 29. In the past, the Air Force tended to take the view that the MRF would be a derivative of an existing combat plane. However, General McPeak stated flatly, "When I use the term MRF, I mean an entirely new small fighter design."

General McPeak said that the Air Force has put aside \$15 billion to develop a new MRF. "[This] is a brand-new airplane," he emphasized. "It is not a derivative of an existing airplane. It costs about \$15 billion to develop."

He argued that it made little sense for the Air Force to buy a nonstealthy aircraft as its new MRF. He said that, if he had his way, USAF would never again develop a nonstealthy fighter.

General McPeak added that the service also needs a new MRF in large numbers.

"Therefore," he explained, "affordability is a very big consideration with this airplane."

"If it's not affordable, if we can't replace the F-16 with it, then we're going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s and design another one until we get it affordable," he said.

Senior Air Force officials say there is widespread acceptance within the service for the Chief of Staff's view on the MRF issue.

Having a stealthy MRF may impinge on the Air Force's outyear budget plans, but there are possible solutions to that problem. One Air Force official said the MRF may not need full-aspect stealth. "An MRF may have stealth focused toward the front end or wherever you think the main threat is, without going to the lengths you go in full stealth aircraft."

General McPeak noted that the new MRF approach leaves a problem to solve: "F-16 availability begins to go south on us in the early



2000s," he said, meaning the plane begins to "age out" of the force during those years. The Air Force must cover the shortfall until new MRFs begin to arrive.

On the assumption that the F-16 has an 8,000-hour service life, Block 50/52 F-16s begin to leave service in 2005, creating a shortfall within the 26.5-fighter-wing force. "There is a lag between being able to sustain the size of the inventory of some time and some dimensions," General McPeak said. "We don't know how big that lag is. We think it's about 500 aircraft."

General McPeak added a new wrinkle to the service's

acquisition plans: the concept of a force sustainment fighter.

This unspecified airplane or set of airplanes would supplement the F-16 fleet during the period of shortage.

General McPeak said the Air Force prefers to go with a "conservative" approach. "We laid some additional money in our plan," he said. "This is a force sustainment funding amount. It buys 500 F-16s for \$25 million apiece."

He said that \$25 million exceeds the per-aircraft cost of today's F-16s, but the Air Force might have to buy new F-16s in small, high-cost lots,

or advanced models.

For \$25 million per copy, the force sustainment fighter might have to be the same F-16 the Air Force is buying today at very low production rates.

The F-16's 1993 fly-away cost is about \$22 million, according to the Air Force.

There are two other possible solutions to the fighter shortfall, said General McPeak. One would be to bring out of storage "perfectly good" F-15s and A-10s, "with a lot of airframe life on them," and use them to cover for lost F-16 air-to-air and air-to-ground capabilities.

The other solution might come about automatically if the fighter force structure were further reduced in size. "If you drop this force level down some, ... the force sustainment problem goes away," said the Chief of Staff, "and then the MRF comes along in time to solve the problem."

(Air Force Magazine, July 1992) **63**

대공제압기 WILD WEASEL

지난해 베트남에서 다국적군이 승리한 후미에 발은 고문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베트남군은 여러 군부대 항공력에 의해 주도되고 존 존이까지 항공력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현대전에서 항공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 주었다. 즉, 전쟁에서 공군주체를 확보하지 못한 군대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재입 인식시켜 주고 있다.

공군주체가 발은 한곳에서 대공 제압이 이뤄진 상태를 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WILD WEASEL과 같은 대공제압기의 능력이 요구된다.

본 내용은 미공군 "Fighter Weapons Review" 제15 50년 역을 통해 소개된 "Combat Design Suppressant The F-4G/F-16C Wild Weasel at War"의 제목으로 F-4G와 F-16C 중성화(비트) 대공제압 임무를 수행한 미 공군 조종사 Dan Hampton 대위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이제 대공제압기로서의 우수성과 중성화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 줄 수 있었던 과정을 인식하고 활약상에 대비한 우리의 무기에 필요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군본부
소령 이창희



대공제압 임무를 담당한
F-4G/F-16C WILD WEASEL

1981년 1월 WILD WEASEL은 다시 임장에 참가했는데 이는 비트란이 발발하기 1년전에 미 공군은 WILD WEASEL 없이 전쟁을 치를수 없다고 결정 되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깊은 일이다.

현재는 세계 유일의 F-4G/F-16C 중성화대로 임무수행한 조종사만을 믿어 신뢰한다. 우리는 공대지 미사일 공격을 하는 유일한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유럽 전쟁 사나리츠에 갇혀 지프도 비행훈련을 하였다. 기쁜 편은 전쟁 후군 배치인 (PLOT)과 비행관할지역 (FEBA)를 따라 날아다니고 고압적인 제한제한 기체 (RGZ)에

서 F-4G와 F-16C로 중성화(비트) 또는 해방도 무장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A2M-47을 사용하는 F-4G는 이동SAM을 포함하고 대 레이다 미사일인 ARM-88(CHARM)로서 피격시키는 임무를 담당 하는데 F-4G는 다음 두 가지의 이유로 그러함 일부에 제한한다 첫째 A2M-47은 급속하게 변하는 전장에서 미사일이 발사 될때까지 계속적인 실시간 표적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F-4G는 매우 뛰어난 추방성 중추력을 가지는데 반은 연자나임에 반은 비법사임 그들을 전가한 것이라 하고 무브먼트 그들은 CLUTTER로 가득한 레이다 스크린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계속로 하여금 거짓정보를 포착하도록 유도한다.

F-16은 레이다의 중추성과 기동성을 통해 근접 공대공 협조와 보조 HARM 미사일 임무를 담당한다. 우리는 위치를 자주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F-4G를 사용했으며 F-16C는 HARM으로 무장하여 전방 SAM과 같은 특별한 사미크에 대해 RANGE KNOWN-미사일을 파한다.

호른 표적 정보는 임무수행사에

리해 HARM SYSTEM에 자료가 입력 되어있고 F-16에서 발사된 HARM은 실시간 정보로 얻지 못하므로 PKI(필살술)는 조종사가 비행한 입력한 자료의 정확성에 좌우된다.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20FT의 고도에서 HIKTAS 고속상황이나 전투의 상황에서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다른 방법은 RANGE UNKNOWN으로 불리는데 F-4G는 일반적으로 방사 레이다를 찾아내어 F-16으로 하여금 미사일을 쏘아보게 하는데 이는 훨씬 유효성 있는 무장 발사를 되도록 하지만 반면에 커 SAM을 파괴할 수 있는 유효거리는 훨씬 짧아진다. 나는 이러한 두가지 F-16 무장발사 방법이 모두 F-4G의 커 레이다의 위치와 거리 일치능력에서 크게 좌우됨을 강조하고 싶다.

RANGE KNOWN 발사를 위해 F-16은 사이트 위치의 최종자료를 제공하고 RANGE UNKNOWN 발사를 위해 F-4G의 정보는 사이트를 찾는 데 필수적이다. F-4G가 적절한 발발음도 무기 대차였다는 우리는 20단문에 주는 수많은 미사일을 찾아야 소모하게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중순이되는 장에 예상치 못했던 다른 형태의 작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중순일 이아발로 항공력의 핵심이듯이 우리는 중순일을 발휘하게 되었다. 우리는 대부분의 집중된 SAM을

무력과 사하여 했으며 또한 이라크로 230여기이나 되는 편지들을 써줘야 했다. 그래서 필드 훈련했던 자고도 비행할 적이 없고 미 400기의 대공포를 파괴하기 위해 중고도 비행할 하게 되었는데 평소 익숙한 소련 장비와 더불어 이라크는 다양한 저구 무기체계를 사용했다.

우리는 이러한 저구 무기 체계의 전쟁을 처리시키기는 생각지도 못했으며, 특히 끝까지 무기체계는 전쟁초기에는 거의 알지까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 공적 관대군은 어떻게 잘라지 자신을 수습하면서 저고도 방공망을 회피했고 모든 SAM 위치 레이다의 미사일 무기 체계를 노출했다. 그 결과 WILCO WEASEL은 각 관대군의 손이 침범하면서 주요 관측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는 귀환하여 이러한 새로운 기만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정보에 의하면 이라크는 이동형 단거리 SAM과 국경을 따라 관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날아치는 MIG-23과 MIRAGE F-1의 복속이러 이동과 함께 몇몇한 이것은 한결같은 느낌을 주었다.

일제로 일어난 일어난 일은 이후 관대를 위해 많은 전력을 비축하기 위한 이라크는 상당한 노력하였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라크는 연합군에 대한 압도적이지만 확실한 위협이었다 오히려 오랜동안 대지해오

던 이라크 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어떤 경우에는 사육가능 한 많은 자이트의 활기와 존속 기만을 주는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모든것은 참사동태(TEMCON)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실시간 원도 SAM 발사와 함께 대공포(AAA)는 전쟁 발발 2주가 지나서 두라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었다. 그들은 고학 23mm포로부터 대항 100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조를 사용하는 강도와 집중은 표적의 중요성과 이라크의 그날 분위기 에 따라 변했다. 이러한 것은 HARM을 발사하지 않은데 귀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임무작업에 대해 제각각을 지도해 왔다.

그러한 국무적인 피아선은 우리로 하여금 연명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적응하도록 했다.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SEAD) 대공세일 임무는 위험에 따라 변형하는 것을 주둔가 제안했기 때문에 일부서 세배하게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것에 대한 답변은 DESTRUCTION OF ENEMY AIR DEFENSES(DEAD)의 발공발의 결과였으며, 그것은 매우 직접적인 것이었다.

황산탄(CBU), MAVERICK 미사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커이 사마에이 어려운데

종여라 있으며, 해당가능한 상대라면 HARM은 상응한 우수하지만 방사능인 레이더에 유도되기 때문에 실제 미사일에겐 거의 치명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미사일은 탄도형대 또는 회를 적용한 발전형 형태로 여전히 방사될 수 있으며, 레이더는 요격단, 미탄, 소련과 같은 국외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로부터 보수되거나 교체될 수 있다.

사이드로인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열제탄을 사용하며 박살을 내는 것이며, 그들이 SAM을 방사하지 않는다면 해 그 러는것이다.

이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공격자에게 특별한 사이드 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기만하는 것이기다.

둘째는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하며, 좌우의 전장에서 그러한 미사일의 사용을 하기 위한 위험성으로 인해이다.

우리는 이틀동안에 12대의 대공 제압기(관제공조로, 대공 관제기를 구성하여 작전을 수행했는데)이든 야간 관제공조(야간로서 효과를 추가한 것이었다. SEAD(정밀공제) 때문에 DEAD(정밀공제)로 바뀌었다. SAM의 공격에 대해 HARM/SHRICK 방사 전용기로서 훈련기를 유지했다. 또한에 포함시키는 MAVERICK/HARM을 탑재하여 고위험을 요격제를 최후적으로 제거하기 위



해 발발유도 무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들은 IWM을 장착했기 때문에 필요시 표적을 지체적으로 공격하여 파괴할 수 있었다. 미사일의 관제는 모든 F-16의 40% 구할 것으로 MX-8254, CRU-28, CRU-87등을 장착했다. HARM/SHRICK로 구성된 관제는 항상 공격기가 고위험의 표적지대에 있을 때 공격기에게 유도했다. 대부분 이 경우 미사일은 공격을 받으면서 안전성이 높을 줄이고 있었기에 공격기들은 SAM관제에 대한 발발로 작가 발발로 했으며, 각종 SAM의 발사할 때는 고적으로 40%만을 실시함으로써 작가가 가능이었다. MAVERICK/HARM 관제는 또한 최후적인데로 유도하였으나, MAVERICK이 사임을 발사하고 공격이남중에 표적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공격 목표는 작가 많이 나열미기가 관제지대

전쟁의 초반에는 작가 12대의 MAVERICK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들은 작가 목표의 모든 관제소를 파괴하여 공격을 완전히 할 수 있었으며, EW(전자전)이다. EX(사실) 및 사드(사드)인 항공기들을 공격했다. 모든 F-16 공격관제는 관제 다공로 사이드를 제로도로 임무가 주어졌으나, 관제군단 한 관제로는 대량의 대공포전지점 공격지기는 불가능한을 해내고, 다른 관제인 SAM(사드)를 표적으로 삼게되었다. 그리하여 CRU-87(정밀)로 작가하고, 관제공제를 실시하여, 사살성 조도화를 시작했다. 이러한 작가와 SAM(사드)에 대한 일련의 공격에서 우리는 요격지대에에서 작가하고, 조도화 SAM(사드)를 받았으며, 공격주 작전 사드에서 관제지대 공격을 위한일 수 있었다. 사드가 작가하여 작가 있는 지점조도화, 작가 관제지점을 해하는 작가한 조도화, 작

별다른 허를 찌른 'SHUTTLE SCHOOL OF SOMETHING'(쪽의 반수업) 역시 부른 정도가 되었다.

제1 F-15를 잃었기만 하면 적에게 할
코타는 없다.

이중 3분의 1 이상이 손실반대급
에 의한 비열식산이었으며, $F-4(G:F)-10C$ 혼성형태는 동종식
과 잡종식이 있는 경우군으로 확고
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레이더와 도파망의 부피, 선전
능력, AIM-7 및 AIM-9의 MAYHEM
ICR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F-4는
여전히 비록 미미한 항공기로 줄여지
었으며 또한 최신 전투기들과
비대 비교하여 실시간 위협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F-HE는 만능의 일반 국
채자금을 집중했는데, WW에서 F-
HE는 각 방면에 투자하였으며,
온타리오: HARM 발상지의 공대
공 연호자로 시작하여, 이 1종은 F-
HE에 대한 HIGH VALUE
SUBBORNE ASSET(HVAA)
모조 의부의 많았으며, 비록들은
GULF에서 이미 인물은 2년.

우리는 SEAD/DEAD 작전이
가 20여 개에 이르는 SAM SITE, 20여
개의 AAA 전차대와 맞붙어 EW,
GCI 레이다, 활주도, POL 시설
스, 정유소들을 공격했다. 또한
우리는 MAVERICK을 사
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비행
중에는 F-4에서 LASER
조준기인 PAVE TACK으로 무
장하고 완타원즈로 부터 도착하여
F-4에서들은 모든 LASER 유도
폭탄을 갖춰놓은 마한 비행중이
었다. 이 군중이 제101는 시합이

서 전역에 전개할 수 있고 자제를
지할 수 있는 복합 판매권을 전유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알
려준다. 이러한 것은 WILD
WEASEL 구멍이 유포를 입은
88년 이래, 김프렌을 차 회합터이다
고 SAM등을 직접 판매하여 과
다하는 성급 판매 루트까지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F-4G는 자주 이뤄진 대
해 항공기인 개발된 대미지
WILD WEASEL로서 미 역량을
제출한 것이며, 공식 비행(100)
항공기의 능력을 개량하기 보다는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군
임을 보여준다.

실용적인 HUNTER/KILL.
ER 관측의 핵안에 항공기의 진석
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무기의 개
발은 어느 정도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부
기나 반군적에 많은 희생자준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의 형식 훈련은 정신을 반향하
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나는 최근의 한양대
식 논쟁의 소리가 있었던 혼란된
대 WILD WEASEL의 상동적
인 직감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4는 WILLI WEASEL, 알이
는 리트 판공에 자기 출판물-알이
다* 

飛馬의 향수

공군 제 207중대
소위 김 한 수

자카은 북서계절풍이 주위를 세
늘리 감쌀때쯤에 나는 세계평화와
조국의 국기를 위한 무를을 만났
다. 사나이로서 대한민국의 사관하
교를 자관자로서는 무한한 영광이
있고 나라가 개인적 영광이었다.

그러나 과병에 대한 국민의 격
정어린 목소리는 호시나 강기전이
되고 화대되어 추기과병을 원하
는 목소리들이 여러곳에서 들려오
고 있었던. 타웠으며, 우리군은 국
익을 위한 과병의 사명을 들을 수
가 없었던 일이었다.

사전에 우리는 한지 치음훈련을
통하여 생존의 극대치를 제제인에
게 할수있으며, 조대어 되고 10
일 제1원부터 서공기지를 더욱 합
프차여으로 할뿐었다.

나는 2번기 기방으로서 주둔기
지인 UAE ALAIN 기지까지 비
행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자오가 하나하나 새겨지고 있을

느낄 수 있었다. 나 한사람의 위단
일수는 많은 인생과 재안에 관계되
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나보다.

사막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예
바르게 하였으나 현지인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우리들의 마음을 포근
하게 만들어 주었다. 임무가 시작
되기전 전쟁 수배일자를 익히는 중
안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대할 수가 있었다.

한국에서 한·미 합동작전을 수
행하지만 어떤 다른면을 접할때
는 전쟁은 이렇게 수행하는가 보
다라고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조종
사들에게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조금 세다스지나 전쟁 기본 개념이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
중하고 값진 경험인가를 알아야 된
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 10여일간 컬프지역에 머
물면서 현재 우리들이 살면서 훈련

을 할이가고 있는것과 실제 전쟁에
서 사용했던 장치들에 대하여 보고
느낀점들을 비행용 증상으로 별가
지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비행통제 부분은 현재의
우리제제하 중일하나 초기적소에
신속한 공중요급을 이행함으로써
완전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망 유지가 철저하다는 것이
다. 컬프전에는 ALCC 산하에 라
기자마다 ALCE가 전개되어 있
고 ALCC 및 ALCE는 고유의
HF, UHF, VHF 통신망을 갖추
고 있어 잠시 임무조종사와 교신이
어려우므로 있으며, 임무선한 및
목적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둘째는 비행 운영면에서 보면
우리의 것과 흡사하나 청무경로를
본다면 세고도이면서도 한개의 경
로이치만 같은 정보안에 수대의 형
중기가 충돌없이 잘 흐르듯 잘 이
루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같
은 경로에 진입하면사부터일무를
수행하고 이탈할때까지 AWACS
의 교신이 이루어지면서도 항공기
간의 병목현상을 통하여 전방기 및
후방기의 위치파악과 자기 항공기
와의 겹치는 시간을 예상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과 또한, 전방 목적지에 접근
할 때부터 이탈할 때까지 키오부

타의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속도로 접근 하. ILM 전부터 PWR를 감소하여 작업을 하고 이후에도 최대한에 이할 속도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속도개념은 TS때에도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며, 또한 조종사로 하여금 작동한 점진적 이륙 후 점진적 상당한 속도를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새벽 세 시 쯤에 권리만에서 보면 한국군은 구조물사만 보더라도 항공기 3대에 7명정도였다. 일일 평균 임무당수가 3개정도였으나 이들에 한해서 임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투기와 달리 한 번 비행시 15-16시간(비행준비 중 +15분) 소요되고 임무시간이 전 세계적인 관계로 수시간 임무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는 일무한 계속하고 그 다음날은 식음을 전폐하고 잠만 자는게 현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조종사들의 공통된 고충이 많은 계대로 이를 수 없는 것과 최사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군의 경우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것은 3월에 한번정도 임무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아 조종사 구설비용이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우리공군의 조종사 훈련율이 낮음을 인식하는 현상에서

는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를 쓴다.

마지막으로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참전 조종사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서로가 피해자 된다는 즉, 각은각을 잃지 않으려는자는 더 큰것을 잃게 되고 세운것을 흔들어지 않고 지켜지지 못하는 자는 더 큰 책임을 질 리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인도양을 건너오면서 어둡다운 바다선과 한 번도가 눈앞에 들어올 때 나는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국토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국토를 더운 소공의 지킴과 간직하기 위하여 모든 이마다 민족과 보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열

리도 받고 가려운 내수위에서부터 떠나 떠나 찾아 나이가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전쟁날 현실을 달관할때는 실음의 걸음을 뿌렸던 내조국의 발원된 모습에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깊은 상념에 빠져 눈가에 미소를 지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경제력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민족의 생존하고 번영을 꾀할 수 있는 길이며, 평화의 길이 될 것이다. **동근**



공군지창간

40주년 특집

“

- 공군지 발전사
- 참공구락부 시절
- 공군지 초창기
의 숨겨진 이야기들
 - 정찰기 무인비행
 - 엔진고장을 청천가르
 - 빨간 머플러 유래

”

40년전 이때

공군지의 숨결은 시작되었습니다.

■ 공군지 발전사 ■

- 1952 - 공군신문 발간(지령 19호)
- 1952. 11 - 공군신문을 《포메트》로 개칭
- 1953. 2 - 월간 《공군 다이제스트》 발간
월간 지령 3호 발행
- 1953. 5 - 월간 《장교 다이제스트》 발간
외주인재(지령 9호) 및 유상만재
- 1957. 1 - 《미사일》 창간
《포메트》와 《미사일》이 공군
- 1957. 1 - 《포메트》 휴간
- 1963. 4 - 《포메트》와 《미사일》 통합 월간
지령으로 공군지 출간
- 1992. 10 - 공군지 221호 발간에임

“
**잃어버린
 얼굴을 찾습니다.**
 ”



1952년 전함의 와중에서
 「공군순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공군지의 역사가
 이제 40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군지는
 창간호~19호까지의
 「공군순보」원본을 전혀 보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군순보」를 보관하고 계신분은
 지금 꼭 정훈감실 문화과로
 연락을 주십시오.
 공군역사의 재조명과 공군지 발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별
 기념
 주년



창간
 40
 공군지

창공구락부 시절



창공구락부는 창공전향단식 운동에서 처음으로 두레 된 중군문인단체였다. 아예 육군에서도 창공작사단을 두게 되었지만 어쨌든 중군문인단체의 존재는 군공의 특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열과 화중에서도 이 러한 작상을 하고 실천하게 된 것은 당시 사회문화적 여건의 영향을 입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 당사를 회고하는 문인들의 링크를 전체적으로써 덧붙여 줄이려 보든 것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사뭇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관정선>

공군 중군문인단

최민욱

1 이 단체가 결성되기까지

공군에 전속으로 <중군문인단>이 결성된 것은 1972년 1·4 이후의 직후 대구에서였다.

국외에서는 제국이 병행 되어 유리함을 흔들고 전방이 열이불만 날 난포도 없는 3중 1설에서 늦익은 얼굴 같이 서로 자리를 같이 하였다.

모두 서울에서 파란을 나온 문인들이었다. 이들은 최승환의 행동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행렬이 끊어져 나갔다가 한 식당에서 서로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이었다. <중군문인단>의 산파역은 당시 공군 군중장이었던 포타에르가이며 문인기립인 김기원이었다.

파란을 온 문인들은 모두가 무작이었다. 그와 수 밀

에 없는 일이었다. 파란지에 작정이 있을 리 없었다. 이렇게 문인들이 다함께 나와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일선 장병들은 공산혁명군을 부패시키기 위해 사랑하는 부모 처자들의 몸을 마나 천부름 하고 있었다.

귀중한 생명을 바쳐 북외군과 중공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다. 문인들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었다. 비록 충성을 들지 못했으나미 조국영리를 위해 불은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다. 모두가 연루의 연군이었지만 그래도 의욕만은 강하였다. 이 욕구를 어떤 명분 아래 충족시켜야 할 것인가 <중군중군문인단>이었다.

2 단원 명단

처음 발족할 당시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이해웅(단장)
조서훈(부단장)
최인욱(사무국장)

최경희, 최하진, 박두진, 박복철, 김윤성, 유국현, 이한재, 이상노, 방기환

창공 구락부 시절

결실 1년 후인 다음 해에 추기단원이 되었다.

황순원, 김동리, 전숙희, 박준산 이 중 황순원, 김동리는 부산에 거주하며 상시로 행동을 같이할 수는 없었으며 전숙희는 대구, 부산을来往하면서 행을 보았으나 결실처럼 유대단은 잘 못쳐 있었다.

3 명칭은 통용「창공」

이 단체는 그 명칭이, 간판대로 하면 「공군충군단」인 단이며 육군이 작가단인데 비해 공인단으로 하여 명칭의 혼동을 피하고 구별을 명확히 하였는데 명칭을 「창공구락부」라고 하였다.

공군은 하늘이 싸움터다. 그 하늘을 상징한 <창공구락부>였다.

4 활동 개황

이 단체의 사무국은 대구 덕산동 난보도 없는 2층 1실, 첫날 모았던 바로 그 방이었다. 사무실로 정한 후에도 거주내 난보는 없었다. 난보를 비치할만한 경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불기운도 없는 이 방에 모여서 전쟁시를 쓰고 전신을 소재로 한 전쟁소설을 썼으며 충군기를 초저었다.

경비가 없으니 금식도 못하였다. 결실 때가 되면 단원끼리 주머니를 털어 구제간 삼원짜리를 모아서 막걸리 한잔으로 침실을 대신하였고 술을 못하는 사람은 삼원짜리 기막국수가 고짜이었다. 원고를 쓰다가 자진 단원들은 편을 멈추고 행방이 드는 쪽을 찾아 옮기 있어서 손발을 잡고 행방을 헤매었다. 또는 연도를 가지고 서로 수업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돈밖에 없는 유랑극단 같은 형으로 어렵고도 눈물겨운 환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중에서도 위트가 돌아지고 유포어가 뜻을 되었다.

ㄱ. 1951년의 개황

추위에 웅크렸던 겨울 활동을 마쳐자 단원들은 분산월부터 충군활동이 빈번하여졌다. 4월에 조지훈, 최인호 등이 충군위원으로 서울 여의도 거지로 출발하였다. 여기서 3개월 동안을 복귀하며 전투조종사와 일상생활

을 같이 하면서 각종 폭격기들의 출격상황을 취재하고 조종사 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사자들의 전공기를 조끼고 충군기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공군에 충군하는 자로서 큰 결단인 것은 일선전투의 전투를 실제로 목격할 수가 없는 점이었다. 이것은 육군에 충군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쟁을 실제로 관찰하면 폭격기를 타고서 나가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여 군 당국에서 허락하지를 않았으며 또 사실은 과석의 이유도 미천부조원에게는 돌아올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산전에 분부하는 조종사들의 활동을 충군기로 남겨 후방에 알리고 또 그것을 소재로 한 작품을 쓰는 일이었다. 이런 일에 대해 당시의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김장영씨는 우리 단원들에게 안락길은 말을 들려 준 것이 있었다.

“군으로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군을 찬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생 제리베리처럼 비행을 소재로 한 작품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배우 김병길은 잘이었다. 충군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5월에 대구 국립극장을 빌어 충군보고장연회를 열었고 그 충군기를 「공군순보」와 함께의 신문, 잡지에 발표하며 좋은 성과를 얻었다.

다음은 충군활동집 후원을 얻어 대구 국립극장에서 펼쳐 가세의 「날개 혼양의」를 일주일 동안 공연하였다. 이 연극은 「날개」가 상징하듯 공군을 소개 선전함과 동시에 사기양상을 위한 행사였다. 이때의 배막에는 최은희, 박정순 등이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다.

ㄴ. 1952년의 개황

리난지에서서 두번째로 겨울을 맞는 1952년초에 우리 문인단은 <육군충군작가단>과 합동으로 군의 후원을 얻어서 전비를 양양하는 내용의 문인극을 공연하였다. 김영수씨 연출의 「고향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배역에는 김광영(육군작가단), 정미리(·), 양명준(·), 김동원(·), 정덕진(·), 양명준(·), 이기원(·), 최정희(공군문인단), 송수원(·), 최하산(·), 최상노(·), 최인호(·), 박준산(·) 등이었다.

대구에서 연 이틀 동안을 공연하였는데 배설 이상의

안기와 화해를 불러 일으켰으며 약간의 전쟁시 날뛸 듯한 좋은 성과를 서두어 멀리 부산에까지 화제가 나돌았다.

그후 부산에 주재한 공군에서 3·1절 기념행사로 이 문인국을 부산에서 공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시 부산으로 편성, 그곳에서도 매우 호평을 받았다. 그 얼마 후에 정훈장이 바뀌어 유홍렬씨가 취임하였다. 이에 단원들은 공군사령을 위트하는 작살남목화를 두차례 만들어서 시와 소설을 낭독하고 충군소감을 발표하였으며, 3,4인씩 대오를 편성하여 전투까지 공군이 계속 실행되었다. 이 무렵에 박두진, 유주현, 이상노 등이 또 전투 기지로 공군을 나갔다. 단원들 중 처음으로 경찰기를 타고 장전을 찾아보았는데 비행도를 조종사가 비행기 술을 보이기 위해 기체를 몇 바퀴 돌리는 중에 아주 큰 이 나고 착륙 후에도 한참 동안 정산을 일었다는 것은 우리 단원들의 한 줄기운 솟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공군을 떠날 때마다 본부에 있는 한여강변 빌딩 본들이 우리를 위해 잔우고를 보고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그 모두가 문학을 애호하는 본들로 이해할 수 있다. 수정호, 김명철, 이영필 등 세 명이었다.

1. 1952년의 개황

이 무렵에 서일수씨가 정훈장이 되고 김경수씨가 정훈차장이 되었다. 이 두분은 다 문학에 이해가 깊은 문인들이어서 우리 단원들을 위해 무엇이든 일을 할 수 있는 첫발을 디뎠다. 우리도 무척 심려를 하였다.

이때에 문인단의 기관지 「장공」을 2호까지 발간하였고 사명본고로 몇 가지 단행본을 발간하게 되었다. 단원들은 그동안 공군에서 소감을 얻은 것으로 시를 짓고 소설을 쓰고 공군기를 작성하여 기관지에 발표하였으며 사명본고 또한 그 내용은 작품을 주로 한 것이었다.

이때 정훈감실에서는 공군기관지 「코메트」를 월간으로 발행하였는데 단원들 어상노, 양기환은 이 월간지에 편집을 전담하여 오랫동안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이따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내용과 재능을 갖춘 잡지가 되었다.

조지훈, 박두진, 박두원 등은 공군의 노래 가사를 여러 편 지어서 사병과 일반 민간에 보급하는데 공로가 컸으며 시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이 세련된 가사는 공군의 사기양상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영양소가 되어 주었다. 단장 마태송은 단원 봉송에 항상 두세명의 지도자를 발휘하였으며, 인화, 단원, 협조가 지의 유감없이 지속되는 단계를 이루었다.

마태송은 선물이 아동문화인만큼 전단중에도 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컸으며 당시 공군참모총장 정익창씨의 협조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로서 전단 수발제를 제정하여 비행기로 다학에다 뿌렸다. 책을 거둬서 어린이날이 돌아올 때마다 이 행사는 계속되었다.

마태송은 이 전단을 스스로 원고를 작성하고 사이즈를 정하면서 정장을 붙였는데 이런 일을 한 <공군본부> 및 <공군 중군문인단>이 주재해 있던 대구에 전국에서 제1번 [어린이 헌장비]가 서게 되었다는 것도 마태송의 각고한 노력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5 해산과 그 이후

이 문인단은 1960년 7월, 환도와 더불어 해산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서울에 돌아와서도 꽤 오랫동안 제주 수요원이면 평등 문화회관 다방에 모여 지난날을 얘기하면서 끈끈한 우의를 지속하였다.

이 단체는 우리 문단사의 한 보세라에 이 지위버릴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것이 되었다.

중군작가단의 효시 「청공구락부」

전 재 수

공군은 전쟁 중에도 안락있는 지휘관들이 바군에 심히하지 않았던 중군작가단구실에 착안하여 1951년 3월 15일에 장공구락부를 결성하게 되었다.

창공감으로 있다가 일반참모 비서실장으로 잠시 제직하고 있던 김기원 소령은 국면의 항공사상 고위와 공군 질병의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 정훈공작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김정필 장군에게 권의, 허락을 얻어 발족이 되었다.

이때 공군본부에는 대구에 있었고, 과중한 문인들은 거의가 무직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창공구락부는 사무실을 대구 시내 덕산동의 허름한 한 2층 건물의 방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창공구락 부원들은 이곳에 모여 공군기를 쓰고 관행시를 쓰고는 하였다.

결성당시의 찬명은 다음과 같다.

기 피 반 : 마해송, 조지훈
총군보도반 : 구 삼 이한자 외 2명
전사면천만 : 김기원, 최재서
기 독 반 : 최단욱, 최정희
서 부 장 : 창준선

그런데 단장은 고인이 되신 마해송씨였고 부단장은 조지훈 시인, 사무국장은 최단욱씨가 맡아 보게 되었는데 이밖에도 김윤길, 유주현, 이상노, 박기환, 황순원, 김동리, 전옥희, 박호산 씨들이 참여하였다.

이들 중 구상씨는 얼마 후 심관봉, 최득전, 박영춘, 장덕조 씨들을 규합하여 육군 중군작가단을 만들어 창공 구락부를 떠나 버렸다.

그러나 창공구락부에서는 전투기들의 출격상황을 취재하고, 조종사 취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사자의 전장을 기초하고 공군기를 작성하였다. 1951년 5월에는 대구 국립극장에서 총군보고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최단욱씨가 작정한 문인극 「남개 순환선」을 상연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기관지 「창공」을 발행하였고, 오세프(공군지의 전신) 편집을 도우며, 군가 가사를 쓰기도 하였으며, 공군기를 신문, 잡지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가 되면 부원끼리 주머니를 털어 딱정러 한 권으로 창성을 대신하기도 하였고, 거액주수에 배를 두드려기도 하였다. 말이 드는 창가에 앉아 손님을 접거나 양말을 꿰매기도 하였고, 연도를 가지고 서로의 수평을

엮어 주는 등 돈 벌어진 유랑극장 같은 참으로 서럽고도 눈물겨운 광경이 연출되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총참모장 김정필 장군을 이렇게 창공구락부원들에게 위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군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군을 선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영 탁클레라처럼 비행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창공구락부는 1951년 7월 한도와 더불어 해산하였지만 한국 문단의 문단사에는 지워질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피난 대구문단

최 정 희

창공구락부와 육군중군작가단이 갈라진 것은 피난가서 얼마 뒤의 일이다. 창공구락부에서인 구상씨가 심관봉, 박영춘, 장덕조 씨들과 육군중군작가단을 따로 만들었다. 창공구락부는 <공군중군작가단>으로 공군본부 정훈감실에 소속되어 있었고 <육군중군작가단>은 육군본부 정훈감실에 소속되어 있었다.

처음엔 우리와 갈라진 구상씨가 아쉬웠고, 입선대치 내가 뭐라고 했더니 구상씨는 글 쓰는 사람한테 선을 만들어 보자요 한 노릇이라요 말했다. “산이 되기보다는 사람은 사람 그대로 존재하는데 더 값이 있지 않을까?” 구상씨 말에 나는 또 이렇게 항의했다. 갈라졌다고 해서 결코 두렵다가 된 것은 아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진과 바란가지였다. 여전히 함께 물려 박정희 집으로 다니고 취하면 노래도 불렀다. 나는 그들이 댄서 하는 용담이 늘 못마땅했다. 그들이 모여있음을 가지 않은 일도 있었다. 그러자 서울만큼가 소지훈, 최인욱, 알씨가, 전관대사의 임무를 띄고 왔노라면서 찾아왔다.

강제는 다시 노역물을 살인한 그런 종류의 연사는 일 방에도 내지 않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그들은 수감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 불행가에 차차 혼란되어 가는 평원에 이르렀다. 어떤 전쟁에서 얻은 것은 화약사가 사람이 '죽간 것' 구입은 음담패설에도 브락하지 않게 되어가는 나를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창공구마주어진 유니폼이나 구두 끈이 아니고 밭, 땅속도 배급을 받았다. 한 가마니의 나오면 내 절구에 남아 돌아가서 어미를 피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비행기를 타는 특권도 창공구마부원들에게는 충분 있었다.

비행기 공포증에 걸린 나민 루타군. 아마 다들 받을 것이다. 나는 비행기를 타기 싫어하면 확명행어가 첫 비행에서 추락되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있었다. 유주현씨는 배수를 넘는 비행기를 탔다가 죽을 고비를 치른 일도 있었다. '저를 살려주' 하늘을 본다고 보면 땅이고 땅을 본다고 보면 하늘이었다고 한다. 그는 필사의 절규를 외치고 많은 수 없었다고 했다. 창작 속에 있는 진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출구란 출구를 온통 다 통해서 나오는 것이었다 한다.

육군중군직하대인 중령 중군을 했다. 박영준, 구상 씨 높은 나중엔 표창을 받은 일이 있을만큼 부지런했으니까. 양민준이시도 중군에 군도를 쓰곤 다녔다. 자그마한 키의 군복 입자가 대구 거라에 이복가 아닐 수 없었다. 나도 입은 일이 있다. 공군복이 아니고 육군복이 있다. 서울에 왔다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군복을 입지 않고는 기차를 탈 수도 없었으며 도당은 더욱이 어려웠던 때다. 그 군복은 미국 용의병 대장이 피카에게 지은 것으로 입혀주었다. 서울엔 유주현씨와 함께했다. 유주현씨도 육군복을 입었던 것 같다. 육군복이 무난했는지 모르겠다.

군복 차에 도장은 무사히 화제 되었다. 피난사 때구나 부하에서도 그 어미는 고비를 겪으며 형동모까지 왔다가 한강을 넘지 못해서 형동모에 버려지는 사람들을 돌보아준 군복이 있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공군본부 청춘관은 갑자기 붕괴되었다. 그때 뒤를

서임수중령이 많았다. 육군에선 박영준 대령이었다. 가끔 우리는 결혼할까의 주된한 대답을 받았다. 육군 공군 구별한 것 없이 한테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셨다. 어느 때엔 「은화네」라는 아미 고급에 속하는 요정에 갔다가 불변을 당한 일이 있다. 우리가 한창 즐거울 때 일선에서 왔다는 한 생사가 후방이 이 불인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냐고 고함을 지르며 권총을 빼어 들었다. 그는 끝내 권총을 쏘기까지 했다. 여직 중임원들이 떨어지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고 우리를 쫓아에서도 도망간 사람이 지리 있었다. 방사의 눈엔 우리들이 항상 그렇게 한 먹고 즐겼거리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우리들은 문인구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공군 육군중군단>이 합체를 해서였다. 김영수장 「교향시」를 만들었는데 정디조여사가 어머니, 최민욱씨가 아버지, 내가 장욱이역을 맡고 내 상대역이 박영준씨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향에 들어온 정욱이 신할함을 코르다가 살아있는 안수 박영준에게 사립가게 되는 이 이강의 신할감이 되어 보자고 팀에는 인물이 한둘이 아니다. 알주장일 박내이를 유주현 이 사람은 보주주의 아내로, 양명준, 박하심, 박기춘, 미미진 박씨는 누구의 아내도 없이 제각기 세 실력을 보여주고 절호의 앞에서 두스장스런 불문을 드러내고 있다. 정미석은 순경으로 불참했다.

순경의 생활이 어떨지는 기억되지 않으나 정미석 씨에게 이상노씨가 '꽤 눈깔을 똑바로 드고 이레' 하며 달려들던 대화 한 마디는 머리에 떠오른다. 권숙희, 김병호, 박준선씨 등도 나왔다. 박준선씨가 「적무가네」라는 말을 듣기자 못8년 일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 일본 아사히 연극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게 모른다. 얼마 동안의 후고로 해서 바빠 더 바빠 초라한 노천방을 피난방송국 초라한 지하실 땅에서 만나던 일은 더욱 잊혀지지 않는다. 모운숙의 거처엔 그때 갔던지 다음번에 갔던지 기억은 잘 안되나 피도거 머리맡에까지 가서 할거리고 있었다.

김도하님

어머님 말아나
 남의 물고기
 물고기도 알겠네
 피도이 날
 어머님 말아나
 어머님 말아나

청바의 시를 리자에 띄우면서 그건 청바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리자에 지껄어대며 슬퍼했던 것 같다.

피난문인들과 배에 놓을 수 없는 문인이 한 사람 있다. 김기현 대위다. 연애에 비해서 계급은 낮은 편이었는데 술은 몹시 좋아했다. 술이 좋아니까 문인들과 친해진 것 같다.

피난 내각하면서 처음으로 쓰이던 한글구락부 사무실 겸 숙소를 얻지 못한 구락부원의 저차이기도 했던 이 처소에 김계현 대위도 방을 여가서 지냈다. 피해동, 김윤성, 박화선 재키와 함께 술이 큰스레가 되면 이들은 "노래 한 마디 하겠습시다" 하고씩 흥분해장하던

가 내 고향을 이별학교를 치양하게 부른다고 해서 '노래 한 마디 전방이란 별명으로 우리들 사이에 통했다. 또 양말 한켠대로 산는 산새라 밟아면 늦어도 양말은 꼭장 땀이 난다고 해서 '라레중세는 그들 '양말산새'이라고 어울리지었다.

대구 피난문인을 위한 공로표창이 있다면 이분은 배 놓을 수가 없었다. 우리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었던 것이니까. 최인옥씨도 어대신가 말한 일이 있을 것 같운데 <저를 나무랄> 아무나라도 한 문 들어와 하고 앞대거리란 미안한 별명을 붙여준 이셨도 한 문 들어와. 라고 우리 식구가 들어 있던 우리 주일집 식구도 한 문 들어와 한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다. <저를나무랄> 아무나라도 피갈을갈을 주축하는 일이라면 한 번도 없었으며 늘 좋은 벗으로 한결같이 해주었다. 비양도 마찬가지였다. 비양은 우리가 연극을 하던 때 땅콩이랑 오징어랑 잔뜩 싸우고 있었다. 우리 주일집은 그 이상의 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집에 드나드는 내 친구에게 안주를 거의 내다주고 했으니깐. **당문**



정찰기의
무인비행

1961년 1월 19일 경상북도 울진
에서 일어난 일이다.

육군 제 1군단에 파견되어 있던
이코 공군 조종사가 비행장에서
K-1을 맡아지 있는 군단사령부에
지프차로 가서 정보청모를 데리고
과야 했기 때문에 지프차로 떠나기
전에 정비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
다.

"내가 가서 정보를 모시고 나올
때나 내가 도착하면 금 할 수 있도
록 정비를 해 놓으시오" 이 때의
비행기는 L-15정찰기로서 제동장
치가 없어서 시동을 걸 때에는 조
종사가 미리 조종석에 앉아 있고
정비사가 프로펠러를 돌려야만 했
었다. 그리고 비행기가 주기(周回)
해 있을 때는 바깥에 들어가 기동
으로 밀쳐 놓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의 정비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조종사의 명령대로 정비를 끝낸
정비사는 충실한 정신을 심은 발
회 조종사가 오면 곧장 출발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놓는다고 마음
먹었다. 이리하여 정비사는 조종사
가 타지 않았지만 기상에 올라가
모든 스위치를 작동하도록 맞추어
놓은 다음, 다시 내려와서 바깥에
받쳐 있는 돌을 빼버렸다. 그리고
다시 말로 힘있게 프로펠러를 내

치비웠다.

"무복 무복" 소리를 내며 시동을
걸기 시작한 비행기가 순식간에 하
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정비사는 프로펠러에 맞아 두어
번 공중을 빙글빙글 돈 다음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비행기는 사람없
이 상승해 올라갔다. 이때 파천 청
보청모를 데리러 갔던 조종사가 참
모를 데리고 급히 와 보니 새기는
하늘로 치솟고 정비사는 말바닥에
압드려 산중하고 있었다.

조종사는 순간적으로 사고를 직
감했으나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쳐
다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한참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던 비
행기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입속하여 뒤돌무늬로 떨어졌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하강하기 시작하
였다. 마침 이를 목격한 한 이 육군
고문관은 우리 조종사가 공중극에
를 하는 줄 알고 하는 말이 실적이
었다. "원더풀! 한국시합 매우 재주
출습니다!"

한국 이 비행기는 대피되었지만
화장해 내려오는 장면은 사진으로
1962년에 나왔는데 제목이 <무인
비행>이 아니라 <한국 공군조종사
의 공중극>였더라니.



전쟁초기, 역의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정비원들은 의복은 대던바였지만 실수에는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았고 또한 익숙해질 겨를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용접 후에 X-ray를 통하여 미파괴검사를 마친 후 합격해야만 수리장에서 내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시의 상황은 초창기의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아니었다.

하루는 1형 경찰기 1대가 활주로에서 갑자기 엔진이 벗어나었다. 당시 공군의 비행단 교위중에서는 이를 보고 화를 내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 비행기는 정비원들이 밤새 고쳐 놓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디가 나빠서 엔진이 벗어났냐. 빨리 그 원인을 보고하란 말이야." 비행단 교위중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비사들은 몸먹은 방어치킴 같이 있었다. 정비사들도 잠시 대답했다. "밤새 고생한 보람도 없이 활주로 위에서 엔진이 꺼져 버릴 게 뭐람" 하고 부질없이만 당장 정비장은 고장 원인 보고자사에 대답할 바를 잊고 있었다.

"왜 그리지 몰라?" 정비원장인 어모 장교가 외쳤지만 왜 고장이 났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

다. 이 장교는 다급한 심정을 누를 틈 없어 밤을 구르다가 갑자기 의무실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비행단이 의무실에 달려가서는 청진기를 들고 고장난 항공기 옆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밖에서 쳐다보던 장병들이 모두 와아해 하였다. 그는 엔진 옆으로 가서 청진기를 엔진에 대고, 의사처럼 귀로 엔진소리를 들으며 한 것이다.

비행단 참모 중의 한 사람이 그 장교에게 물었다. "도대체 차내 무얼 하는 거야?" 그는 한참만에 서 무뎠다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비행기 고장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 ● ●

하늘의 용사라면 유병가에도 뜻이 우선 빨간 머플러를 연상하게 되는데 한국 공군의 조종사가 빨간 머플러를 착용하게 된 유래는 꽤 재미있는데 있다.

돌아가신 김병환 장군이라면 김신장군, 장성환 장군과 더불어 공군의 삼총사로 알려져 있는 분으로 조종에 있어서는 남다른 재주가 있던 분이다. 공군의 초대 참모총장이신 김병환장군의 동생인 김병환 장군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허

엔진고장을 청진기로



빨간 머플러의 유래



이 날카로운 눈치기도 하다. 비행기에 거의 미처다끼고 한 김형환 장군은 경기도도를 출입하고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형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 육군 제비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비행기승을 익혔다.

김정환장군은 동생에게는 위험한 조종을 가르치고 실직했었는데 모를 일이고 또한 김형환장군은 비행기를 타는 행날을 지극히 부러워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비행단장 재임시에도 김형환장군은 지극히 권호하였다고 한다. 그는 단장실에 단장 동승명함이나 하는 일체의 표어를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

“알고 싶거든 뛰쳐 무슨 시위 같이 벌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싫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실용을 거의 짐작할 수 있소리라. 그러나 일단 조종석에 앉으면 그는 조종 그대보았다. F-4 전투기로도 은조(銀鳥) 비행기를 갈라지 않고 쫓히 배내곤 하였다.

빨간 머플리는 김형환장군이 처음으로 착용하였다. 그 유래는 이러하다. 김장군이 비행단장으로 취임한 때였다. 그는 비행복에 머플러를 하지 않으니가 좀 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황수(黃水) (김정환 초대 함포총장의 부인)에게 “형수님 머플리로 목에 두를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시동장이 목에 두를 것을 달라고 하는데 좀 것이 없던 황수는 “내가 착아를 만들려고 한 것이 있는데 색을 빨린 것이어서 아내 안 되돌고 두고 있는데, 그것도 빨라지 모

르네요” 했다.

“아무 거면 어때요? 어디 미리 내 놓아 보십시오” 빨간 천을 갖고 오자 김형환 장군은 적당한 크기를 세으니, 부욱 벌어 목에 둘렀다. “형수님, 어때요? 멋있죠? 좋아요. 훌륭해요”라며 웃을 막치고 나갔다.

김장군이 단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조종사들은 나나 할 것 없이 빨간 머플러를 만들어 두르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단장의 빨간 머플러가 너무나 많이 있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하여 오늘날의 빨간 머플러가 시작되어 한국 공군을 상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까지 외국에서도 조종사가 빨간 머플러를 사용한 일은 없었다. 그는 공군의 명명으로 이름난 선배자의 참모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단장기 참모장이라고 자칭지 않고 불렀다. 1953년 그가 사령의 참모비행단장 관급직에서 그는 관급사 서두에 대해 “신배지 김대령이 별고할 사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가 미 공군대학에서 돌아와서 귀국 보고할 때의 보고 재발성이 어려웠다고 한다. “유난히도 밝나는 남십자성을 남쪽에 바라보면서 대령장을 건네...” **동문**

• 아낌없는 투자를...



공군본부
중위 최 희 수

호국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물론 그 투자는 호국군의 외양보다는 내용의 충실함에 단점적일 것이다.

철책의 문제에서는, 첫째 기정어 향상되어야 한다. 60년대나 어울리는 경지표자는 이제 어느 책자에서나 찾아보기 힘들다. 아무리 전술이 좋다지만 개선되어야 할 것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필자체의 질상이 요구된다. 미외 중·고교 기말고사 시험지에 나오는 필자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괴로움을 주지 않게 한다.

내용면에서는, 첫째 각 글에 맞는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예컨대 제 219호에 보면 '여유있는 삶'과 '공예'부분의 수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둘째, '기획'이 너무 많다. 기획원래, 기획특집 등... 지나치게 '기획'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셋째, 사소한 문제지만 첫 부분의 부대동성 따위는 수간공군 등이 엄격하는 상황에서 굳이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것도 호국군의 명예일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때의 행사들을... 넷째, 무엇보다도 호국군의 주기능을 확보해야 하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 셈이다.

• 세분화된 내용이 필요



공 육 사
하사 김 국 설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군의 모든 제제는 타군에 비해서 더욱 특화된 독립성과 특이성이 있는 만큼 내용에 따른 또는 관감기술에 따른 그 차이가 영보될수록 공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군 구상원의 자긍심도 배가 될 것이다. 가장 많은 군 차상과 교육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각자의 독립성과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조화시켜야 할을 포함한 나히없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호국군을 통해 일반적인 정보교과이나 교본이 이루어질 때 그 각자의 책임과 의무도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된다.

• 새로운 방향의 구성을 모색해야...



제 5738부대
일병 박 현 서

독자들에게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즉, 독자들에게는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원일록적인 내용보다는 조금은 색다른, 그리고 군생활을 통하여 받는 스트레스를 풀이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가 군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것들, 교훈적인 일화 등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나 시인의 작품 등을 수록하는 것도 관심을 끌고 인색소질을 길들여주며 다음호를 기다리는 독자의 마음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방향의 구성이 필요하다. 호국군의 첫부분은 누구나 지루한 감을 느끼는 논문이다. 독자가 청장을 읽기보면 딱딱한 글체와 장황한 문장, 또는 우리와 동행어인 글이 첫눈에 들어 오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보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 호국군의 첫부분을 독자들의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기미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의 눈을 책에서 떼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빛이 되어 주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힘쓰는 많은 젊은이들, 군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나온 삶과는 약간은 다른 삶 속에 묻혀 있지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이들의 생각과 진솔한 모습을 대변해주는 지면이 되어주길 바라며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느껴지 못하는 차가운 가슴들을 젊은이다운 세기 넘치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공군으로 이끌어가는 빛이 되어주실 작은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제 3526부대 일병 임송찬)

• 문화창달과 교양증진을 선도하는 空軍誌



제 5315부대
중령 조승환

空軍誌는 장병들의 문화창달과 교양증진을 선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장병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문제를 직시하는 자세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장병들의 생각을 선도할 역사적 사명에서 국가와 군과 인간에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각종 기획물이 보강되었으면 한다.

또한 空軍誌는 취미취미에도 내 삶과 생각을 의논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장병 및 애독자들의 욕구는 다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인견해를 늘 예의분석하는 가운데 장병 및 독자적 빛이 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제 2702부대
5급 미희호

"보통 사람의 뇌세포는 100~120억개가 된다고 한다. 그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세포가 80%인데 10% 정도만이라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두뇌로 간주된다고 한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끼리 두뇌는 두궁두권한 것 같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되는 것이 우리의 두뇌가 아닐까 싶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공군역사에 기록해 되도와 부지런히 습득을 하면 개인들의 자질향상은 물론이고 나아가 훗날 공군문화 향상에 크게 이바지되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자아발전을 위하여 한번쯤 새롭게 생각을 해볼까 어떻게 살까?

• 읽기 쉬운 잡지로 만들었으면...



공 용 사
하사정문화

어무래도 일반적인 사회의 잡지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이의를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제적으로 너무 딱딱한 느낌이 초월한다. 즉 세속대로 공군에 인식을 넓히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실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사보의 역할



박 재 기

경영학 박사 충남대 교수
AM 컨설팅 소장

1. 조직문화와 사보의 관계

조직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조직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느끼는 방법, 행동하는 패턴의 체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조직에서 실천적인 문화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는 간단히 차원에서야 정의를 모색하여야 한다. 즉 실천적 측면에서 이 정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성하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음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의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상호관계를 떠나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합일적 커뮤니케이션으로만이 실현 가능한 한판인 것이다. 조직문화의 창출과 실천은 보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개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하나가 바로 사보인 것이다. 사보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하나가 바로 사보인 것이다. 사보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치는 사보'로서 조직구성원들에게 충실한 내용, 신선한 체계로서 조직특유의 색깔과 언어가 담길 수 있는 편집활약을 부여하여야만 한다. 즉, 사보가 중요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한

매체로서 조직전세를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의 화위문화로서 정보화 다원화 시대에 부합될 수 있는 조직특유의 특성과 일체감을 지닌 매체로서 조직내에 내면화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군대와연하고 확립된 사보에서 탈피하여 조직 특색성과 창의성을 제공하는 사보로 전환함으로써 조직문화 창출에 있어 사보의 역할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는에 목적이 있다.

2. 사보(社報)의 개념과 특성

사보(社報)는 일반적으로 하우스오간(house organ)으로도 인식되며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오래된 매체로서 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우스오간이란 조직간행물(organizational periodical)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협회, 정부기관, 군대, 단체, 교회, 언론기관 등이 발행하는 모든 정기 간행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보는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인 내부보(internal periodical)와 대외 이미지 제고의 수단인 외부보(external periodical)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주로 내부보를 중심으로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1 사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따른 제언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조직과 개인을 연결하여 혁신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충성심(자부심)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사보는 이러한 목적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실천에 옮기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것이다. 조나에 의하면 여러 공식적 채널(각종 회의, 구두매체, 사보를 포함

한 회담, 세시판, 사내방송 등)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선택성이 높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보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첫째, 사보는 조직의 비전과 목적에 궁극적으로는 조직문화에 부합되게 제작되어야 한다.

사보는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조직철학, 조직이념, 조직방침, 관리제도 등의 조직자원 요소들이 구성원차원의 내면적 가치와 정신적 강령으로 승화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사보는 조직 구성원의 의사가 활발히 피드백되도록 제재와 내용이 조직적이어야 한다. 즉 조직의 최고 경영층이 의사만을 전달하는 일방적 통도가 아닌 구성원의 의사가 고위 관리층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피드백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보는 구성원의 합의성, 자율성이 확보되어 토론의 장, 혁신의 장,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사보는 궁극적으로 조직발전과 개인성장을 합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구성원과 사보편집담당자의 자율성과 업무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22. 사보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재언

사보의 환경적 특성은 그간의 사보가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후반 양적 팽창만을 보였다는 사실의 밑받침이다. 이해보면, 편집환경과 편집진 문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합의성, 책임, 독자성의 상실로 집적인 고도화를 취하지 못한 사보이고 보면, 목적의식이 없는 사보의 양적 팽창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력 편집환경은 상회하단에 의한 상사의 정권발표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사보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편집기술은 정책부재와 제작시스템의 열악과 제정의 빈곤으로 단지 시각적으로 무리없는 내용과 재미있는 사보만을 제작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측면에 사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본연의 목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실천하여야만 한다.

첫째, 편집을 관찰하는 경영고위층의 인식전환이다.

사보의 조직문화적 속성을 깊이있게 인식하여 적극적인 자율성과 자원을 이끄는 밑받침이 될 것이다.

둘째, 사보담당자는 편집기술뿐만아니라 적용하고 조직의 얼굴, 행동, 관습이 담긴 사보를 제작한다는 선전가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23. 사보의 조직문화적 특성에 따른 재언

사보의 장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의 창출이다. 기업문화란 (기업 스스로가 창조하여 자신의 환경 일부로 삼은 사고방식, 감정양식 및 행위규범)으로 요약된다. 기업문화의 이러한 총괄적인 행위 규정은 기업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보가 기업문화의 주역으로 세 기능을 수행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사보는 기업문화를 반영하는 지름이다. 기업이 고유한 역사적 경험축적을 통해 경영이념 장으로 기업에 독자적인 문화를 구체화 시켰듯이, 기업사보도 고유한 편집특성 등을 통해 기업문화의 창출에 핵심적인 매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문화의 창출이란 궁극적으로 경영이념의 구현 운동이다. 이는 인적자원과 조직제도적인 차원에서 변화운동은 조직 구성원들이 시간 공유의 가치, 구성원 자신, 관리 스타일 및 기술 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는 주체가 변화담당자(Change agent)이며 이들은 기업조직내 공식적 비공식적 관위에서 주도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사보조직 커뮤니케이션인 사보조직을 의미한다는 기업조직 문화의 코어 혹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가장 영향력있는 시각매체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은 기업문화의 창출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조건이 기업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라는 것이다.

알맞은 하향식,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보가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문화의 선도적 매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권력이 일정한 사보 편집자 한 두명이 기업을 대표하는 사

보통 발견하는 국내 사보 편집환경으로는 사보가 기업 문화의 소극적인 추종자 역할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또는 기업문화의 발달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보를 편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사보가 기업문화의 주도적인 창조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사보 편집의 내용과 구성적 어간들, 편집인력의 보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3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사보의 역할

3.1 커뮤니케이션의 중추적 역할

조직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 가운데에서도 상하적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 그 조직은 관료제화하며 활동력은 상실되고 정적인 조직이 된다. 조직이 활력을 잃고 발전은 둔화되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조직의 생명은 다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보가 바로 조직의 활력을 주고 신비롭다는 분위기를 제공한다라는 점에 충실을 맞추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보가 지도층의 메시지를 크게 취급하거나 서두에 대대히 편집하고 있는 반면, 구성원들의 기고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Feedback)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사보의 후반부나 뒷쪽 게재되어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현상을 주고 있다.

이제 사보도 경영지도층의 활동에만 관계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회사의 구성원이나 기능적 종사원들의 열정과 열풍리는 모습도 다루어져야 되겠으며, 권두언이나 권두 수필에도 경영진이 아닌 정사원의 글도 실어 관두주의적인 인식에서 탈피를 해야 하겠다. 전 종사원의 동참화를 위하여 그들을 현종화시켜 종사원들의 본보기로 비추어 지도층, 인간중심적 사보로 현재가 하나가 되는 유대감과 일체감으로 나타나 버트소 내면적 조직문화가 현실과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사보발행에 있어 기본개념이 되어야 조직문화를 실천으로 옮기는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보는 이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고 경영자에게 전달시켜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경영에 대한 태도와 종사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조직내 갈등요인을 적절히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3.2 조직문화 창출의 효과적 매개체

조직문화는 그 조직자체가 지니는 고유한 문화로 "기업 스스로가 창조하여 환경의 무분으로 삼은 사고방식, 감정양식 및 행위 유형"으로 주로 한 기업의 가치 및 규범체계와 가장 깊은 연관성을 가진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는 아직은 보편적인 사회문화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조직마다의 특수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보는 이러한 특수성을 창출하는 효과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조직의 외형적인 환경을 많은 발전을 보여주는데, 그 구성원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는 비록한 단계로 내실이 되어있는 규모와 분위 사이의 불균형 상태이다. 이것은 조직차원에서 급히 해결하여야 할 현상과도 보지 전문가에 의한 이상적 문화를 구축하여 확산하여야 한다. 구축된 이상적 문화의 확산은 사보가 효과적으로 매개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창고가 현대화하고 이 기술수준이 고도화하여 사무관리가 자동화되어도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된 조직이념에 바탕을 두고 직무에 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사보는 이러한 조직문화 창출과 실천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사보의 조직문화 창달과 실천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조직문화의 이상화 비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직의 비전과 이념, 방침, 가치관 등 의 일관성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문화가 창달되어야 한다. 만약 이상향이 실현되어 있지 않다면, 사보를 통하여 이상화 창달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의 이상현에 의한 경영비전 및 이념에 대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의식이 되도록 사보의 편집정책을 구성하여야 한다.

새로 조직의 문화상에 걸맞는 독특한 상징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제, 타식과 행사를 비롯한 제반 상징물과 사보 등을 통하여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제 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조직의 문화에 근간이 되는 승진, 급여, 후생복지 이들에치 봉의 인사양향을 사보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불만과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문화를 제시하여야 한다.

33 독창성과 신선감을 주는 홍보수단

대부분이 사보가 그 편집구성면에서 일정한 틀 속에서 케케묵어있듯한 단조로움을 보이고 있으며, 표제, 소제, 본문형식, 레이아웃배치, 사진 및 일러스트의 게재 방법등에 있어서 학습이나 상업지를 대하는 듯한 보양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직의 사보는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대면자와 같은 역할을 가지므로 사보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살려서 독자(종사원)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려면 상업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같은 내용이라도 편집구성의 기술에서 독자의 호의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여 신선한 시각매체의 하나로서 조직교육의 색깔과 언어가 담길 수 있도록 편집되어야 한다.

사보는 「CI(Corporate Identity)」의 한 매체이므로, 사보지식의 이미지(Image)가 조직의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게 편집내용과 구성이 수평적이며, 또한 사보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서 조직문화 창출에 있어서 독창성과 일체감을 지닌 문화매체로서 활달 신선감을 부여해서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창조해 나가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홍보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코르포레이션을 전문기관에 의하여 조직문화와 연계성을 가지고 편집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34 구성원을 위한 정신적 정보의 전달지

현대 사회는 정보를 중시하는 정보경제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사보는 구성원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교양에 관련된 국내외 소식을 조직의 특성에 맞는 테마로 선정하여 재미있고 유익하게 편집하여 제공하여야 한

다. 또한 구성원들을 위한 지리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관심사인 건강, 안전, 재정, 후생 복지, 주택 문제, 그리고 생활에 대한 전문적인 교양과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특별한 대응회복 교육시켜야 한다. 동시에 사보 역시 넓은 의미로 보면 언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보는 조직내외의 소식과 정보에 대한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비판과 대한 제시의 장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구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사보담당자들의 부단한 전문성과 폭넓은 지식 체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4 맺는말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조직문화의 창출과 기업사보의 역할문제를 아무리 지으면 결국 「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이 만들어 내고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조직의 유기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내적인 순결합체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조직 구성원의 개개인의 보람, 조직 전체의 보람, 나아가서 사회가 느끼고 국민 전체가 느끼는 보람이다.

개별조직의 특성을 살려서 그 이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된 가치(Shared value)를 어떤 개념적 구분이나 차별적 인식을 벗어난 하나의 「규범」으로 느껴야 하는 조직가 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조직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역할 담당자가 바로 기업의 사보인 것이다. 요즘에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선배님」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사보가 맡아야 할 것이다. **당론**

물로 병을 고치자

깨끗한 물을 마시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지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작은 오줌 속에 가동한 많은 노폐물을 분해토록 한다는 것은 오줌을 전히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신장의 이 기능을 능숙능(能)이라고 한다. 신체가 노화함에 따라 다른 기능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신장 기능의 저되는 현저하다. 나이가 들면 신장은 능숙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오줌을 많이 내보내게 된다. 많은 오줌을 몇번이고 보아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셔야 한다.

감기 등으로 열이 높을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열이 빨리 내린다.

열이 높을 때 찬물을 마신다는 것은 불안에서부터 냉각되고 발수를 방지하기의 발을 내세우는 아니다. 오줌의 양을 늘려 오줌과 함께 열을 곧 밖으로 방출하는 것이 된다. 결국 찬물을 마시면 물을 한에서나 밖에 서나 모두가 자제 시켜야 되어 열이 높을 때 빨리 열을 내리

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뇌졸중을 막아준다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끈기가 심해지면 혈관 내부에 끈적한 성분이 쌓인다. 이 부착물이 쌓여 혈관이 막히게 되면 무서운 병이 생긴다. 뇌의 혈관이면 뇌졸중, 심장의 혈관이면 심근경색이 된다. 혈액의 끈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한다. 마신 물은 와나 창자에 스며들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혈액의 끈기를 적게 한다.

깨끗한 냉수를 마셔 위장을 자극하는 요법은 변비 해소에 대단히 효과가 있다.

변비란 변이 창자 속에 오래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다. 창자 속에 오래동안 변이 머물러 있으면 물이 차꾸만 스며들어 차츰 굳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면 변의 양도 줄고 창자의 운동은 동도 낮아진다. 그래서 변비를 해소케 하려면 변의 양을 늘리

고 운동운동을 하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 창자 속의 변을 부드럽게 부풀려서 변의 양도 늘어나게 하고 창자의 운동 작용도 활발하게 해준다. 위에 대한 자극이 강할수록 이 반사도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잘 냉각된 물이 효과가 있다.

방광암의 예방에도 물을 마시면 좋다

오줌 속의 발암물질이 방광암의 원인이 된다. 오줌은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요관을 통해 방광에 들어가 저기에 일정량이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인 까닭에
물은 건강을 좌우한다.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더없이 좋은 보약이다.”

고이면 오도를 통해 나오게 된다. 이것들의 어느 부위도 오증과 결핵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을 많이 마시서 오증을 풀게 하면 오증에 포함되어 있는 발열물질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찬식 발작시 찬물을 마시면 호흡이 편해지고 쉽게 가라앉는다.

찬식은 호흡근련의 상태가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다. 기관지의 발단은 발작시에는 정상치의 20~30퍼센트까지 좁아진다. 때문에 불안의 산소와 부족하게 되어 고통을 느끼게 된다.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은 기관지를 구성하고 있는 평활근이란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수축하면 기관지 안쪽에 침박이 부어서 많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때 물을 마시면 혈수상태가 개선되어 담의 끈기도 풀려서 쉽게 뱉어진다.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한 공복시의 토증을 멎게 하는 한 법의 물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빈속일 때 통증이 온다는 것이다. 이런 때에 한 컵의 물을 마시면 통증은 대개 감쪽같이 가라앉는다. 이것은 붓로 하는 일시적인 응급처치이지만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노인의 물은 수분 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한다.

사람의 몸은 상당히 많은 물이 필요한데 자칫하다간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다. 가족들도 노인에게 물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한다. 특히 기동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경우 물을 찾아가 버리는 일이 많다. 이것은 캄캄한 곳에서는 아니된다.

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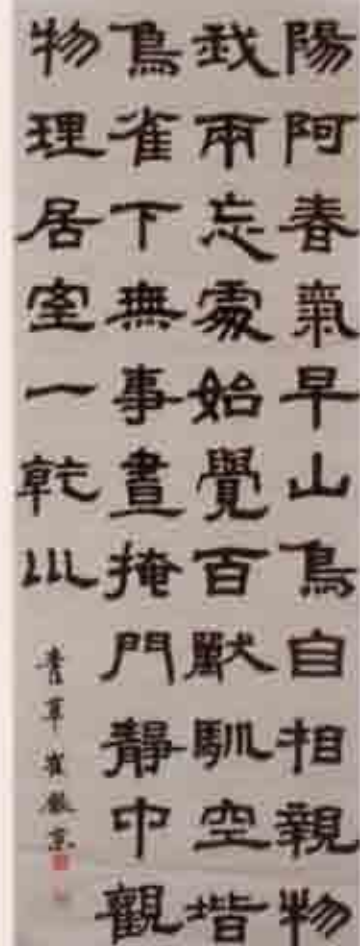
작품활동을 통한 여가선용과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위한 제 7회 공군전공작자전이 대전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총 179점의 응모작품 중 한국화 13, 서양화 27, 서예 27, 사진 37점과 초대작품 6점 등 110점이 전시되었다.



추 경
회 3252부대
상사 김기현

한국화 대상



산 기 운
회 3758부대
10급 최은걸

서예 대상



서양화 대상

구 석
제 3975부대
병장 김동환

사진 대상



열 자
제 3252부대
중사 김동환

서예 우수상

蒼壁可藏天影入
桃花染破南山青

창백묘장
광교기원학교
왕서 윤민철

사마인곡종에서
제 5718부대
2급 윤종민

후루발서리기에기려기우려낼제위루에호
자올나슈정늘거트말이동산의돌이나노로
크의별이보니느이신기반기니노물이절로
나다청광을주여내영황누의뜻티고저



한국화 우수상

민군화합
광명초등학교
병장 유원준

사진 우수상

우리는 친구
제 3252부대
중사 김경남



소래에서... 생각
제 7293부대
일명 이승철





서양화 우수상

작품 4325
제 3526부대
7급 차필봉



공 회
제 7283부대
병장 김진석

器糧圖

예기비의 절
제 5672부대
6급 서정원



철언시
제 5482부대
5급 박두환

고대을고여
그만더생
덜지게움더

김영재님의 시
제 5718부대
일병-최원철



서에 특선

한국화 특선

여인의 기도
제 2701부대
상병 오창혁

서양화 특선

호국역사
교육사령부
병장 김용준



공군의 위용
공군사관학교
원사 한동수

사진 특선



투영
제 5779부대
상사 이국진



잊혀진 무제
제 3975부대
상사 김재남

우주전과 군사위성 운용 실태



육군정보학교 교관
육군소령 지 병 철

目 次

1. 머리말
2. 군사위성의 개요
3. 제 4차 중동전쟁과 미·소의 정찰위성
4. 프랑스의 전쟁과 군사위성 정보
5. 걸프전과 미국의 위성 정보차관
6.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위성정찰위성
7. 군사위성 보유국의 운용실태
8. 맺음말

1. 머리말

현대전의 기술적 변화양상은 우주자산을 이용한 하이테크 군사정보의 결정적 역할이다.

현재 지구우위를 들고 있는 각종 위성 군 정보위성,

기상위성, 통신위성등이 일부 능력, 역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국제간의 역학관계, 국제전략 및 전략정보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흔히말하며 “전쟁이란 100%의 정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는 우리 백속까지 관이 있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의 능력이나 전략 및 의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급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역사적으로 쿠바위기, 중동전쟁, 이라크나프탄시태, 포클랜드 전쟁, 그리고 걸프전 등에서 군사위성의 높은 군사적요로나 정치적으로 이라가자 국면에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북한 정변의 원인에 발천소 문제,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북한정세 및 국제관계를 올바르게 이해 하려면 군사위성의 지식없이서는 불가능하고 또 이를 이해함으로써 국제사위에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군사위성의 임무, 능력, 목표등을 이해함으로써 대응력을 강구할 수 있고 최소한 올바른 국제관계의 이해속에 전략정보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따라서 군사위성의 개요 및 현재의 정보전 수중에 있어서 군사위성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장비들이 동원되었는가 알아보고 군사위성 보유국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 1) 박종길, 정경익, 박영재, 1992, 1220.

구소련의 쿠바에서의 미사일 등 군사적 중공의 비밀주에 어뢰한것은 한결적으로 15-20년전정황에서 보아 쿠바의 정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2) 국방일보, 1992. 3. 20

냉전시대에 미·소의 마지막 대결장이었던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미국은 1985년부터 방위산업계로부터 비공개로 소련군 복수에 대한 위성정보, 레이더, 위성정보에 근거한 군사적정보, 소련군 요인사망의 도청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여 구소련군을 패배시키고 불온사태를 가져왔다.

수집하기 위한 위성으로 통신전파를 가로채거나 레이더의 위치나 성능을 탐지하여 공격의 자료로 이용한다.

(3) 해양탐찰 위성(Ocean-Reconnaissance Sat)

해상의 선박이나 잠수중인 잠수함의 위치, 이동 속도, 방향등을 탐지하여 보고한다. 수중의 잠수함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많아 향후의 연구과제이다.

나. 조기경보 위성(Early-Warning Sat)

상대국의 ICBM 및 잠수함 발사 유평탄을 암시와 동시에 탐지하여 경보를 전한다. 1981년의 실험에서 미크로 아대에 발사했다 그리고 핵탄발 탐지기도 심어 핵 폭발이 있으면 즉시 알람이 가능하다.

다. 공격 및 요격 위성

(1) 공격위성

핵 탄두를 저고도의 궤도에 올려 일주하기 전에 보냈트를 역분산시켜 갑축, 목표지점에 낙하시키는 것으로서 소련(FOPS)은 17기이나 실험을 하였다.

(2) 요격위성(잡아 위성)

궤도상의 위성을 격추시키는 위성으로서 낮은 궤도에 있는 위성이 낮은 궤도에 있는 위성에 접근하여 충돌 또는 파괴하여 상대방 위성을 파괴한다.

라. 통신위성

통신위성은 대량의 정보를 세계각지에 순간적으로 송신이 가능하며 군사를 통신위성에 있어서는 미·소가 모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2개의 독립된 통신위성 시스템

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고수준의 전략통신용이고, 또 하나는 저수준의 전술통신용이다. 68년 6월 1일, 소련은 코스모스 292호를 처음으로 군사통신 위성을 발사하고, 그후 312호, 332호를 실험용으로 발사했다.

소련의 통신위성은 "모르니아"이며 비군사용 위성을 군 당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제 4차 중동전쟁과 미·소의 정찰위성

1973년 10월 6일 이집트가 아스와벨을 공격하여 제 4차 중동전쟁이 발발되었는데, 이때 소련의 태도는 신속하고 계획적이었다(이보다 2한년인 1971년에 일어난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에서도 소련은 코스모스 463호와 464호를 발사하여 미국을 궁지로 몰아 선수를 잡았다) 코스모스 596호가 발사된 것은 전투에서 3일 전이었다. 이 위성은 넓은 지역의 광범위한 상황을 촬영할 목적으로 추정되는데, 6일 동안 궤도에 있다가 회수되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된 그날 코스모스 598호를 발사하여 12일에 회수했고, 598호를 10일 발사 16일 회수, 599호를 3일 발사, 28일 회수, 600호를 11일 발사 23일 회수, 이와 같이 연이어 발사한 위성의 수가 전투 32일에 달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미공군에서 우수성이 잘 알려진 '비버드'(Blue Bird)라는 별명이 붙은 467개 사진성찰 위성을 발사했다. 길이 15m, 지경 3m, 중량 12톤 크기의 비버드는 광역촬영용의 스테레오 쌍말 촬영기의 카메라를 싣고 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물론 특정 지역을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 한 미국인 정보원은 비행중에도 지상의 과학에 관련된 사실에 관습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알 필요성을 느끼는 지체없이 지평선 위의 중요한 목표물을 촬영한 후 그影片的 집합을 위성에서 지구로 발사, 회수하여 분석한다. 실제로 그 점을 촬영한 과학자에 의하여 해방당장에 무리되어 의하여 미공군기지에서 그것을 관중에서 회수하여, 사진을 위성 관측하는 국을 가진 관중에게 보내, 해독한다.

TJ FOPS :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유드만키, 미하일, 루시예프

참고 문헌: 미, 화인 연방, P, 과학도, 1985, P.116-117

어었다. 더욱이 구릉에 가려진 지역이나 해안의 상태를 참을 수 있는 해이다를 망비한 천천후형인데다 “레도 변환위상”이라는 것이 최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빅 버드는 보통은 1천km 정도이 높은 고도를 유지하면서 땅의 촬영을 하나, 특정지역을 촬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도 100m 정도까지 저레드로 하강하여 땅의 촬영을 하고 다시 원고도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주 스파이 경쟁속에서 미·소는 각자의 정찰위성으로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외교정책에 이용하였다. 소련의 관유진 수상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에게, 이집트의 신세공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승이 빨리 역습의 위협이 커져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설득하였다. 미국은 비버드로부터 얻은 이집트의 군비상황을 이스라엘 측에 알려주어 전투를 중지하도록 충고했다. 판매부터 미·소의 외교정책은 석유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어 전투중지를 종용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각각의 위성정보가 중동을 무대로 불꽃튀게 경쟁해 전쟁 확대를 방지한 것은 사실이다.”

4 포클랜드 전쟁과 군사위성 정보

이 전쟁은 1982년 4월 영국령인 포클랜드 군도의 주권을 주장하는 아르헨티나가 영국군을 몰아내고 강제 점령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전쟁은 영국의 기동부대가 5월 3일 포클랜드에 상륙해 불과 8일 만에 모든 섬을 제압함으로써 끝났지만, 묻어 있는 것은 끝까지 아니라 결과를 보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몇가지 사건이다.

제1 전기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13,000톤급 순양함 벨그라노(Belgrano)호를 격침시켰다. 이 순양함은 미국에서 양도받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구식함으로 원래는 어뢰는 아르헨티나 해군의 실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함정이었다. 이 함정이 격침되었을 때, 아르헨티나는 영국군이 미국 정보 경찰위성의 도움을 받아 이 함정을 공격했다고 알린하였다. 남대서양 상의 레도에 있는 빅 버드와 KH-11 두 정찰위성이 같은 아르헨티나 군대의 상황을 미국이 영국에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바로 얼마 후 이번에는 아르헨티나가 미사일 단 한발로 영국의 최상급 구축함 셰필드호를 격침시키고 말았다. 이때 아르헨티나 공군이 사용한 대함 미사일은 싸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초저공을 비행하고 43의 속도로 비행해서 내장 레이다로 목표를 탐지하면, 그 후는 스스로 목표물을 추적 비행하는 슈퍼 바사 일이다.

한편 소련은 포클랜드 전쟁 발발과 동시에 위성 6개를 차례로 안사했다. 그 가운데 두개는 사진정찰 나머지는 통신 또는 레이다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월 21일에 발사된 크스모스 1352호는 명백히 포클랜드 감시용의 위성이었다. 그래서 이를 위성이 잡은 정보로 소련이 아르헨티나에 흘러고 있었을지는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알고는 영국의 최상급 구축함을 격침한다는 선과를 얻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소련이 포클랜드군도 상공에 각각 군사위성을 초아 올려 정보를 수집하여 영국과 아르헨티나에 경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자간에 있어서는 분쟁이 심격 군도에 관계없이 강대국의 영향이 작용하여 위성통신에 의한 정보지원을 포함한 각종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5 걸프전과 미국의 군사위성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이 초기에 제공권을 확보하고 미라크군을 주력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국적군이 걸프전에서 미라크군의 공력을 압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

주 3) 국방정보본부, 미국의 군사정찰 및 감시정보개발현황, 1988, pp. 217-221

10) 김화길 저, 중동전쟁, 원전사, 1986, P. 467

11) 존 레위 저, 포클랜드 전쟁, 명사사, 1983, P. 231

영국 해군은 포클랜드사태 이전에 NAF의 군수조력정보 지원을 받았으나 NAF의 정보 정보에서 작전정보는 대중에 공개당하여 제외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정보로 미군이 제공한 정보로 내역을 감당할 것이었다.

다. 겔르친은 최초의 우주원인으로 군사비밀의 정보주체의 존엄성을 새롭게 보강시킨다.¹³¹⁾

다국적군은 다양한 정보장비를 이용하여 작전에 적 부대의 구성, 배치 및 장비들의 배반요소를 탐지하여 작전기동도와 능력을 판단하고 전략성을 발현하여 이리 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

글로벌에 중원위 대표작인 첨단 과학기술 정보망이
는 조기경보 통령기(AWACS), 사진 정찰위성(KH-
11), 레이더·영상 위성(Lacrosse), 통신위성(Mon-
itor), 조기경보 위성(DSP) 등의 군사위성과 통합된
이 될 포항공과 레이더 시스템(JSTARS), 고공 정찰
기(TR-1) 등이 있다.

우선 사각정황화형은 KH-11과 KH-23 등 4 개기가 운용되었는데 고도 2백~800m의 궤도로부터 지구표 크기(해상도 3km)의 지상물체 식별이 가능하며, 이더 크와 쿠웨이트상공을 2~4시간 간격으로 통과하면서 적외선 및 레이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야간 및 구름상에도 정황인무를 수행하였으며, 위치 및 고도를 변경하여 별도의 각도에서 목표물 촬영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촬영된 장면은 디지털 영상화되어 지체지각했다가 위성이 그래픽스와 태평양상에 있는 지상스테이션(GS) 장치를 통하여 영상정보를 송신하였다.

이 중첩된 영상은 군사위성 통신시스템(SDS: Satellite Data System) 위성을 사용하여 주 수전소인 마곡군 코브레모어 기지를 경유, 워싱턴에 있는 CIA 국합사진 관독센터 및 공군사진 관독센터로 전송되어 컴퓨터로 해석된 후 현지 작전지휘부에 전파 사용된다.

출처: DSP에 의해 1981년 DSP E-118에 의해

이후 1987년까지 F-13, F-12, F-6R, F-5R 3개 종류를 발사하였으나 1989년에 발사한 DSP-1은 센서를 탑재시킨 SEDS(Sensor Evolutionary Satellite)의 실험으로 특히 저의 LASER 공격을 피하면 방위경이 무력화시킨다는 데에 대한 방어력을 크게 강화를 것이다.

6.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사전정찰 위성

물론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되, 지금은 소련이나 중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안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보를 캐내하고 있어 알 수가 없었다. 물론 미국은 정찰위성으로 그 장소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영상이나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며 위성의 정찰 능력이 노출되므로 공개를 꺼리게 왔다. 일본의 중핵대학 정보기술센터의 연구진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미국의 지구관측 위성인 랜드 셋(LAND SAT)과 프랑스의 상업위성인 스포트(SPOT) 지구 관측위성의 자료를 영상으로 처리해 수년간에 걸쳐 원자력 발전소의 개발 상황을 파악해 왔다. 그 결과 평양 북방 90km 부근의 평면에 선형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원자의 발전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핵확산 방지 조약에 따라 원자력을 취급하는 사실은 모두 세계 에너지 관리 시찰하여 두는데, 이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 핵병기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사실은 대단히 엄격히 시행되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라티스탄, 이라크 등

* 121 頁 34 行, P. 1993 韓國學術院 2002 年, P. 154

12) $\rightarrow$ DSP = Distribution Point, 여러가지 자원이 쓰이는 지사들이 합쳐있어 강제로 분할하는 회원을 뜻하는 약칭으로, 합쳐진 자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가지 문제로 귀착된다.

BTTRAK : Java Surveillance Times Article Reader Session. 보안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활동이 (EUA)로 이뤄진
공공 기관으로부터 제공. 이들을 25,000 이하의 고객로부터 고객들을 운영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1995年, 美国《科学》杂志刊登了美国国家科学院院士、加州理工学院教授詹姆斯·克拉克(James Hansen)在1995年11月10日美国国家科学院会议上发表的演讲内容, 指出: “我们正处在气候变化的边缘, 如果这种变化发生, 我们将面临灾难性的后果。”

① 中国城市人口增长趋势与对策，见《中国城市人口增长趋势与对策》，2004年，第14页。

1994년 12월 15일 발행, 1995년 1월 15일 발행

말이라는 거임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나라의 존 뜻은 역시 핵병기를 가지려고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잡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의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는 확실히 연료 재처리 공장이 있고 재처리 공장이 있다는 것은 플루토늄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소의 규모와 그밖의 자료를 유추해 보았더니 변환되는 플루토늄의 양이 계산 추정되어 이로 미루어 북한은 핵병기를 생산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¹⁷⁾

미국은 정찰위성 KH-11을 사용하여 이미 몇번 주변을 샅샅이 사찰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와 그 부속 시설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스포츠의 해상 능력은 Km에 비해 KH-11의 해상 능력은 10m까지의 식별이 가능하다. 더욱 KH-11로 촬영한 사진은 일체 공표된 바 없고, 사진을 공표하지 않는 KH-11의 해상능력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사진촬영 위성은 KH-9, 11, 12 등 KH 시리즈와 「라크로스」가 있다.

「비 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KH-9는 넓은 지역 정찰을, 신헌인 KH-11, 12는 좁은 지역을 보다 정밀하게 정찰하는 일을 맡는다.

이들 위성은 한 지역 상공에 고정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200-500km의 고도에서 하루에 몇번씩 지상주위를 돌면서 목표지역을 감시한다. 북한도 미국 군사위성이 행방 상공을 지나는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다.

이들 위성은 현안 발사되면 영구히 우주공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KH-9가 200여일, KH-11이 70-1100일 어엿고 1961년 발사된 KH-12는 8년의 수명을 갖는다고 한다.¹⁸⁾

KH 시리즈 위성들은 말이나 구름이 낀 날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라크로스」는 강력한

레이더를 이용해 구름을 뚫고 목표지역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대신 사진의 선명도는 떨어져 길이 1.53m의 물체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재처리 공장의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군사위성도 명확한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 일반 위성 사진으로는 건물안에 있는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알 수 없고, 물체로부터 발산되는 열로써 발견하는 적외선 탐지장치로도 가동에 따른 어떤 징후를 찾아낼 수 없다.

재처리 시설이 가동되면 크립톤등의 물질이 생성되지만 공기중에서 바로 흩어지 어려워 발견하기가 어렵다. 또한 북한이 만약 지하에 비밀 연구시설을 만들어 왔다 하더라도 정찰위성은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 알아내기는 어렵다.

7. 군사위성 보유국의 운용실태

가. 미국의 현황

미국은 현재 가장 고도의 군사위성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걸프전쟁에서도 우수한 첩보위성들을 독점하며 모든 다국적군은 미국의 위성정보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은 1967년 SAMOS¹⁹⁾에서 시작된 정찰위성 시리즈는 파이프 파이버, 샌트의 ARS 920형 및 467형 순으로 연속 발사되었고 1962년에는 12개, 1963년에는 17개, 1966년에는 15개가 발사되었으나 그 뒤에는 점점 줄어 현재는 연평균 두대정도 쏘아 올리는 데 불과하다. 이는 화성기능의 고도화, 안정화 및 장수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군사위성체계의 핵심은 1947년 설치된 국가안보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로서 NSC 상임 자문기관인 중앙정보부(CIA) 합참의 J-2부서와 J-8부서(현국립 항공 우주국(NASA)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주 17) 서울신문, 1982.2.4일자 3면

18) 월간조선, 1982.2월호, 조선일보사, P202223

19) SAMOS : Satellite Missile Observation System, 적의 미사일 감시와 공격에 대한 조기방어 경고를 위한정찰 위성임

30) 미국의 합참은 인사편리 J-1, 정보 J-2, 작전 J-3, 군사 J-4, 정보 J-5, 기획 J-6, 통신 통제 J-7, J-8, J-9, J-10, J-11, J-12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위성 체계의 확립 및 최종본체는 CIA가, 위성체계의 운영은 합참, 공군 및 해군 장관 휘하의 정보부서, 기술개발 및 위성체 발사 등은 NASA와 공군에서 행한다.

CIA가 주관하는 KH(Key Hole) 시리즈 위성은 미국 서부의 미공군 Vandenberg기지에서 발사된다. KH-11은 연간 3~4회가 발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명은 최고 25개월, 탑재센서의 해상도는 10cm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 위성의 컴퓨터를 외수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위성에서 광영상 화상을 플로리다주 스프링스에 있는 북대서양군사령부(NORAD)에 있는 우주추적스테이션에서 그 데이터를 TV로 지상 관측망으로 송신함에 따라 정보의 신속성 및 경비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다.²²⁾

위성의 제작은 TRW, Hughes와 General Electric의 Astronpace Division이 주로 맡고 있다.²³⁾

나. 구소련의 현황

구소련은 미국과 함께 매우 발달된 수준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 탑재센서와 동력장치 성능 제작수준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⁴⁾

소련은 1962년 정찰위성이라고 불리는 Cosmos-1호를 시작으로 하여 계속된 코스코스 시리즈 위성을 군사위성 관측 및 광학 발사 등 여러가지 복합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연간 30~40기를 발사하며 수명은 200일 정도이다.

소련도 1983년 이후 광역 외수용 형을 대신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자갈수신국으로 직접 수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유스카야는 소련이 자국의 우주활동은 대외로 알리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국영기업체로서 소련위성들이 촬영한 영상자료의 판매 및 촬영요청접수를 수행

하고 1990년 이후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주한 소련대사관에 담당 실무관이 주재하고 있다.

또한 올랴트 코스모스는 미국의 NASA와 같은 성격의 소련 우주국으로 우주개발, 위성체 제작 및 발사, 운영을 총괄 관리 기획하는 부서이다.

NPO 바리소스트로베레냐는 모스크바 북방군교에 위치한 소련의 정보, 지구 관측위성 전문 제작공장으로 시 위성의 개발, 실험 및 발사전 통합시험도 관장하고 있다.

최근 소련은 심각한 경제난의 영향 및 공산당의 몰락으로 군사위성의 발사횟수가 대폭 감소되었고, 군사위성도 지구관측 위성으로 변신시켜하여 해상도 5m 이하로 낮춘 수준의 영상정보를 전세계에 공개하여 상업판매를 개시하였다.

상업판매 활동의 대표자인 기관이 소유스카야와 올랴트 코스모스이다.

북한은 1978년 소련의 우주방사와 그 자료를 제공해 주는 협약을 체결하여 코스모스 위성 촬영 자료를 을 활용한 바 있다.²⁵⁾

다. 중국의 현황

중국은 미·소를 제외한 국가중 군사목적의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CHINA"로 명명된 사진정찰위성을 발사하였으며, 이 위성은 수명이 30일 미만인 초보 수준의 위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1990년 11월 중국은 최초의 인공위성인 "東方红" 1호와 그 동반 로케트인 "타이펑" 1호의 연구와 제조를 착수하였다.

현재까지 중국의 우주계획은 4단계의 주요발전을 보였다. 1970년 4월 위성발사의 표시로부터 1975년 11월 위성의 귀환, 1981년 9월 1개의 로케트에 3개의 위성 발사 및 1984년 4월 지구정지궤도 시험통신위성 등이

주 22) 김기홍, K, 한서사, P245

22) 국방과학연구소, 군사정보/한성도, 이 정보시절, 군사위성체계, 1982, P. 228

23) 한국국방연구원, 우주군사정보위성이 온존상태 및 화력방위에 관한 연구, 1985, P. 25, P. 2

24) 국방과학연구소, 한서사, P.231, 232

25) 한국국방연구원, 한서사, P.25

바로 그것이다. 1988년 말까지 중국은 39년 동안 23개의 위성을 발사하였다²⁷⁾

중국은 1990년대 초까지 선형의 대형통신위성을 발사하고 2000년 초까지 공인 우주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²⁸⁾

다. 유럽 및 기타국가와 현황

유럽 및 기타국가들은 최후배승의 방위라고 발사 운용에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군사정찰위성 대신 비교적 최적이 들어간 지구관측 및 자원탐사용 상업위성을 다수 발사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겐프란에서 첩보위성을 하나 정도 쏘아 올린 상태이다. 프랑스의 첩보위성은 자살의 불꽃을 상해의 벽에 보낼 수 없다. 그 결과 프랑스는 겐프란정중 원칙으로 군사정보를 미국에 기밀수 밖에 없었다.

「베르스 폭스」 프랑스 국방장관은 군사정보에 관한 한 압도적으로 미국측에 매달렸다고 선포했다. 그는 겐프란을 수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정보를 미국의 제함에 따라 넘겨야만 했다”고 털어놓았다²⁹⁾

프랑스는 스페인, 벨기에와 공동으로 “SPOT”, 캐나다의 “RADARSAT”, 일본은 “MOS-1” 등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최후배승을 원하는 국가에게 제공하고 있다.

8 맺음말

한대전은 우주에 의한 정보/전사전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제 4차 중동전, 보르네오 전쟁, 특히 겐프란에서 확인되었다.

겐프란에서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수집능력은 자살의 불꽃과 평불꽃의 차이를 생명의 낼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고 정확하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기술은 갖춘 군사위성을 통해 이라크의 목표들은 차이없이 찾아냈고 박살낼 수 있었다.

북한은 1991 3월 북한을 방문한 김백민 총사령에게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중국과의 인공위성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군사위성에 관한 선진국의 운용체계와 기술동향 그리고 전쟁에서의 활용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해 나갈 때 독자적인 조기경보 및 전장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군소요 예측과 최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제적인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개발과 같은 민족의 문제를 계기로 이제는 주한미군 일반도르 편파정보 수집 의존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주적인 정보수집체계를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군 정보체계가 정보전적 건설의 투자비용 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부대구조의 발전 등 최후의 전략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준비만이 제 2의 겐프란, 제 3의 겐프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8.25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초기 군사정보의 부족, 즉 눈과 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실이다.

프랑스 폭스국방장관은 한대전에서의 첩보위성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당신이 행인이라면 군장을 들고 다닐까 하는 소문이 있겠습니까” 폭스의 제 4세대 군사위성이 전쟁한다는 것은 놀랍고 새롭다는 것이다. **정문**

참고문헌

- 국방대학원, 안보학을 토론회, 「한대전과 무기체계 발전과 우리의 대응책」, 1991
- 국방연구원, 국제 국방 학술회의 및 안보 워크숍, 「겐프란의 교훈」, 1991
- 국방연구원, 주간국방(제 92427호), 1992. 3. 25

주 28) 국방부지, 안보연구지, 1992. 20000

27) 주간국방지, 1991. 281호, 최후승 일제서 P281

28)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Paris), Mar. 9, 1992

- 국방정보본지, (CJIF)권 43권, 1991
- 국방과학 연구소, 조기발보·진찰감시 실험적용, 「감시위성 해제」, 1992
- 김기홍 지, 최선 권하무기, 과학도서, 1985
- 김삼희 지, 중동전쟁, 일신사, 1986
- 국방정보본부, 미국의 군사정보 및 감시장비 개발현황, 1988
- 박동진 지, 내전사, 박영사, 1982
- 사가다 도시후미 지, 정보위성, 민경, 1991
- 육군지 1985년, 「미군지 통합군단 및 C7백세 운용」 육본, 1991
- 원근 조선, 「북한 핵재발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조선일보사, 1992
- 일본, 미시선본, 「일본전쟁의 군사위성」, 1991, 2, 16
- 존 레위 지, 포클랜드 전쟁, 방방사, 1983
- 황병주 지, 신중국군사론, 법문사, 1992



정비관리 정보화에 관한 제안

1 서론

현대인명사회가 되도록 발달함에 따라 과학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그와 상응하게 군수산업 또한 과학적인 관리체제를 통해 그 적용 업무의 활용범위가 현저히 되어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치할 수가 있게 된다.

장비전산이라고 하면 흔히 공군 전력의 후속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인 항공기의 작전업무 수행능력 유지에 직결되는 정비/기술 직관체제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바 실질적으로 정비관리에 필요한 각종 무기체계와 이의자료 및 관련 정비/기술 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일선정비 일선에 활용토록 한 정비분야의 데이터 베이스이다.

본 자료는 이미 각 기지에서도 사용중이고 실제로 정비전산에 이용되는 정비관리 전산화 제도를 새롭게 검토해 보고 기존의 대형 프레임(Frame)급 컴퓨터로 운용중인 프로그램을 다루기 쉽고 확장성이 풍부한 개인용 컴퓨터-이하 PC라고 약칭-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정비전산(정비·정보 관리체계) 활용계획

2-1 정비전산 개발체제의 비교

기존의 정비관리업무 전산화 개발체계는 Fig.1과 같다.

매일 군수사 전산실(비밀)을 통한 일일사의 BATCH로써 주류이며 개발사(인력 혹은 군차로)인상 작업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상의 입력이나 출력작업을 할 수 없고 작기작마다 특수한 자료들은 따라 처리해서 분류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정비업무의 가장 큰요소인 입력요소에 대한 계획사항 등 인력관련데이터 등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점이 기존의 정비정보관리체제의 단점으로 꼽아지는 것들이다.

Fig.2와 Fig.3은 기존 전산망의 시스템망과 시스템 구조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러면, 새로 검토한 PC이용 전산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Fig.4와 같은 시스템망과 Fig.5의 출력물 관리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입력물처리를 가할 수 있게된다.

(Fig.6 PC를 이용한 전산망 개선안 참조)

Fig.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개선안은 독립된 하나의 PC를 활용해서 그 System에서 사양을 통신 전달기능까지 합쳐 이온바 PC급 데이터로서 데이터활용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2-2 정비전산 운영체제의 효율

그럼, 앞서 살펴 본 비효율이 현행체제의 단점을 알아보고 PC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계획안까지 검토해 보았는데 PC 측과 부서마다 설치해야 할 단위 PC의 System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며 운영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현재 최소한 운영가능한 주 기억



공군 대위 5738부대
소위 안 병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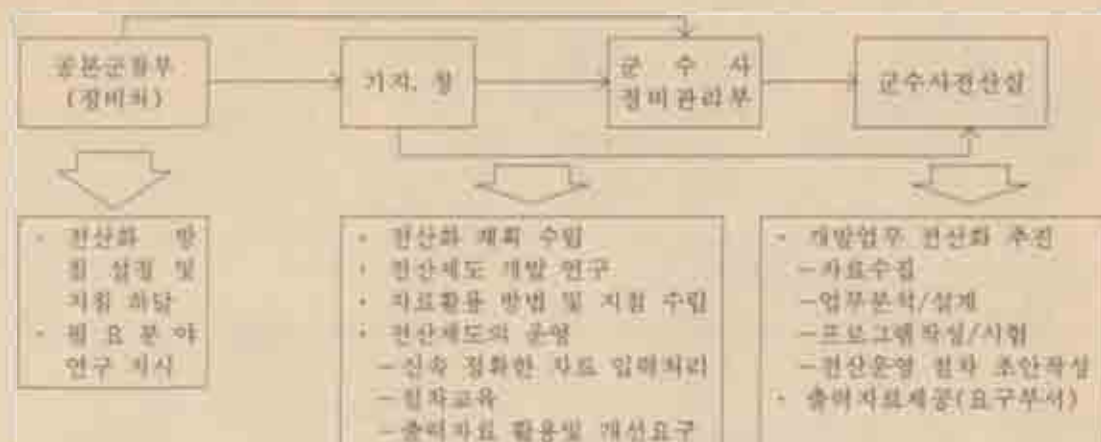


Fig. 1. 정보관리 업무 전산화 개발 체계(기본)

참치가 1 Mbyte정도 확보된 IBM-PC AT호환기종이어야 하고 둘째 보조기억장치는 최소한 40~50Mbyte 정도로 여유있는 hardware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이먼식 컴퓨터의 종류 중에서 PC급으로 처리용량이나 처리속도를 기준으로 16bit성능을 제대로 동작시킬 수 있는 컴퓨터는 Diastandard가 IBM-PC AT기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4000bps(24만) 통신선로 이용 통신장치가 필요하다.

이상의 System으로 Fig. 4의 시스템방을 갖추고 입출력 입·출력 및 각종 정보 서비스를 표준화시킨다면 인편관리 및 할당 문제되는 할당기 이해관리 및 스케줄링에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그 문제를 먼저 언급하자면, 전문부서 및 전문담당요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곧 단위 부대급 통합 정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문부서와 전담요원의 확보

관리체로서 각 Shop의 PC를 단합기로, 그리고 장비와 산하 전문부서(가정 '정보전산처')에 Main System용 PC를 두고 data를 관리하며 필요할때마다 data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야기되는 문제는 다음이다. 전문부서의 전문담당요원이다. 충분한 계획과 합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스템분석, 도입, 시용, 검토, 활용등의 각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는 전문성을 지니고 다량 계획과 예산을 그 목적으로 앞서 말한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기로 하였다.

3 개선후 기대효과와 전산보안 대책

앞절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정보전산방과는 달리 PC로 구현하게 되는 이 계획안은 장비사 및 부장사의 인식수용과 자금 수급 계획의 정확한 해시파 그리고 각종 현황-예를 들어, 장비, 부장사, 훈련, 평가 관리 등을 포함해서 제 항목기 이해관리-을 각 가지의 상태에 맞추어 구성할 수 있고 지정한 중앙집중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입출력자료를 ONLINE으로 기와 상급부대로 전송시키며 전송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전산보안의 필수적인 연구요소가 과제로 남지만 자료의 암호화가 가능한 PC통신에서 이는 곧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임에 분명하다.

기존의 전산방이 전문부서 및 기타 불법단거나 불법정안에게 노출되는 위험이 다분한 것임이 이 또한 노출의 위험이 크지만 통신망 개발이 일환으로 정부와 학계가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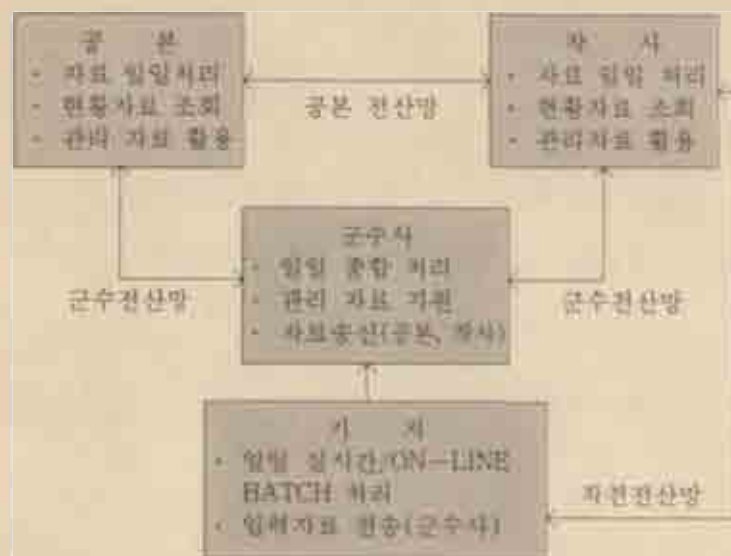


Fig. 2. (기존)시스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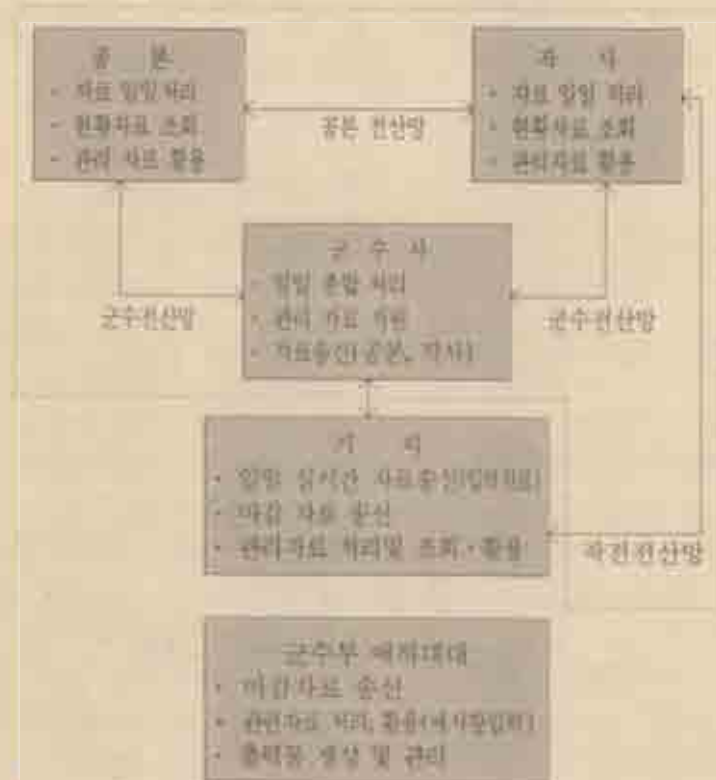


Fig. 4. 개선된 시스템망

관하고 있는 수신과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Software상에서 실시간 송수신의 데이터 전송에 큰 모듈을 포함하면 전산보안의 기술성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용어(알호)차별로 분류하여 연구한다면 최소한 도량이나 정보를 추출시키는 불순분자와 강소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관리 및 처리의 일관성과 중간관리자의 책임감이 전산보안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4 결론

정비정산 즉 정비정보관리 업무는 정비관리자로 하여금 제작관리, 시험한 배치, 무기체계 작동현황, 회 및 비제회 정비현황, 수량현황, 수리지원현황, 정비사의 기술수준 등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출력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 활용빈도가 높은 PC를 활용해서 기가지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데이터 베이스를 갖추고 이를 다시 통신으로 연결해서 통신망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는 제안을 살펴보았다.

신뢰도 중심 정비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출판 제 2583부
출판 김 진 용

1974년

미국방성은 군 장비에 대한 정비계획에 미국 민간 항공사들이 참여하도록 군 당국에 지시했고 이 지시는 4년 확인되었으나 이 때까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해설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항공정비에 대한 기초로 제공된 간단한 작업 명세서가 항공 정비, 공학, 신뢰도 분석에 풍부한 지식을 요원들을 위해 작성되어 왔으며 또한 항공업무들 다른 분야에 이해시키기 위해 그것들에 필요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간행물을 출간했으나 이들도 필요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국방성은 논리적인 원칙을 충분히 설명한 교재를 준비하도록 항공운송협회에 의뢰했다. 그 결과 간행된 책명이 '신뢰도 중심 정비-RCM'이고 이 책은 예방정비 분야에서의 현재 기술수준 및 현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예방 정비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

예방정비는 장비정비의 부분들에 대해 그 부품을 구상하는 모든 활동이 적절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안전성과 작업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경제적인 정기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시기적절하게 수행되는 정비 작업에 대해서도 많은 유형의 결함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거나 감소되지 않음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항공기 설계자들은 결함으로 인한 손실규모를 절감시킬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즉 이들은 결함율을 줄일 수 있는 설계 기법을 개발한 것이다. 비록 안전도와 신뢰도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손실이 어느 정도 허용가능한 구조(FAIL-SAFE STRUCTURE)의 설계 및 다양한 엔진의 사용으로 인해 이들 안전도와 신뢰도를

따로 따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방정비와 신뢰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상존하였다. 1950년 말기에 민간 항공의 규모는 연구 직트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고 정비 작업 비용도 현재 수백만원 작업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항공정비 실무 단계의 작업이 있던 FAA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정기관의 결과물을 계획 문제점사의 대응이나 그 빈도(FREQUENCY)상에 변화를 주어서 보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뒤 난관에 봉착했다. 이 때문에 1960년 FAA와 민간항공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특별 조사팀이 구성되어 예방정비 능력 조사에 들어갔다.

이 팀의 임무는 'FAA/민간 신뢰도 프로그램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이 프로그램의 도입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낮은 신뢰도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통의 작동 요소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분석을 통한 신뢰도 조정에 그 목적이 있다. 과거에는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 문제점사(OVERHAUL)기반의 조정이 매우 강조되었으나 일도있는 연구 끝에 조립된 신뢰도와 수리 기간이 광연적으로 직접적 관련을 가진 수백이 넘는을 확실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들 두 주제는 각각 분리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복의 연속적 문제점사 사이의 기간(INTERVAL)이 결합을 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던 전통적인 개념에 장벽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조사팀은 추진 계통(PROPULSION SYSTEM)에 관한 신뢰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프로그램

개발됨에 속해있던 각 항공사들은 그것이 가장 관심을 두었던 정비 분야에 대한 신뢰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계획정비(SCHEDULED MAINTENANCE)가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졌다.

특히 다음의 두 사항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 공통의 일정한 결합형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면 계획 문제점사(SCHEDULED OVERHAUL)는 결빙점목의 전체 신뢰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많은 공통에서 효율적인 형태의 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RCM 분석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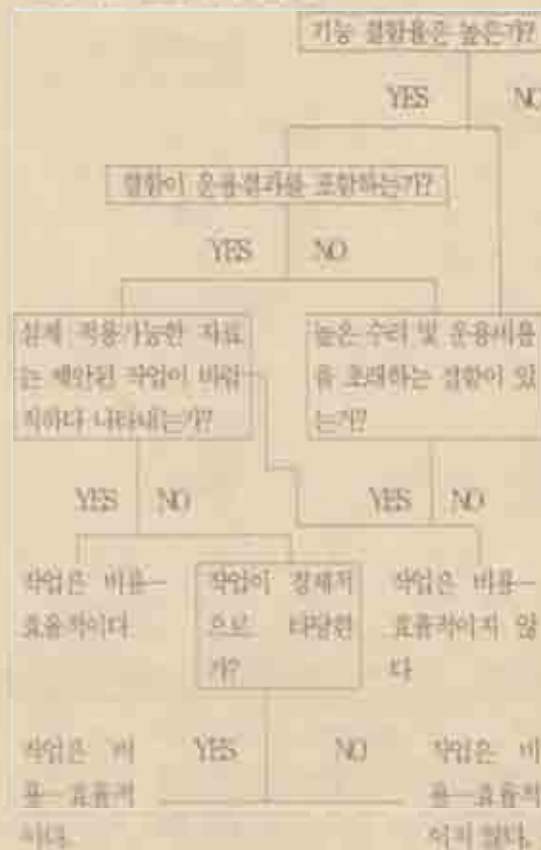
그다음 단계는 여러 신뢰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조직화 및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동시에 예방정비 프로그램의 형성에 적합한 접근방식을 개발하려는 시도였다. 기초적인 의사결정 다이어그램(DECISION-DIAGRAM) 기법이 1966년에 고안되었고 1967년 6월에 그것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 "ALAA 민간 항공기 설계 및 운용 회의(COMMERCIAL AIRCRAFT DESIGN AND OPERATIONS MEETING)"에 제출되었다. 이 기법에 귀하는 방법은 정비 작업의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본(HANDBOOK)에 구체화 되었고 이들은 새로운 보잉 747항공기에 대한 도입 프로그램의 개발을 감독하도록 구성된 '정비 문제 그룹'에 의해 실행되었다. MSG-11정비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MAINTENANCE EVALUATION AND PROGRAM DEVELOPMENT라는 제목하에 1968년 7월 발간된 교본으로써 747 정비 조정위원회에 의해 준비되었고 초기 계획정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최초의 결정 다이어그램 개발이기도 하다. 그 동안 다음과 같이 진행된 문서가 RCM의 완화에 근거한 최초의 개발 상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FAA의 특별 요구에 의해 사용되었고 또한 보잉 747 상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위사결정 다이어그램 기법 (RCM 분석시 결함에 대한 적절한 작업을 결정하기 위해 결정과정을 도표로 나타낸 것) 초기 형태 : 플랜(1)의 이름이 계속 향상되어 이것이 2군수에 두번째 문서 MSG-1과 MSG-1 결상 다이어그램의 개발형태로 항공사/제작사 정비 프로그램 계획문서-AIRLINE/MANUFACTURER PROGRAM PLANNING DOCUMENT 즉 MSG-2라는 제목하에 발전되었고 RCM 기법의 성공적 역할을 했다 : 플랜(1)에 구체화 되었다. LOCKHEED 1011과 DOUGLAS DC-10 항공기에 대한 개발 정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MSG-2가 이용되었고 이들 역시 성공적이었다. MSG-2는 전술 군 항공기에도 적용되었다. 그 밖에는 LOCKHEED S-3, F-3, McDONNELL F-4J 등은 항공기에 대한 것이었고 유럽에서 개발된 유사한 계획이 AIRBUS INDUSTRIE A-300과 CONCORD는 최근에 항공기에 대한 초기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었다.

유종의변서도 가장 어려운 사건에 성공되어지는 상이의 최대 안전도 및 신뢰도를 보장하는 개발 정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MSG-1과 MSG-2에 나타난 기법의 주체되었고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 얻은 결핵치 기능(BENEFIT)의 이해를 보임. 전통적인 정비 절차에 있는 DC-8 항공기에 대한 초기 프로그램은 DC-10 프로그램에서 2배되는 대조적으로 25% 증속도에 대한 정비 문제점까지 요구했고 이후

결정 다이어그램의 예<보기>



● 높은 결함 : 정비의 계획적인 활동으로 인해 초래된 결함의 강제적 결핵, 수리 비용과 결함된 운송 능력, 복구에 드는 비용을 더한 것.

의 프로그램에서 더이상 문제점까지 한계에 속하지 않는 결핵결함의 하나는 10만 여건 기록만 이었다. 결핵에 대한 계획 문제점까지 결핵은 '노동과 자비미움'을 강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핵 SHELTER 정비시 노조로 결핵한 데에 결핵 결핵 50% 이상 감소시켰다. 보잉 747에 보잉 747에 대한 MSG-1 프로그램하

서 유다시티드 항공은, 최초 운항당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인 20,000시간에 도달하기 전, 구조 기증 결사에 의해 60,000인사수만을 소요했다. 기존의 정비정책(MAINTENANCE POLICY) 하에서는 더 하고 된 복잡한 DC-8 기종 구조 결사하는데 4,000,000 인사를 야기할 소보되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다수의 정비 결비를 정비하는 곳에서 비용절감을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 신뢰도 앞에 아무런 약점없이 이러한 비용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로 정비한 장비의 결함을 확실하게 파악하면, 잠재 결함(POTENTIAL FAILURE)이 나타나는 부분에 예방작업을 직접시킴으로써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MSG-1, MSG-2가 수준 1의 정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혁신을 이루었지만 다른 종류의 장비에 대한 이들의 작용은 장비의 전문성과 기타 요소에 의해 제한되었고 어떤 개념은 형식은 완성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함 결과의 평가 대신에, 결함능력은 제각각 작업의 평가의 질에 시작되었다. 도입된 INTERVAL의 한계문에는 세기 되어 있었고 장비기능 결함이 공에는 불만이었으며, 이 중 장비의 신뢰도 불충분했다. 장비가 장비에 투입된 후 초기 프로그램과 정비출력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정의 수중에 필요한 운송정보도 없었다.

따라서 기초가 되는 많은 결함들을 분석의 한 필요 및 필요 모든 결함들이 논리적 결함의 다음 과정으로 구체화된 관리적인 과정 즉 RCM의 문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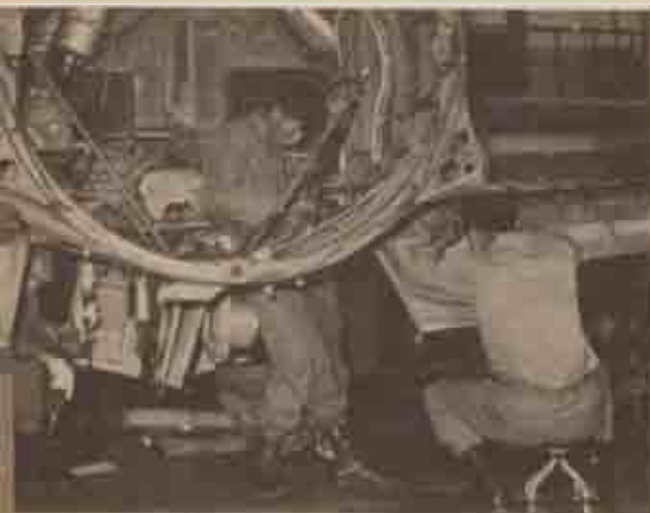
신뢰도 중심 정비의 기본 개념

신뢰도 중심 프로그램은, 이들이 보호체도와 잠재된 장비의 특정한 신뢰도 특성을 바탕으로 산출된 결함의 계획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함능력은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품들은 연방하는 결함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결함은 다른 결함보다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다. 특정 결함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들은 장비 작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 특정 결함의 결사는 물론 및 결함된 장비의 교체에 따라 좌우된다. 비록 이 장비가 작동되는 환경이 보통 추가요소가 있지만, 결함에 미치는 결함의 영향과 운용준거에 대한 이들 결함은 결함 심각도에 의해 우선적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결함 결과(FAILURE CONSEQUENCE)는 최우선적인 고도 결함수업이다.

물론 장비 LEVEL에 주요 결함이 많은 결함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예방관리에 드는 비용이 이로부터 과잉된 이익을 충분히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이 결함은 보강될 수가 있다. 결함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생각때까지 이들 결함을 장비 상태에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된다.

이와같은 대부분의 결함들은 그 발생 일시에는 승무원에게 알려져 나타나고 그 결함들은 수리를 위해 정비사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몇몇 결함들의 결함은 승무원에게 나타내지 않는다. 비록 잠복기능(HIDDEN FUNCTION)의 결함 일부 수명을 승무원에게 알려져 나타나지 않는 지능(불안)으로 인하여 손상이 직접적인 결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의 결함의 결함의 결함으로 교정되지 않은 고도 결함은 결함 전에 결함을 노출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잠복기능이 내포된 결함들은 예방 정비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원가를 필요로 한다.

컴퍼 프로그램 개발의 첫단계는 자원의 크기로 판단하게 다룰 수 있는 초기보 문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항목들은 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요 항목이란 그 항목의 결함이 운을 앞장에 영향을 끼치거나 경제적 결과(ECONOMIC CONSEQUENCE : 승무원에게는 명백히 나타내지만 안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능 결함의 결과 : 옮김)를 내포하는 항목이다. 주요 경제적 결과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비의 운용능력이 손상을 가져가나 많은 수리비를 초래하게 된다. 동시에 작동기능을 가진 모든 항목들은 문제가 있어 왔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요 항목과 더불어 자라 해 분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 그 자체는 이들 항목의 각 결함유형에 대한 상황결과와 평가와 더불어 시작됐고 이를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한 논리는 4가지 결함결과를 낳는다.

1. 장비와 그 부품들에 대해 위험 요소를 줄 수 있는 한

선결과(SAFETY CONSEQUENCE : 병이 안전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능 결함의 결과 : 옮김)

2. 수리비와 함께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내포하는 운용결과(OPERATIONAL CONSEQUENCE)

3. 수리비용이외에는 경제적 손실이 없는 비운용 결과(NONOPERATIONAL CONSEQUENCE)

4. 몇몇 다른 부문의 다중 결함으로 인해 생긴 장비의 여러 결함을 포함한 항목기능에 의한 결함

만약 그 결함이 필수 기능의 손상 또는 위험적 2차 손상의 결과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결함을 예방하는 모든 장비가 있어야 필요하게 되고 만약 장비능력에 결함 위험성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이 불독은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결함이 승무원에게 명백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 될 수 있더라도 짐작가능을 충분히 감응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모든 경우에 결함 결과는 잠재적으로 예상치 못한 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양을 나타내기 힘든, 장비의 잔류·선박의 방향·고대사항을 주 목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군사 장비 결함의 경우이다.) 그러므로 함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에 대해 필요로운 비를 효과적인 만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즉 예방할 수 있는 비를 이들에 예방하려고 하는 결함의 교정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커야 한다.

◎ 정비작업의 선택

예방작업 작업의 종류에는 단지 내리지 불량이 있고 이들 미작은 일련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지워진다.

- 장애결함을 발견 및 교정하고 나아가서 기능적인

결함요인을 미리 알아 낼 수 있도록, 특정사항에 잘못을 점검하는 방법

— 어떤 특정 운송 시거나 그 이전에 기능적 결함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잘못을 찾아 검사하는 작업(제 작업)

— 어떤 특정 수명의 한계나 또는 그 이전에 기능결함(FUNCTIONAL FAILURE)을 예방하고 결함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부품의 일부 및 잘못을 제거하는 작업

— 이미 발생했지만 승무원에게 행패의 나타나지 않은 기능 결함을 특정사항에 발견 및 수리하기 위해 잠재가능(HIDDEN-FUNCTION)을 점검하는 작업

최음의 새가지 작업형태는 단일 결함의 예방에 직결되고 내면에는 다중(MULTI-FAILURE) 결함의 예방에 직결된다. 장비로부터 잘못을 발견하지 않고도 일반적으로 점검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반면에, 제작업 및 폐기작업은 일반적으로 잘못을 정비장으로서의 잘못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

RCM 프로그램의 생각은, 이 새가지 유형의 작업을 어느 것이 주어진 잘못에 대하여 유용하고도 효과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잠재결함(POTENTIAL FAILURE)에 대한 점검은, 잘못이 잠재결함 상태에 있는지의 성의를 가늠해 하는 신뢰도 추정을 대표하는 경우에만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수명제한 작업도, 이것에 작업된 결함의 운용연한(OPERATING AGE)에 관계없이 경우에만 유용해진다.

효율성은 작업성장의 척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기준은 작업을 통하여 예방치도 및 설계된 결함결과에 좌우된다. 예를 들면, 계획된 작업이 모든 결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유용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이 결함들이 안전 결과(SAFETY CONSEQUENCE)를 내포하지 않는다면 미효율적이라고 고려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그 목적에 오는 기능적 결함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기본 작업의 특성 및 이것의 관련 해결능력과 각 작업에 대한 세부적 적용 기준들은 RCM 책자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명확한 작업순서를 만드는 동시에 의사논리에 의해 계획된 작업의 정기를 가능하도록 한다.

○ 작업 주기 - 정보 문제(INFORMATION PROBLEM)

RCM 분석의 기법을 이용해서 예방 정비 프로그램에 어떠한 작업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이 피상논리는 어떤 작업의 주기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안전한 수명(SAFE-LIFE) 주기 작업들에 대한 주기는 제작자들의 개발시험에 근거하여 수립되므로 보통 변하지 않는다. 나머지 수명 제한 작업(AGE-LIMIT TASK)의 작용은 정비가 정비에 들어간 후 수행될 것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주기는 그 당시의 실제 운영자료에 근거한다. 그러나 예방 정비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재 결함(POTENTIAL FAILURE)에 대한 ON-CONDITION 점검(현재결함을 탐지하기 위한 계획점검 : 통간이거나 이질두 상태의 상태 및 수명단구의 진행률)이고 해도 최소 비용 주기(MINIMUM COST INTERVALS)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보통 부족하다. 초기 프로그램이 개발자만을 당시 유용한 정보는 보통, 손상 잘못에 대한 이전의 경험, 제작자의 설계 일부에 대한 지식도, 개인 정보 그리고 새로운 장비에

대한 피로 시험(FATIGUE TESTS)등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정보로써 장비의 노후가 정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추측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프로그램에서 정밀 추가는 이러한 시기들의 도지 한 부분에만 고집되었는데 재차 각기 정황이 달라진 새로운 재료 및 제작 기법이 사용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장비가 운용되었다면 그 한 부분은 시기특성(AGING CHARACTERISTICS)에 대한 과도한 탐구를 요구하는 상황 수도 있다. 이러한 초기의 보수적 경향이 최초로 장비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에 대한 장비의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매우 제한된다. 그러한 상황은 항공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검사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적절한 INTERVAL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ON CONDITION 점검의 원칙은, 점검의 실제 증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초기 점검 시간이 짧아야 하고 반복 점검이 주기는 실제 상황 단계에 따른 어떠한 부분도 기술 점검이 발생하기 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짧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최적 주기를 수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품의 실제 점검 시기의 실제 변화율을 감지하는 수명연구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시기가 정의되면 불타고 중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불타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수정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부품에 대한 증가된 점검 주기는 그 부품의 신뢰도 추정이 결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수명된 증대된 장비에 들어가는 시기(예측)에 의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의 정량화(TAXATION)에 장비 사용기간을 늘려 새로운 수명 연구 요구도를 가중시키는 것은 구상적(관련된) 재가 재량에도 간섭한다.

○ 설계와 정비구의 협력

설계와 정비구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미래에는 정비장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보다 높은 단계의 안전과 신뢰도를 이룰리라 예상된다. 설계기구(DESIGN ORGANIZATION)는 기술 선택의 결과 및 결합예상 가능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장비의 고유특성을 결정하는 한편, 정비기구(MAINTENANCE ORGANIZATION)는 장비가 확실하게 내포할 수 있는 안전과 신뢰도의 확인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실현에는 항상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설계자는 계획장비의 능력과 한계를 항상 이해하지 못했고 더우기 정비조치는 그들이 보유 유지하는 장비에 대한 설계목표를 항상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상호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하고 DESIGN에 의해 요구된 책임은 분자에 의해 이러한 원동력은 더욱 밀접해진다.

PRIOR-TO-SERVICE 프로그램(선 장비가 정비에 들어가기 전에 행해지는 계획장비 업무: 출고 시의 예방점검, 기술 및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품과 작동기능의 인식은 이 절차에 대한 작업자의 지식 뿐만 아니라 정량화자에 대한 설계자의 필요에 좌우된다. 이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형태에 대한 정보도 설계자로부터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ON CONDITION 점검은 기술적 결함에 대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오히려 장비로부터 불량을 인지하지 않는 실패에서도 이들 점검이 처음 기술적으로 설계자는 이러한 점검이 윤곽에 될 수 있도록 불미직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까 아니다. 그 조사대상 불속에 대한 몇몇 접근방법이 없다는 것도 보강해야 한다.

일단 장비가 정비에 들어가면, 실제 운용조건 하에 있는 각 부품의 실제 및 성능에 관한 정보 흐름이 있게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정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도가 불충분하다고 일정한 품목에 대한 재공 제안(REWORKING IMPROVEMENT)을 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운송사의 수량·착구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기능상의 차이는 재공 제안에 필요한 시드라이 정보를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새로운 설계된 장비대의 몇몇 품목들은 재설계 직후 정비에 들어갈 때 종종 결함률이 매우 높으며 설계·형식사서의 상호작용은 모든 결함장비에 대한 정상적 개발주기(DEVLOPMENT CYCLE)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설계자의 도움은 제작과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의미가 있다. 이 경우에 설계 변경요소들이 운송 항공기내에서 개발 및 통합될 때, 여러 문제를 조절한 일서 장비 작업의 고난을 위해 설계자는 장비자구와 협력해야 하며 이 두자구는 결함 제거나증을 규명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재설계에 의한 궁극적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정비 장비 업무의 재발을 방지하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효과적인 정비와 고유 신뢰도 확보에 핵심은, 서로 각자의 문제, 특히 눈앞에 익숙한 설계 장비 자구 및 이종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에 있다.

○ RCM 응용의 확대

항공 운송 사업에 있어서 RCM이더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 항공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종류의 산업 장비에 대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산속-운송 장비, 연료, 저장 차량들에 관한 많은 형태의 문제해결과 정비 새로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조차도

장비와 장비사이의 관제기·명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경우 운송기운 자체로도 제법 장비의 설계 능력과 제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결함에 의한 운송 중단 및 안전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정비 설계자의 고유 신뢰도 문제를 어떤 형태의 예방자구도 해결 할 수 없었으므로 RCM이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켜줄 재공-중-전 및 주정 장비 작업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있다.

일반적으로 RCM제비에 입각한 어떠한 정비 프로그램도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정비 고유 인간도와 신뢰도 수준을 보장
- 결함 발생시 장비의 고유수준으로 복구
- 정비 비용, 자원 비용, 운송 결함의 경제적 결과와 포함한, 최소 비용으로 이들 목표를 달성

이들 목표에 대한 장애물은 예방 정비의 전통적 개념, 특히 계획 검사가 보편적으로 정비 장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다. 따라서 정비자구는, 장비에 대한 상세한 RCM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



통 준비에 앞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인식하여야 한다.

- 정비 일정 요소는 예방 비운뿐 아니라 어떠한 기능 결함의 결과도 수용해야 한다.
- 충분한 준비는, 장비 기능의 완전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안전 결과를 강력히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설계 요건이다.
- 계획 정비는 공복의 기능 결함 빈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으나 결함을 바꿀수는 없다.
- 계획 정비는 각 공복의 고수 신뢰도의 현실화를 보장할 수 있으나 통제 차이를 가질수는 없다.
- 정비 장비는 신뢰도 문제를 해결해 줄 계획 정사에 대한 적절한 시기만 존재하지 않는다.
- 현재 결함에 의한 기능 결함의 양자를 가능에 하는 ON-CONDITION 점검은 예방장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계획 정비 프로그램은 진동해(DYNAMIC)이어야 한다. 어떠한 PRIOR-TO-SERVICE 프로그램도 예방된 장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운용 기구는, 장비의 정비수명(SERVICE LIFE)을 통한 실제 자료의 수집 및 대응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배를 개안이라는 것은 모든 인장비에 대한 개발 루트의 일부이다.

일반 운용 기구가 이러한 요소들에 익숙해 지면, RCM프로그램의 상세한 개발과 더불어 나아갈 준비를 갖추게 된다. 최종적인 프로그램은 정비요소에 필요한 모든 계획 작업을 포함할 것이고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일화에 필요한 작업만을 내보이기 때문에 주요 결핵적 일정을 제공한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장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계획 작업의 결정적인 수명 탐구 작업을 적용시킴으로써 궁

극히 결과는 정비 기술 능력과 그에 걸맞는 고수 신뢰도를 가진 장비의 완성이 될 것이다.

○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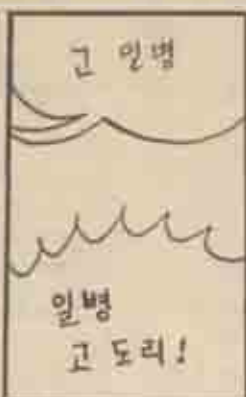
상기 저술된 논문 미국방성의 회파에 의해 미국 UNITED AIRLINE의 정비 프로그램 계획 담당 책임자인 HOWARD F. HEAP와 동 항공사 정비 분석 국장인 F. STANLEY NOWLAN에 의해 공동 저술된 보고서(판명: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MIA 903-75-C-0349)를 번역한 것이며 이 RCM 제자는, 직상지는 리를 정비 장비에 대한 계획 정비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용한 정비 다이어그램 개발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결함의 체계적인 고장 및 판단, 그리고 특정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정 정보는 그 결함에 장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복에 관련되어 어떤 정비 작업이 허용 가능하고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1부는 RCM이론에 대해 모든 기본적 개념들과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고 2부는 항공기 제동, 동력장치 및 기공유로 부하의 결함을 조대로 인해 파르레이막인 분석을 설명한다. 또한 실무에 필요한 일괄-정비업무의 문제점,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요구치 관리에 필요한 정보 체계 그리고 계속되는 동적 과정(DYNAMIC PROCESS) 일부분으로서 운용자료와 사용 등이 차례로 기술되어 있다.

향후 발전에 걸처서 이 논문은 구조부분이 밝혀져서 소개될 예정이며 비록 원 판국의 항공기 정비 상태와 다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정비 관리자 및 상부관료와 관소에 항공기 장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치마를 안입는 이유

문고림: 조석현 (제2권 72호)









패트리엇! 과연 걸프전의 영웅인가?



김 군 본 부
준장 이 회 우

서론

걸프전이 진행되는 동안 스킵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패트리엇의 활약을 TV를 통해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마치 전사오락을 입천을 통해 즐기는 듯한 가벼운 쾌감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현대 첨단병기의 전승을 맛보았다.

이같은 TV의 과포효화는 걸프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 열영 빛을 못보았을지도 모르는 패트리엇을 일약 걸프전의 영웅으로 끌어 올렸으며, 걸프전 승리와 함께 그 빛이 더욱 빛났다.

그러나 걸프전이 끝난후 서서히 패트리엇에 대한 평가 작업이 시작되면서 패트리엇을 둘러싼 군말이 걸프전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본 글에서는 그간 매스컴, 잡지 및 신문들에 나타난 패트리엇의 관련 발언을 정리 분석하고 향후 대응도란 미사일의 발전방향 및 관측예언을 곁들여 보고자 한다.

명중율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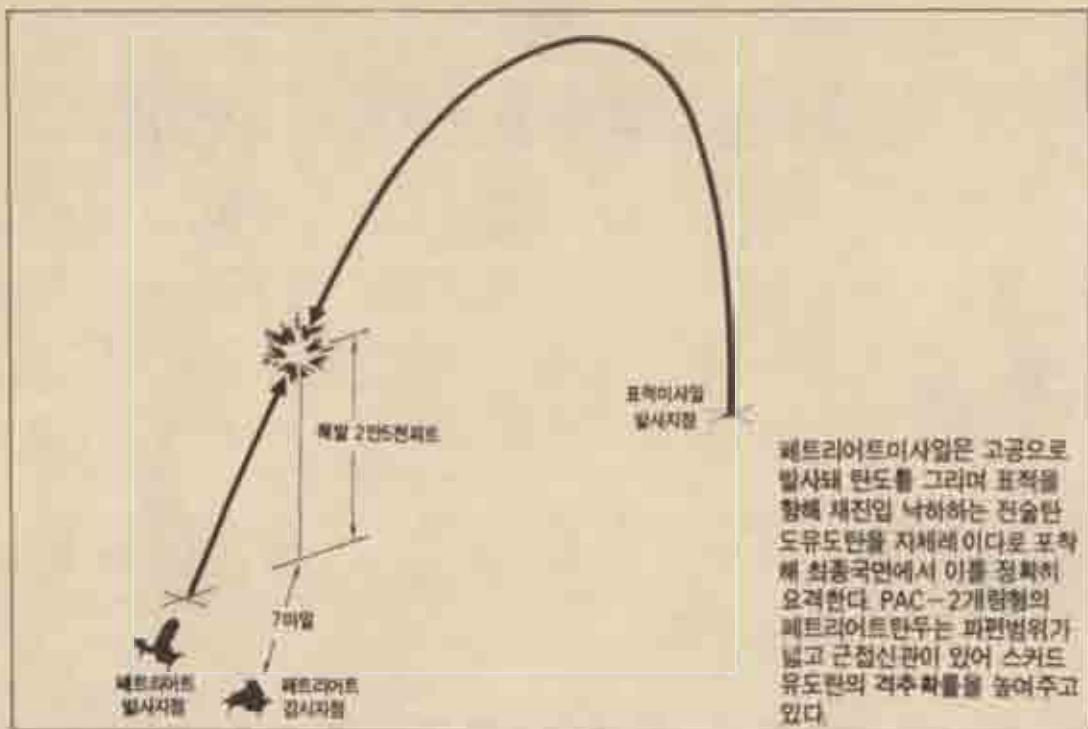
걸프전 기간중 발사된 스킵드 미사일은 총 99발로 이중 4대는 이스라엘, 4대는 사우디로 격파 조준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패트리엇의 명중률에 관입된 스킵드는 73개이며, 이에 맞서 패트리엇은 모두 13

발로 이중에는 살수로 우군기에 발사된 1발이 포함되어 있다. CNN 뉴스를 통해 TV에 나타난 요격장면은 이때 발사된 패트리엇중중과 일부에 의해 연출된 것이며, 각각의 발사 케이스에 대한 요격결과를 상세히 설명한 보고서는 현재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패트리엇의 성과에 대해 호의적인 미육군의 발표에 의하면 사우디로 발사된 스킵드의 경우에는 70%, 이스라엘에 발사된 스킵드의 경우에는 10%의 명중율을 기록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반면에 패트리엇 반대의 신통장려인 MIT의 물리학자이며 한국왕실 고문이었던 Pestol 씨는 하버드 대학에서 발간하는 저널 (International Security)을 통해 패트리엇의 명중율은 15-35% 이하이며 전투 (Warband)를 정확히 명중시킨 확률은 0%일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아울러 TV를 통해 방영된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정밀분석한 결과 일부는 오판로 발사 직후 땅으로 떨어졌으며, 대부분 수백미터 하일로 스킵드를 스치거나 있음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자료수집을 계를리 한 미육군을 비판하였다.

이스라엘도 패트리엇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텔아비브 대학의 교수이자 자넬리스 브인 Rausen Pedatzur는 그의 분석을 통해 패트리엇이 발진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제이긴 하지만 실제 스킵드의 탄두를 요격한 패트리엇은 한두대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과학자 및 군사 전문가들은 패트리엇의 한두요격 성공율을 30% 이하로 결론지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주장에 대하여 미 리버트 대학의 Zwick 교수는 또다른 시각에서 패트리엇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패트리엇이 전투에 입은 오차를 허용치 않는 조건일 무가이어야 함을 감안할때, 10



5%의 병충율은 대단한 기록이며, 10~50%의 병충율이 사실이라면 이는 위대한 성취라는 주장이다.

문제점 분석

페트리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소한 방어범위에 있다. 애초에 유도탄보다는 항공기 요격을 마하임으로 써 적어미어(Zone Defense)가 아닌 점방어(Point Defense) 개념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비행장과 같은 협소한 범위의 군사시설 방어 방어에는 적합하나 패도 시와 같은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는 적합치 못하다. 이와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Maury 전투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번 걸프전에서 페트리어트 요격을 받은 12대의 스킵 공작에 의한 피해가 페트리어트 도차관(초형 11대, 12대의 스킵 공작에 의한 피해보다는 컸다는 보도로 입증되었다. 즉, 스킵의 요격고도가 낮기 때문에 정확한 투두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차피 표표자면 근처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둘째로 지적되는 것은 캐프리어트의 이론이다. 즉 캐프리어트의 자제론이다에 의해 답변 및 추론이 가능

하지만 국내 실제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으로부터 90초
이전에 스텔스 탐사정보를 획득 하였고 그 외에도
JSTARS 및 조기경보기로부터 사전 탐색정보를 활용
하면서 추종효과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는, Postal 교수뿐만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의 Perry 교수가 지적한대로, 페트리어르는 스케드에 할
 작할 수 없는 디코이(Decoy)에 의해 쉽게 기만될 수
 있으므로 디코이 관습에 대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한다
 는 것이다.

컴포지에서의 스커드 무리화적인 성공의 주요인은 페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한 효과이다기 보다는 공중작전에 의한 스커드 발사대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공군과 해군은 전쟁종료까지 총 2,493 척의 스커드 사냥 전담임무로 할당함으로써, 초전 10일간은 매일 평균 6기의 발사대, 다음 13일간은 매일 평균 1기의 발사대를 파괴하였으며, 작전 후반에는 어틀스커드 발사대를 좀더 높은 반면 모든 목표 공격함으로써 스커드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특히 이스트영의 탠버페르와 사우더의 리마드를 사냥거리에 놓고 있는 스커드 저지함 및 중순타미엄기 때문에 이들 사냥의 위험은 크게 감소한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발전전망

걸프전 후 패트리어트의 제작사인 미국의 레이콘사는 즉시 성능 개량에 착수하였다. 1992년개발정 제자를 목표로 개발되는 "PAT III"는 패트리어트를 레이다의 탐지거리 증가와 미사일의 추종거리 대량으로 요격 고도를 두배로 증가시킴으로써 항위급할 면적을 10배, 발사할당 공간을 30배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다거리 탐지기를 장착함으로써 기존의 반능동 추적방식을 반능동 및 능동추적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전자방해에 대한 방어효과와 성공률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패트리어트의 호강고도보다 4배가 높은 30마일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Arrow 미사일의 체계개발을 진행중이며, 고고도 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무인기를 이용하여 발사된 스킵스를 조기탐지 대기권 진입전에 잘라낸 원거리 미사일로 파괴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미국의 SDIO(Strategic Defense Initiative Organization)에서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인 AIM-120(AMRAAM)을 개발하여 유인기에 장착한 후, 스킵스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요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스킵스가 발사후 상승하여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속력의 1/3으로 속도가 희고 많은 제위산을 방출하기 때문에 요격이 쉬운 반면, 대기권을 이탈하여 잘라 증속되는 단계에서는 요격이 어렵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군에서는 싸움이 많이 드는 패트리어트를 대신하여 가능한 한 향상되는 무기체계의 조합에 의한 스킵스 대응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즉, Condor 이라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에 고강도 적외선 탐지기를 장착하여 스킵스 발사를 탐지 후, F-15 에 의해 쏘아낸 AIM-120을 발사 추적 파괴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결론

패트리어트는 최초의 대유도탄 요격미사일로서 이번 걸프전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방출열, 방어효과 및 운용상의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성능 개량과 병행하여 획득비용이 고가인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방식의 대유도탄 방어 무기체계 및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0년 이내에는 성능 및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우수한 대유도탄 방어 무기체계가 나타날 전망이다. **공군**



참고문헌

1.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April 13, 1992
2.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April 27, 1992
3. Air Force Magazine/April, 1992
4. Jane's Defence Weekly/April 25, 1992
5. Defense News/April 20-26, 1992
6. Defense News/April 27-May 3, 1992
7. '임대 항공무기체계'/1992년 11월 공군 교재형 발간예정

왜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되었나



김 군 부
홍익 윤 문 현

이승만의 반공사상은 그의 정치생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의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점으로 되었으며, 후일 외교면에서는 지나친 정도로 대미외교 일변도라는 크나큰 모순을 낳기도했다.

그렇다면 이승만의 이러한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나 이제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그가 이러한 사상을 갖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없는것 같다 그러나 단지 그의 이러한 사상의 발흥이 가능했던 몇번의 계기를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이는 독립이후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도 대충되어 있다. 「내가 미국에서 있을때 보스토크에서 한한 소리를 들으면 나는 반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직업을 만났으나 나 자신은 소련에 대하여

마음의 감정이 없다.」 따라서 그의 생애속에서 그러한 사상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발자취를 추적해 보기로 하였다. 첫째로 그의 반공사상 형성의 중요한 계기를 하나는 시대상황에 따른 독립협회에서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승만은 사암의 중역이 됨으로 변하여 조선에 밀려오던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안군 늑대봉에서 가난한 양반가문의 9대 독자로 태어났다.¹⁾ 그가 태어난 다음해인 1876년에는 일본의 삼봉원 병창주하에서 나온 새로운 국교 요구로 병자수도조약이라는 불평등조약을 맺었다. 그는 아서원 조선이 외세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의 같이 태어났다. 또한 당시 조선의 정력은 외국을 배후로 작기를 고쳐나가려는 조외 개화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²⁾ 따라서 그는 미천시절부터 처세의 할아바치에 대한 저 관심이 짙을수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이승만의 조선에 대한 공포와 적대감을 갖게된 시기는 1890년대와 러-일전쟁 직전인 그가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30대였던 그는 주변 몇몇들이 한민도 독립을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것을 직접 체험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항하여 신문과 독립협회를 통해 민족자결운동을 커크적으로 추진하였다.³⁾ 당시 독립

출) 1) 서울신문, 1945. 10. 22일자

2) Hiram T. Oliver, *Synonym Blue: The man behind the myth*(New York: Dodd Mead & Co., 1964)와 같은 전언에서 보. 최영규, 「세 사람 이야기」(서울: 글오름출판사, 1989).

3) 이창시, 「러지마는 조선에 보인 민족운 다음과 같다.

- 1890. 7. 10. 러가 만주(滿州) 동청화대유지 및 서단장원지회기 요청 거함.
- 1890. 8. 10. 러공사 대표는 공작과 정변로 밀려와서 수백 100명을 일일거함.
- 1897. 4. 12. 러공사는 서지 및 압주(압주)를 차지할 목적으로 (압주)를 (러가).
- 1897. 10. 러지마는 부산, 평안도에 식민지(식민지)를 설치하려다 각국 공작을 당하여 퇴각.
- 1898. 3. 1. 한-러(韓露)전쟁이 일어남.
- 1898. 5. 20. 러공사, 세로에 독립지를 거함.
- 1903. 6. 17. 러-일-독(露日獨)전쟁이 일어남. 공작을 당하여 한도, 평안도를 이관(利權)을 차지함.
- 1903. 8. 10. 러지마 공작이 서북(西北) 만주(滿州)를 (러가) 차지함.

현회는 1879년 서해안이 미국에서 돌아와 조직한 것으로 국·영분으로 독립신분을 발간하여 국민들을 계몽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법정들의 천막이목을 공격하였다. 또한 독립협회는 1898년 2월 2일 서울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환호운동의 내막을 폭로하고 러시아인 알렉세예프 대장교를 군지교관의 부당성을 규명, 러시아인의 국권침해를 계속 규탄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며, 동년 3월 22일에는 러시아와 부산 협정도 조처반대성소를 독립협회 125명의 이름으로 승인 입사했다.³³⁾

또한 여기서 특징을 다나지 국민들이 직접 정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위한 만민공동회를 열어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러시아 영향권에 세워진 만·러분쟁이 계속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경호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³⁴⁾ 이등반 뿐만의 말에 의하면 이때까지는 을지로 앞 이갈래와 전방한 관제를 갖고 있었으며 독립협회와 이어서 일어난 만민공동회에 가담하여 연방의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황제로 하여금 궁궐로 들어가 러시아와 일본의 간섭을 받게하는 민족적 정책을 세운 것을 적당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음에 고종이 만민공동회와 연방에 따라 한지 한 현대 국외로 많은 중추권 기관으로 입성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승만은 이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때 러·일전쟁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고종을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었는데 고종은 러·일 양국이 주고 받는 공과 잡았다.」³⁵⁾ 그리

러한 표현은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아욕을 똑같이 혐오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한편 그러한 표현은 러·일본병적인 일본과 러시아가 한민도 완충지대 삼치 및 분할안(39°선)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당시 한반도의 독립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제 1의 적국은 소련이라는 「소련정계론」과 일본이라는 「일본정계론」의 대외관계 논의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로 제기되는데, 한국의 근세 100년사에는 러시아를 가장 위험한 제국주의 세력을 경제라는 대외인식 이 같게게 존재하여 왔다.

제외기에 많은 개화파는 「러시아정계론」을 믿는 일 중이었으며, 이승만 역시 독립협회의 사원으로 청소년기때부터 러시아 침략을 경제라는 변리사학적 현실을 받아들였다.³⁶⁾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승만과 한민당의 위마반소노선은 개화기에 임박해 되어있던 「開國」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청·일전쟁때 세워진에도 한반도에는 「아시아정계론」을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노·일전쟁 중에는 「러시아정계론」과 「일본정계론」 사이에서 확실한 판단을 못내리고 방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정계론이 한국인의 사고의 대외자세를 결정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아욕을 논리적으로 드러내어 한국인이 일본의 패권을 뒤늦게 깨달은 이후부터인 것이다.

따라서 제 1의 적국으로된 일본의 지배에 대항할 수

33) 1901. 5. 13. 러시아군 12,000명이 해주부근에 진주함.

34) 1902. 5. 15. 을지로 이갈래안찰의 경우를 정부가 폭구.

35) 1902. 3. 25. 러시아가 200명씩 을지로에 분파하여 포대구축.

36) 1902. 5. 12. 러시아인 압제관 독재하에 압입.

37) 1902. 7. 8. 한중·일정계론에 러시아의 안전을 가장하고 을지로에서 요구함 (황수교구, 한국정부지부).

38) 1902. 5. 10. 러시아인이 을지로 건축하는대 대하여 항의함.

39) 1902. 10. 20. 을지로 포대를 독립파에 대하여 말함.

39) 「한·러관계 100년사」 한국사연구 협회편, p.398.

40) 최정호, 「제 한민족사」, pp.398~3.

41) 이광수(1901) op cit, p.182.

42) 고정환, 「개화기 대한민국의 사상형성과 활동」(1875~1904)

역사학보, 제 109집(1989년 3월), 역사학회, p.32.



있는 길을 미국의 도움, 즉 한미노란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이러한 판단과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황성환 것으로 본 이승만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난징정화 여부를 지닌 러시아를 직접 무력으로 격퇴하고 간주하고 있었으며, 그후 일본의 무시와 대립점을 아슬아슬히 넘겨 버릴 비관과 함께 만일 두 경우를 관망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후 미국에서의 학문연구 및 생활을 통하여 한미일 미구중심의 국제정치 질서에 의해 더욱 반동적인 태도로 굳어질 것이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정복계획에 대한 확산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승만은 해방이후 종종 레닌주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한국전쟁 후 레닌과 스탈린이 세계정복을 위한 전쟁 계획을 갖고 있었다. 즉 이승만은 1953년 6월 25일 4·25전쟁 제 5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썼다. “이오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해산시킬 레닌과 스탈린의 언젠가 공산주의 정복을 위한 가장 신비한인간 수단으로 조직되어 있던 관용에 있다고 있다. 무엇보다

나도 먼저 레닌이 1920년에 다음과 같이 말한바를 상기해 보자. “첫째로 우리는 동구들, 그다음에는 아세아 전체를 침략해야만 할 것이다. 그후에 우리는 자본주의의 최후의 야심인 미국을 포위하고 파괴시킬 것이며 미국은 드디어는 전쟁도 없이 자니히히 익은 과일처럼 우리의 손으로 떨어지고 단맛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채택한 기본적인 전략계획이며 그 계획을 그들의 국제외교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나치 5년동안 그 계획을 포기하거나 또는 약화되기는 커녕 지금 실제로도 실행의 도를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또한 1955년 7월 7일 INS지하의 간도리건에서 미국의 침략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나와 미국국민의 일부 지도자들에게 잘못이 없는 소련과의 협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였으나 그들은 나쁜 길로써 귀를 거꾸로하여 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세계정복에 대항하여 투쟁한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지금에 와서 우리는 피해를 보기 시작하였다. 레닌과 스탈린이 예언한 세계의 정복은 아직도 수행되고 있으므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유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외에도 이승만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의 세계정복을 위한 9개·조항에 열광한 후라도 지나쳤다. 오랜 세월을 미국에서 생활해온 이승만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은 만우 개·소생한 천의 거침을 러시아 혁명에서 찾는 학자들의 견해를 감히 감히 용서로써 더욱 이해될 수 없었다. 즉, 이·소생전의 원인과 러시아 혁명에서 찾는 대표적인 논자는 바로 레닌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러시아 혁명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러시아 혁명이 전의 사회혁명 시대에서 1917년 세계의 모든주의자들에게도 수용되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에게 허물되지 않을음을 지적하고 그 전의가 아니라 뿌리깊은 것만가게 사하였다. 유구연도 우리가 넓은 학비에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유구연에

주) 8) 동아일보, 1946. 6. 27일 10.

10) 동아일보, 1955. 7. 27일 10.

의하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좌파적 반향은 분명하고,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의 막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정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측 지배층의 태도 차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후 일관된 것이었으며 그것은 서구내에 혁명운동에 대한 공포,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적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러시아혁명을 특히 고안대선 실패후 서방의 자본주의제국을 소련을 세계혁명의 원동으로 보아왔던 것이다.¹¹⁾ 미국의 경우도 소련에 대한 반감과 적의 때문에 루스벨트행정부 이전까지는 다소 분화된 성격으로 일관했던 것이다.¹²⁾ 이는 다음에서도 알 수 있다.

1943년 5월 이래 스탈린은 소련의 (獨斷)력이 본질에 빠지게 되자 영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하여 특별히 영서북대륙 국제공산당의 조직을 세우는 전략을 폈다. 즉 표면적으로 그들은 「제2차 대차전(大戦)의」과 코민테른의 각종 작부조직을 취소하고 코민테른 정보국(Comintern)을 따로 결성시킬 것으로, 국제공산당이 세계혁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목표와 정치조직을 영국의 다 끌어내리고 독자 공산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기관임을 남겨두는 것처럼 가만히 영국과 미국의 지령을 유심히 지켜보고 가는 작전을 폈었다.¹³⁾

따라서 이승만의 반공사상은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질서 이유에 대한 확산에서도 통찰되어야 할 수 있다.

세째는 이승만이 소련을 혐오하고 반공(反共)반도르 나가정권 계파에 대한 불타의 주장이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방문으로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본세력에 신뢰가 있을 때부터 호소와 최고 동정을 얻는 일이 생남한 운동과 기부를 망라자 그는 1932년 동부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팽창

을 견제하려면 소련의 힘을 빌릴 필요성을 느끼고 모스크바를 방문한적이 있다. 그는 중국외교관의 도움으로 소련의 비자를 받아 모스크바에 도착하였으나 한 소련정부 관리가 나타나 비자를 대준것을 사부작으었다고 하며 즉시 소련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은 평소 차츰삼아 강한 이승만으로서 소련을 좋게 받아들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일면적으로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승만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 즉 그는 관습안배와 같이 이전부터 소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그의 차츰삼아되고 직관적인 성격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정도 그의 반공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네째, 이승만이 노골적으로 반공노선을 나타내 것은 김태백김영철에서 미국이 한국의 지배를 일본으로부터 소련에게 넘겨주기도 했다는 다음태백의 확산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이승만은 1945년 4월 미국이 알라바마회담에서 한국을 소련통제하에 둘것라는 협정을 맺었다는 정보를 소련공산당에서 탈퇴한 한 소련인으로 부터 제공받았으며 1945년 4월 14일에는 이러한 정보의 내용을 미 상·하의원 몇몇에게 폭로하였다.¹⁵⁾ 이 사실에 대해 임병직씨는 그만한 중산당을 세운 한 소한사람이 우리 구미위원회(Korean Commission)를 찾아와서 일화에 대한 대담협정이 있는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을 세력화 전쟁후 말후까지 소련 세력하에 두되 그 동안에 일·미 양국은 한국독립에 대하여 아무 공한도 없었다」라는 것이었다.¹⁶⁾

그러나 이승만은 그 이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승만은 1943년 4월 「World Affairs」지에 국무장이 한국의 임시정부를 다른 나라

주) 11) 최정호, 「냉전통찰의 재평가」,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p.32.

12) Ibid.

13) 朝鮮日報 「서방외교주파의 한·중공동맹설」, 경향신문, 1977. 10월호, p.32.

14) Oliver, op.cit., p.122.

15) Oliver, op.cit., p.22.

16) 임병직, 「이만사, 이승만을 찾아서」, 월간중앙, 1968, 호, p.108.

의 방백정부와 구별하여 유독 한국의 임시정부를 승인
치 않는 이유를 일제의 주도배려가 주이므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이 이러한 임시정부를 승인하면 대일전에 소
련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이 소련의 감정을 해치지 않을
까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고 토론했다.¹⁷⁾

그 이후 이승만은 전쟁예를 일본의 한국 점령에 대
해 투쟁해온 자신이 이제 소련의 지배를 용인하여 일
생을 마칠 수는 없다고 하면서¹⁸⁾ 미국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공산주의자의 타협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 이승만의 판단이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것 같다.

실제로 알타이현에서 루스벨트가 스탈린에게 대일합
전을 조건으로 한반도 지배를 제시했다는 공식기록은
없지만 이 비밀협장에서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따로 만
나 토의하는 과정에서 루스벨트는 천후 미·소·중·
영이 감복하는 한국신박동치안을 제시하였으며, 러시아
가 한국에 부동항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제화와 자유화 상황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고 한다.¹⁹⁾

이에 대해 올리버는 당시 미국이 한국을 대일전쟁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한 재단본으로 이용하기로 결정
했다고 말하고 있으며,²⁰⁾ 루스벨트는 천후 한국을 합치
신박동치토록 하려는 영국과 미국양국의 주장은, 사실
은 일찍부터 그들 두나라 사이에 결성된 정책이었다고
말하며 그들은 불행히 소련의 눈치를 살피고 벌어들여
한국을 교환조건으로 하여 소련으로 하여금 대일합전
에 참가토록 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 실례로 루스벨트와 이는 영국외상은 카이로회담 이
전인 1944년 3월의 회담에서 천후 한국을 국제
신박동치토록하여 대소교섭의 외교도구로 삼으려는 의
도를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그는
1943년 6월 장개석의 부인이 워싱턴에서 루스벨트와

회담한 후 밀제신에게 타인 보고한 글 가운데서 그와
백시 중·미 양국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기로 이미
동의했던 회담의 주장이 재차하여 한국을 공동으로 국
제신박토기 하려는 뜻이 있었음을 간파했다는 것이며
카이로 회담이 끝나고 중국·미국·영국의 고위관료들
이 카이로산언 조약을 두고 토의할 때 당시 영국측에
서 주장안을 제출, 「카이로 산언」 회담에 「한국을 일본
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말로 「한국을 하나의
자유, 독립의 국가가 되도록 한다」고한 구절을 고치자
고 주장했는데 당시 중국대표인 왕 카이징은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²¹⁾

그후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는 소련이 대일
전에 드릴할 경우 두브란 대일합이 소련의 복원 질령
에 곧 동의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²²⁾ 한바다로
당시 미국은 소련을 대일전에 끌어들이기 위해 소련이
바라고 있는 제가 무엇인가를 포착하고 한심양세를 관
찰한 것이다 몇가지 사실은 이미 가늠설을 더욱 뒷받
침해 준다. 1944국은 한일합방당시 제트-가스카일
약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한국은 미국
에 이주된 가치가 없다고 용기라고 있었다. 12미국은

주) 17) 이승만, 「민권 이문집」 (서울 : 민권당사, 1968), p.102.

18) 박정구(20), 「이승만」, 박문 : 434.

19) Foreign Relations (1945), pp.354-361.

20) Robert Oliver, 「대가는 이승만」, 서울 : 1979, p.467.

21) 田嶋謙, 「서방 외교정책의 변 - 중일전쟁을 중심으로」, 1977, 10월호, pp.334-5.

새로 창설되는 유엔에서 소련의 협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미국은 한국을 소련의 의도대로 말치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으로 국가 사상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는 것은 중국을 위상국가화 한 것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모종의 약속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승만을 당시의 어려운 미·소관계로 보아 그렇게 추리하여 믿었을 수도 있었다. 이같은 유엔 창립 총회 당시 중국 대표단의 한 사람인 쑹닝푸의 보고에 의하면 창립총회 당시 한국 임시정부대표로 참석했던 이승만은 그곳에서 행했던 반소운동을 벌였는데 그는 임정대표의 명의로 권 "일타회담의 비밀을 공개하여" "미국 민주당 정부는 소련과 결탁하여 한국을 소련에 할양하였다"는 내용의 반소전단을 만들어 대회장 내외에 살포하였다고 한다.²²⁾

그후 강대국의 권력정치를 잘 간파하고 있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의도대로 순순히 움직이지 않았다. 추전이 압박되어감에 따라 미국주심은 한국의 민주주의 각 세력으로 하여금 「한국통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와 원조가 있었는데 일종의 공산주의와 연립정부를 의미하는 이 위원회 구성을 이승만은 반대하였다.²³⁾ 이승만에 의하면 공산주의와의 연립은 한국을 궁극적으로 소련의 지배와 조종을 받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내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이승만의 반공사상의 형성배경으로 그가 미국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보아 왔으며, 4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국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승만은 다른 정치지도자들과는 달리 그의 활동무대가 미국이었다.

따라서 어린시절부터 미국 민주주의를 동경해 온 그 보시는 미국 그가 사람은 한국인이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미국인이라고 해도 부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승만에게도 미국의 태소 직여는 별다른 거부감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는 그가 국제경험으로 얻은 반소관철과 함께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승만의 반공사상 형성배경을 추적하여 그 요인을 대략 다섯가지로 요약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을 형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없었던 것 같으며 단지 그의 성장과정에서 경험과 학문적 지식 그리고 사회적 배경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공론

주) 22) 최일영, op.cit., p.23.

23) 김성옥, 「도로 / 달을 50여년에 바라보다」, 월간중앙, 1998. 8월호, pp.57~8.

24) 최일영, op.cit., p.34.

한국전쟁과 공군전(1)

R.P. 하리온 著

이 원 복

군사문제연구소 발행

TF 77 고속함모부대 한국전 참가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했다는 뉴스는 워싱턴과 서방 세계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다들 한 일로는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내각,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단호한 행동을 취한 것이었다.

6월 25일 유엔은 북한이 청타병력을 비난하고 절전을 권고했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합동참모회의의 권고를 받고, 한반도에서의 침공이 대반까지도 위협하는 대강보커인 행동의 일부일 경우에는 대연해협을 봉쇄하도록 제7함대에 말했다.

6월 25일의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에 있는 비단칼디에 이어 미국의 관세적인 동향 자위하에 유엔군을 편성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사회에서 이러한 결타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대표가 다른 문제로 인해 이사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6월 25일에는 미 제5공군의 F-80 야간전투기와 F-80이 남침해 온 북한의 YAK기 및 IL기와 고전하여 미군의 피해는 하나도 없이 북한 공군기 2대를 격추시키고 있었다. 이후 수일동안 F-80도 전과를 올렸으며, B-29기의 기공을수까지 참가하여 북한 공군기의 처수수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북한군의 병공격과 한국군의 혼란 속에서의 후퇴가 계속되고 있었기에 해군 항공부대도 전투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스트리플 중장 휘하의 제7함대의 함정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함대에 분산배치되어 있었다. 일본 주변 구역의 전미은 순순양함 4척, 구축함 4척, 소해정 6척과 소규모의 잠회함정부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호스킨스 소장이 지휘하는 제3 항공모함 부대는 필라핀의 스페크함을 중형, 오키나와로 향하였는데 이부대는 제3함대 항공모함, 순순양함 1척,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될 것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어 얼마되지 않은 이때, 전쟁이 한국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는가의 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함모부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해놓고 전세의 흐름을 보는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 이 함모부대에 항공모함, 경순양함, 구축함 2척으로 구성된 영국 해군의 본진부대가 합류했다. 미, 영연한함대 제7함부대+공적부대(후에 TF77 고속 함모부대로 개칭)가 편성되고 스트리플 중장이 사령관이 되었다. 극동지구 해군사령관 조어중장, 유엔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 극동 공군사령관 스태트 메이어 중장 등 8명의 사령관들은 TF77에 북한의 평양과 주변의 비행장, 철도조차장, 그리고 교량 등에 대해 항공공격을 카이기로 이미 참의를 끝내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 7월 1일, TF77은 닛을 올리고 오키나와를 출발하여 황해로 향했다. 한국전쟁 해군전(海軍戰)의 초기에는 아직 대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가 여러가지 있었다. 우선 황해바다는 공산국측의 비행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공모함부대가 공산국측의 맹렬한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비외 동시에 함수함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계가 필요했다. 또한 또 다른 종류의 비행기를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TF77의 제5함대항공군의 편에는 제트 전투기, 그라일 F8F 2개 비행대와 프로펠러식의 전투기 F4D 코트 제이) 2개 비행대와 프로펠러식 선형 공격기, 피글라스 AEX스카이라이터) 3개 비행대 등이다.

한편, 영국 함모 프라이업트에는 제4의 1과 스카이라인 M537 비행대를 편제하고 있었다. 제4의 1은 대형의 폭격기로서 주로 대함전공격과 대잠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스카이라인은 전신적으로 별기(名機) 스피트파이어를 해군용으로 개조한 전투기로서 전투장공조

제(CAP)와 함대 항공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면서 무지적으로 공격에도 사용되었다.

평양비행장 최초 공격

7월 3일, 날이 밝기 전에 양국 함포에서 발진한 서바이버와 미 함포에서 발진한 12대의 해군 비행정공작에 나섰다. 이렇듯 2대의 함대가 적표를 향해서 비행하고 있을 때 제9함대 항공군(CAG5)에서도 평양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부대의 발진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위해 미오르기 서카하와 보랏나와 북한을 합체한 AD 12대와 F4U 16대가 차례로 발진하여 상공으로 올랐다.

이 함대가 220킬로미터의 보스를 따라 목표에 거의 도달하고 있을 때 피어팅 51(VF-51) 8대도 발진했다. 제9 함상 전투기로서는 최초의 발진출격이었다. 속도가 빠른 F4U의 앞선시지는 공격부대가 평양 상공에 도착하기 직전에 비행정을 기습적으로 퇴거 있었다. AD와 F4U를 요격할 가능성이 있는 적의 전투를 백업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양비행장 상공으로 진입한 VF-51 조종사들이 눈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남쪽 1천2백50미터의 함포에서 다수의 YAK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것이 보였다. 그 중에는 서부전 나머지 바주보는 발함으로 활주하는 비행기도 있었다.

비행정의 사면이 닿을 정도의 고도에서 레오나드 프록그 중위는 적기의 후방으로부터 접근하여 순식간에 프로팩터 비행기와의 간격을 좁혔지만, 서카하에 도달하기 직전에 좌측으로부터 다른 적기가 폭박해 오는 것을 발견했다. 적조종사의 공격대에는 한척만 것으로 보였다.

보나 눈앞작합 사이에 YAK의 후미로 E·W. 브라운 소위가 날라붙어 30미터 거리로 40으로 음속·공격을 가해 적기의 꼬리 부분을 날려버렸다. 브라운에게 구출된 조종사가 자기 복판에 대해 기권으로 마차 호스에서 떨어지고는 몸을가지칠 사격을 가하자 적기는 공중분해가 되어 자살으로 재단이 흩어졌다. VF-51의 모든 비행정 상공을 낮은 고도로 날면서 무방어한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권고사를 거했다.

한편 AD와 F4U 함대는 연안 지역에 흔히 있는 한방 전선의 난기류를 통과하여 맑은 공역으로 들어가 평양을 향해 상입하기 시작했다.

비행정 상공에 이르면 하등대비 출격하는 수대의 YAK 전투기들에게 차례로 자명등을 인가주었다. 공격한 후에 보니 적남고 4등과 근처에 있는 철도 조차장에서 같은 연기와 함께 출연자가 과열로 치오르고 있었다.

공격부대와 호위인 VF-51은 모두 부사비 격렷했으며 이날 오후에도 다시 평양에 공격부대를 보내 철도 구출상을 공격하여 기권과 15을 이상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다음날에는 전란 공역에서 순례를 준 철도 및 철교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미·영 연합함대가 출격했다. 결국 스카이라이더가 3배비속으로 복원을 부탄하여 그 함교의 코사스를 하나를 완전히 파괴하여 장악으로 떨어뜨렸다.

항공모함이 있는 상공으로 되돌아 올때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진행한 이날 자정 마지막에 중대한 착함사고가 발생했다. 중세로 30미터 거리로 40으로 음속·공격을 가해 적기의 꼬리 부분을 날려버렸다. 브라운에게 구출된 조종사가 자기 복판에 대해 기권으로 마차 호스에서 떨어지고는 몸을가지칠 사격을 가하자 적기는 공중분해가 되어 자살으로 재단이 흩어졌다. VF-51의 모든 비행정 상공을 낮은 고도로 날면서 무방어한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 착함사고는 한국전쟁에서 해군 항공부대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었다. 프로팩터 비행기 사고도 적지 않았지만, 손상을 당한 제트기의 착함사 또는 조종사가 진입고도를 잘못 잡는 경우 큰 사고를 내기가 쉬웠다. 제트기로 구성된 어느 비행대에서는 착권을 시작한 최초의 한달동안에 착함사고가 부러 5회나 발생했고 다음달 전달 동안에도 23회나 발생했다. 이런 다발적인 사고와는 대조적으로 이 비행대가 처음으로 입은 피해는 기관총탄에 의해 동맥에 뚫인

구명하나 뿐이었다. 그리하여 조종사들은 「도대체 누가 우리의 적인가?」하고 묘한 기분으로 사로잡혀 있었다고도 한다.

원산 정유공장 폭격

조기와 세트기는 연진의 추력이 부족했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고양력 장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성능에 여유 폭이 적어 사소한 악조건이나 과실로도 중대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런 성능의 한계, 연료소비가 많았던 당시의 연진, 파괴가 유달라 높은 이주역에서 항공모함이 상하로 침하해 동요하는 등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보면 조종사들이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지 이해가 간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고도 적지 않았다. 어느새 비행모에 착함하려고 한 어떤 F9C는 진입고도가 너무 높아 어느 세동책에도 폭이 걸리지 않아 세동방울 직접 기수로 들보 나가 바다로 떨어지기 직전에 VF-51 2대를 차례로 브라프리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리 대가 파손되었다.

이러한 사고에서도 목숨을 건진 행복한 조종사도 있었다. 한 조종사는 그의 비행기가 갑판 후단을 치고 중재활주를 하면서 화재를 일으켜 불타오라 되었는데 콕 부분이 굴러 떨어졌다. 물론 중상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그후 완강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영국 해군이 사면 갑판을 제압하면서 상황은 변하였다. 사면 갑판에서는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착함할 수가 있었다. 만일 진입고도가 너무 높거나 세동책에 폭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다시 착함을 시도하기 위해 출력을 높여서 이륙하면 그만이었어서, 이 방식과 훈련강화에 의해 착함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7월 중순경까지 명공을 계속한 북한 공산군은 남으로 100킬로미터 이상이나 진격했다. 한국의 육군부대는 동세를 상습한 채 후퇴만 거듭했고, 미 제24사단은 명백, 훈련, 장비의 부족상태인채 한국전선에 투입되어 적의 남침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진격을 잠시 저지시켰을 뿐이었다.

한편 북한 공군은 유엔 공군부대나 지상군 부대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한 사례를 거의 보아고 있지 않았다. 출격을 해도 싸움에서 이기고 귀환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의 조종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후퇴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미군의 병력증강을 위해 파운은 포함에 미 제1기병사단을 상륙시키는 작전을 실시했다. TF77은 평양 공습작전을 끝낸 후 오키나와로 돌아가 있다가 다시 출항하여 동해로 향했다. 상륙전 지원임무를 적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수월하게 달성했으며 기병사단이 전투 전개를 해자 북한군의 진격속도가 둔해지기 시작했다. TF77의 조종사들은 별도의 목표를 찾아 떠돌았다.

북한의 원산정유공장은 공격할 가치가 있는 목표였다. 7월 18일 아침,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VF-51 7대가 북한 동해안의 무장정찰에 나섰다. 원산으로 진입한 조종사들은 쉽게 정유공장을 찾아냈고 어떠한 항공태세도 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공격부대 조종사들에게 있어서는 값 있는 목표였다.

이날 오후 늦게 CAG3는 VF-53의 코르세아 10대와 VA-55의 AD 11대를 발진시켰다. 코르세아는 5인치 고속공중발사 로켓탄(HVAR) 8알과 20밀리 기관포탄을 한도량까지 탑재, 그리고 AD는 로켓탄 2발, 450킬로 폭탄 1발, 225킬로 폭탄 1발을 탑재하고 있었다. 코르세아와 스카이라ider 편대는 살인 방법처럼 추종을 불허하며 정유공장 상공으로 진입했다. 공격은 저장탱크와 정제시설에 대한 로켓탄 발사로 시작하고, 다음으로 폭탄무하를 계속했다. 편대가 참수할 때 정유공장에서는 오랜저세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는데, 목표에서 1백킬로미터까지 남아있는데도 높이 치솟고 있는 검은 연기가 보였다. 정유공장은 4시간이나 불타오르며 정제세공 1만 2천톤을 소실했다고 한다. **◆◆◆**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공인된 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 이는 발명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궁금증이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한 바 없었다.

이에 필자는 11만여명의 발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끝에 발명이 기법을 창안한 바 있다. 그런데 필자가 찾아낸 발명기법은 이미 국내 공인을 거쳐 외국에까지 뿌리를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을 읽으면 당장 발명을 시

물건과 방법이 아닌 이미 있는 물건과 방법들을 서로 더하면 되는 아주 손쉬운 기법이다.

따라서 그것이 무슨 발명이나고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 글을 읽는 것을 잠시 중단하

다가 되어 매우 편리하다.

이 밖에도 냉동 접을 냉장고, 보온 접을 밥솥, 시계 접을 라디오, 장식 접을 전등갓, 목걸이 접을 시계, 만년필 접을 라디오, 지고리+차마=원피스, 방치점용 장도리, 책장 접을 책상, 필터달린 담배 등등 온통 다하기 발명투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 버린 것들을 한발 앞서 더하여 발명가가 되고, 또 그 발명품이 상품화되어 큰돈까지 벌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더하여 새로운 기능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 모라. 방법도 마

영연동, 발명교수

발명에도 기법이 있다.



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 발명은 더하기도 발명이 다이다.

수학에서는 $1+1=2$ 또는 $1+2=3$ 을 담은 하나 뿐이고, 또 정확하다.

그러나 발명에서는 다르다. $1+1$ 의 답이 1배일 수도 있고 1만일 수도 있다.

발명의 기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더하기 발명이다. 글자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물건+물건 또는 기법+발명이 그 전부이다. 그것도 새로운

고 주의를 살펴보자.

연필+지그=세우개 달린 연필의 발명은 미국의 가난한 화가였던 화이만을 세계적인 발명가로 성공시켜 놓았다.

전화기의 수화기도 예년에는 파로파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해져

한가지 그것이 곧 발명이다.

2천 2백여 건의 발명을 하여 한국의 에디슨으로 불리우는 한국발명학회 신석균 회장은 ‘버리핀+라디오=아리핀 라디오’의 발명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발명을 전 세계에서 준 대상을 수상했다. 버리핀도 라디오도 모두 신화상의 발명이 아니다. 신화상은 다만 두가지 물건을 더했을 뿐이다.

눈을 크게 뜨고 주의를 살펴보자.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더하기 발명의 대상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배기도 발명

세상에는 배서 못다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발명은 재미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1988년 「발명, 위길 길님」의 승라라는 발명의 기법을 접한 뒤 발명가 성공사례집을 쓰면서 발명은 실로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었다. 그저 10여년간 실패자로서 억한 화제와 원고 작성에만 열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뜻을 알았다. 발명은 사값을, 아니 대부분의 사값을

사본트 블록은 2~3개의 구멍이 있다. 이는 구멍이 없는 블록에 몇 개의 구멍을 낸 것인데 그 구멍안쪽의 공간은 사본트의 양을 적게 쓰이게 하여 경제적인 한의 효과를 내게 하였도. 더욱 가벼우면서도 수명은 더 긴 사본트 블록으로 발바꿈시킨 효과를 가져왔다.

이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미리밧을 생산하는 사람과 L사는 미리밧의 손자후에 공간(구멍)을 늘려 재료를 30%나 절감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밧은 더욱 잘 관리되

란 것이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편리하고 경제적인데도 잘못된 인식이나 습관으로 쉽게 버리거나 개선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면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일본에 2차에 4만개의 회선문을 3만 회선문으로 바꿔 생산하여 큰 돈을 벌었다. 3만 회선문을 4만 회선문에 바꿔 제작비도 적게 들지만 편리하기도 하여 L사는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배내도 될 것이 아직도 많다. 주선 주변에 있는 것부터 배내도 될 것이 없는가 살펴

“시작도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믿어버리고 포기한 발명이 더해도 되고 배도 된다니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일인가?”

이 시작도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믿어버리고 포기한 발명이 더해도 되고 배도 된다니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일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발명가의 수는 적지만 한 사람의 발명가가 30~50배의 건의 발명을 2~30년 사이에 한 것을 보면 발명은 저절로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발명의 대상은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다.

어려지지 않은 요한일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은 명장을 따라다녀도 건강하고 기업도 위독없는 부서는 없어야 발전한다. 발명으로 그와 비견가자다.

은 두각날 괴일류스 등도 배기 발명의 대표작인 예이다. 이밖에도 유모차는 다이어와 변형없는 난로 등 배기의 기법을 이용한 발명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한다는 것은 이미가지 저말이 생긴다. 사람은 특히 나이가 많아 보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사람이 되다 그후로지만 생각에는 물론 사람들과지도 기존의 것에서 무엇가를 배어 버리는 것과 그의 날카워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 없어도 되는 것은

보내 그것의 무용이진 구멍(공간)을 줄이는 것이든 찾아냈다하면 곧 발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배한다고 다 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는 L의 기술이 떨어지거나 모양이 나빠져서는 안된다. 철저 그 반대야 한다.

크게 하고 작게 하면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도 발명이다. 크게 하면? 또는 5배, 10배, 1배에 1배에 등으로 확대하면? 이것도 발명으로 발명가들이 많이 의존하는 기법 중의 하나이다.

무엇인가 무가하면? 줄 더 사람

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최수를 늘리
면 좋게 하겠지? 다른 기계를 부가하
면 좋겠지? 서로 겹치게 되면? 그
게 가장 좋겠지? 등이 크게 하는 개념
으로 풀어나가면 무엇이든 크게 생
각해 보는 것도 발명가가 되는 지
름길이다.

작은 것을 자꾸자꾸 크게 생각하
는 동안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다. 최근 텔레비전 영화에서의 큰
리수들은 이 기법을 쓰고 있다.

시간을 좀 더 절리게 한 경우는
마쓰시타의 내셔널 랩스를 들 수
있다.

이것을 5배, 10배, 15배로 간단히

창의를 발라주어 모터를 한군 자동
차를 만들게 한 결과 크게 히트했
다.

또 무엇인가 부가한다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가지 기능밖에 없는 브
이치 있던 것을 두 가지 이상 기능
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프라이머 끝에 라이트가 붙어 어둠
과 어두운 곳에서도 집화가 나사와
준이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도
전세계에서 대용되고 있다.

작게 하는 개념의 발명으로 매우
없다.

발명하면? 소형으로 하면? 작게
하면? 무엇인가 제거하면? 작게 하

라는 것은 제거라는 것이 있어야만
실행되는 것이다.

좁게 하면이라는 생각은 형태만
이 아니고 시간도 포함된다. 현대
인은 누구나 여가를 갖고 싶어한
다. 레저를 즐기려는 것이다. 그때
서 등장한 발명이 인스턴트 차용이
다. 효리를 하는 시간과 수프요술
을 가끔씩 줄이고 그만큼 백가를
더 즐기게 하는 것은 식음 재의
혁신 선언문에 실렸어기도 하다.

다들 비싼데 예로는 짭는 우산이
라는가 없는 책상 같은 것도 작게
하면이 절라이다.

“작은 것을 자꾸자꾸 크게 생각하는 동안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한다면서요? 생각한 것은 붉은 날
의 바느질이었다. 그는 드디어 3배
의 전전적화 3배근하는 3배전구
를 이용하여 30시간을 전하는 저
유명인 내셔널 랩스를 발명하여
10만개다 팔았다.

작게 하면의 경우는 마루에 모이
서의 마루적가 앞방한 모터를 한군
자동차를 들 수 있다. 대발명 원군
자동차는 3배에 달리지 못하였
다. 이것을 20배나 30배를 달리게
할 수는 없을까하고 생각한 것은
붉은 날의 마루적였다. 당시 일본
제일의 노무라 요이라는 원군회사
가 그에게 2만엔과 공상 한복 귀

한? 가볍게 하면? 본발하면? 좁게
하면? 등 수없이 많다.

“작게 하면이라는 생각은 최근
수요자들의 취향이기도 하다. 따
시 트래지스터 라디오는 더욱 작아
지고 텔레비전도 7인치 밖에 안되
는 저수 작은 것이 등장했다.

또 작게 하면에서 작은 관목식계
가 전등이 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제거 하면은 발명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동작성면에서도, 작업
면에서도 동작성면 철저에도 나
비하고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는
것이 첫번째 주안이다. 즉, 단순화

대발명과 소발명

나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도 발
명이다. 이것은 착용발명이라고도 하
는데 최근 들어 아주 많이 이용되
고 있는 기법 중의 하나이다.

나의 아이디어를 빌린다는 것은
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속한 기
법으로서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
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너무 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발명이
아니와 모방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언문에서는 나의 특허를 모
방하는 것을 합으로 금지하고 있
다. 그러나 나의 아이디어를 빌려

서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은 길러 하고 있다. 실용신안법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특허 등록되어 있는 기술아이디어도 이를 보다 좋게 개선하면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소발명으로 절충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 예를 함께 살펴보자.

일본 무카이사 & 사장은 「백리를 먹으면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쥐를 쫓아내는」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같은 원리의 「바퀴벌레를 쫓아내어」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같

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강조해 두건데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응용의 원형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도리어 원형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에서 왜 가까워질 수 없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낼 수 있다.

「바네라」라는 말은 일본어로 보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바느질(刺子)이라는 작업에서는 남의 것을 잘 모방한다는 것을 일대미

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여기 제니지의 제미 법칙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가로 성공하려면 특허법에 관한 책을 만권쯤 읽어두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남의 아이디어조차 응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명가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응용한다는 것의 잘못을 할 재가 있었다. <계속> **둘째**

<한국발명특허협회 홍보과장>

“강조해 두건데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응용의 원형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은 일본인! 오오노씨는 어란사람에 「과리가 됨으로 죽는 권리가 주어」를 모고 후일 그 아이디어를 빌려 「바퀴벌레가 쫓으면 죽는 권리가 주어」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이처럼 발명의 세계에서는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에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한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은 발명성이 없는 복제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크게 권장할 것은 못 된다.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이 성공하는 데는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바네라」라는 발명이 붙여져 있다.

바느질하면 뽕소뽕 발명 회사로 제화한 이래 오노노 씨에 의해 기업 중의 하나로 크게 성장했으며, 발명만을 주로 전담하는 개발 부에 1명의 이상의 연구원이 있는 대기업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전제적인 모방」=남의 아이디어를 빌린 발명에서 비롯된 기업이다.

따라서 발명을 위해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응용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 일어난지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명명자에게 배를 치지



군대생활과 만화의 활용



임 현 신

청산국제만화연구소장
국립중앙대학교
만화예술과 교수

60년대

중반 나는 최전선인 비무장지대의 치피(G.P)에서 미군과 함께 자유대한을 외친 일이 있다. 1958년 사법학교 시절에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의 독자만화단을 통하여 만화계에 등단한 나는 만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온갖 열정과 심혈을 기울였다.

미군들이 매일매일 가져오는 스타리프(Stars and Strips)의 만화특집판과 플레이보이(Playboy)와 같은 값지 만화를 실성물체 대할 수 있어서 나의 군대생활은 즐겁기만 하였다. 그들이 인종·유지를 뛰어넘은 뒤에는 반드시 나에게 전내하여서 만화를 스크랩할 수 있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내 권의 스크랩 책을 비롯하여 수 많은 만화 자료들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다.

내가 멋지게 그려주는 만화를 미군들이 좋아하여 다량의 보답이 되었다.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한가지. 흑인 잭(Jack)은 내 만화를 분국에 있는 애인에게 보내 주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했던 일종의 연지와 라이타를 선물로 보내 오지 않는데 제대할 앞두고 휴먼선에서 만난 연인들에게 라이터를 자랑하다가 그만 빼앗기고 말았지만, 지금도 그의 누구의 손에서 자유의 깃발처럼 커릴 라이타 같이 서운하지가 않는 게 재미있다.

그 당시 한국 만화가 지철·윤창·사비로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나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만화의 수준을 가늠하면서 만화의 학문화와 예술화의 길을 걷는데 크나큰 자극제가 되었다. 그런 염유로 나는 1960년 3월 1일 국립 공주전문대학에 만화예술학과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였다. 또한 1962년 4월 29일에는 청산만화예술관을 준공하여 청산국제만화 연구소를 개설하고 만화전시실과 만화자료실까지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나의 군대생활은 만화인생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행운이었다.

원래 만화는 군대와 같은 관련이 있다. 무미건조한 병영 생활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만화는 스트레스를 푸는 열매이며 밝고 열렬한 대인 관계의 윤활유가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만화의 기능과 역할 이전에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군대에서 만화를 많이 활용하였다.

만화의 주요공인 캐릭터는 흔히 인물이나 성격을 말하는데 소인이나 죄수 같은 문학을 비롯하여, 영국·영국·피카·디자인·만화 등의 예술에서 그 작품을 살리고 죽이는 생명체와 같은 핵심 요소이다.

한 2천년전 서양에서 발달된 캐리비는 이집트 왕조에 대한 상징적 표시로 사용되었다. 중세기에는 최군과 야군을 구별하려고 방패와 같은 무기류에 문장을 새겨 넣었다. 즉, 1300년대 십자군원정 당시 기독교도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두고 회교도들과 싸울 때, 영국의 요



크기와 캥구루가 출신들은 배상미와 허창미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항해나 기타 공간에 하늘과 땅에서 용영을 펼치는 동물들이 주로 그려졌다.

근세기에 이르러 근대의 부대 마크와 장갑차나 항공기의 등재에 만화적 캐릭터가 그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항공기의 등재와 항공타에 필한 동물보다는 오히려 귀여운 동물이나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 주인공을 그려 넣었다.



한편,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만화에 의한 상대국에의 증오심 고취와 사탕, 국내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공제품 등 중요한 메시지를 만화로 활용하였다. 독일의 나치는 철권을 수 많은 포스터, 전단, 비파 등에서 상대국의 군대 사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전쟁 홍보 효과가 큰 만화를 그렸다. 또한 이탈리아와 일본도 반연합국 만화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합국측도 저널리와 부속리니,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동맹히 비난하는 만화를 생산하였다. 특히 만화인민화가 최평희에 연합군의 사기를 전파하였다. 무연분라도 연합군의 노력으로 갈수록 전쟁 중에도 아이를 태워 장군을 할상 호수주니에 만화책을 넣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전후 중서 양안방의 냉전 체제에서 사실상 이념의 대립은 정치 선전 만화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59년

서 남북분단의 시련만큼 우리 나라의 만화가들이 어려운 활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북한에서는 장편만을 중심으로 『화산』이라는 만화잡지를 발행하여 체제 선전에 업을 올리고 남침 당시에는 조선미술동맹의 만화부에 필독한 김현웅, 임동은, 최영수 등이 활동하고 비의 피난을 도운 김용환, 김남배 등이 만화를 그리게 하였다.

1953년 남한에서는 국방부에서 발행한 만화주간지 『만화충의』와 육군본부에서 펴낸 『자병만화』 등이 신성한 국보방위를 위하여 귀환·출리는 국군 포수들에게 훌륭한 배제 구실을 하였다. 필진으로는 김성환, 정준은, 이상호, 고영양, 장원기 등이 또한 활약하였다. 일본의 동경에 있었던 유엔군 사령부의 요청에 의하여 김근배, 김희현, 박신규 등이 대미선전만화와 『자유로이』 만화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몇몇 만화가들이 종군작가단에서 하여 국군 살병을 지원하고 반공만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오늘날까지 서울에서 만화 발행본을 발행하여 군인들의 정신 부활과 사기 진작, 그리고 각종 교육 등에 큰 몫을 수행하고 있다.



참소년을 비롯한 군인들은 철유리 등과 함께 가독하다. 이들의 만화작업 가운데 이상에 대한 풍자, 자정으로 부패의 배방, 항거적·사회적·저적 살상, 이거의 이름, 인생관의 확립 등이 대부분 행하나 만화를 통해

며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대는 디자인과 민화시대로 주장하기도 하여 오늘날 젊은 세대를 “민화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소년과 군인들은 “보고 읽고 생각하느라” 할 자에게 보다는 “보고 듣고 느끼는” 상상세계에 익숙하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이야기와 흥미로운 정보,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그림의 민화가 젊은이들의 가슴에 와닿는 것이다. 지금은 다다이즘만 학문을 연구하던 중세기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재미있게 사회화시킨 민화로 권리를 연구하는 중세기가 되어야 한다.

민화가 지질·물상·회화 분야의 대명사처럼 생각되는 오해와 편견이 남아 있지만, 본질한 사실은 민화라는 해체가 본체가 아니라, 나쁜 내용을 다루면 불쌍한 것이 되고, 좋은 내용을 다루면 우람민화기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화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민화로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민화는 무엇보다도 호의적 기질이 중요하다. 고된 훈련에 시달리는 병영생활에서 유가가 풍부한 민화를 많이 감상할 수 있도록 군대 민화를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막대한 국방 예산에서 민화에 대한 투자는 지휘관들의 의욕전환에 있어 있다.

민화는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민화는 어떠한 군사교육 내용이라도 간단·명료하고 흥미있게 민화로

재구성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켜 준다. 각 부대에 배치된 우리 대학의 민화학과 출신 입영자들을 자살하여 활용하면 간단한 해결될 수 있다. 군대 교육은 흥미가 있고 동기가 유발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화로 표현된 교육자료, 학습민화, 교양민화 등이 효과적이다.

민화는 장사문화적 기능이 크다. 청소년과 군인들은 전쟁과 폭력민화, 그리고 도둑과 탈영민화 등을 볼수록 가슴이 불편해지는 통쾌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예술적인 고난 민화를 감상할 때 정신적으로 기분전환을 꾀할 수 있다. 우리 대학 민화과의 졸업자물전을 군부대내에서 순회 전시하면 어떨까 하여 제안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되고 국방이 본분하게 될 때까지는 국방부를 비롯한 각군에서 간접민화를 적극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민화가 어떤 훈련과 어떤 무기보다도 더 커다란 격발을 수행할 수 있스라고 확신한다. **등문**



세계의 주요 음악콩쿠르

중앙일보 문화사업부

이미 1950년대부터 한국인, 북한인, 일본인,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등 한국출신의 음악인들은 세계유명 콩쿠르의 입상을 통해 특유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전세계 음악인들의 주목을 받아온 바 있다. 음악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게 되는 국제음악 콩쿠르는 입상자들에게 명예와 함께 세계적인 음악인으로의 진출을 보장해 주는 무지개 빛깔의 출근길인 셈이다.

물론의 여신 '뮤즈'가 있는 생활신전에서 후천적 음악성을 거두어 온 바 있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콩쿠르는 20세기 초반까지 특별한 중의성이 없었으나 1925년 몬테네그로의 소련국제음악 콩쿠르를 시작으로 루다레스트콩쿠르, 베네치아국제음악콩쿠르, 차이코프스키콩쿠르 등 대량으로 음악 콩쿠르들이 창설되면서 음악인들의 명망 경쟁이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콩쿠르는 10여개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회에 수준을 나타내는 규정이나 기준은 특별히 없다. 다만 엄하나 수준높은 연주자를 배출했으므로, 엄하나 중립적이고 권위있는 입상을 해왔는가도 또한 입상후 어떠한 발표의 무대를 제공해 줄지가 등으로 그 대회의 명성이 결정지게 되었다.

권위의 명성에 있어 권위를 음악인들의 절대적인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는 주요 국제콩쿠르를 살펴본다.



● 차이코프스키콩쿠르

세계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를 기념하여 1886년 창설되었으며 피아노·바이올린·첼로·성악 등 4종목을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 콩쿠르의 특징은 전부문에 걸쳐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이 과반수 이상 주어지며 본선에서는 전곡과 1곡과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1곡을 반드시 연주해야 한다. 출선율의 기호는 1887년 피아노부문 우승의 카슈카나지, 78년 피아노 부문 2위 당선의 프스칼 브라이만, 88년 바이올린부문 우승의 비로리야 블로카 등이 있으며 한국출신으로는 74년 피아노부문에서 정병준씨가 2위, 78년 바이올린부문의 이성주씨가 특별상을, 84년에는 나이반트 김이 6위를 차지하였으며 93년에 열린 제1회 대회에서는 갈라부루에서 최현수씨가 1위를, 엘리자 바이 3위를 차지하였다. 미국에서는 이 대회 1회 피아노부문 우승자인 안 클라리안을 기념하여 클라리안 국제피아노콩쿠르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93년 대회는 일본의 코어너니아가 후원자의 협력을 직면하여 큰 위기를 겪고 있다.

● 엘리자베트 국제음악콩쿠르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벨기에의 엘리자베트왕비가 당시의 뽉바이얼라나스트였던 루제트 이자리를 기념하여 1826년 제1회 이자리콩쿠르를 개최하였다. 그후 2차대전 종파와 함께 엘리자베트국제음악콩쿠르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콩쿠르에는 200여 명의 본선이 있으며 본선 진출자는 벨기에 각지기의 미술관전주를 취리히, 알에서 동자하르로 배치, 연습하며 연주를 해야 한다. 때때다 시험부문이 바뀌는 이 콩쿠르는 심사위원의 수준이 높기보다 정방이 나았으며 84년에는 정병준씨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3년 피아노부문에서 클라리미르 카슈카나지가 1위를 차지했으며 88년에는 바이올린부문에서 소련의 비로리야가 1위를 차지하였다.

● **한일국제음악콩쿠르**

매년 여러 분야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이 콩쿠르의 장상명칭은 「서독일 청장송양에 의한 국제음악콩쿠르」이다. 1952년 창설되어 매년 9월경 뮌헨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 콩쿠르는 피아노, 바이올린에서 클라리넷, 트럼펫, 첼로에 이르기까지 관악기에 걸쳐 순환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통상 3회의 복선을 거쳐 본선에서는 오케스트라와의 합연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장상명칭이 1974년 피아노부문 2위에 입상하여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며 82년에는 조영환씨가 첼로부문에 2위를, 83년에는 사에강씨가 피아노부문에 2위로 입상하여 귀국의 음악인들을 알주시켰다.



● **제네바국제음악콩쿠르**

원헌 국제음악콩쿠르와 함께 매년 다종목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이다. 1939년 스위스에서 창설되어 매년 8월경 개최되고 있으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첼로에서 트리아, 기타, 콘트라베이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목을 개최하고 있다.

1차, 2차예선 대회는 공개라사여름로 하여 본선은 스위스의 로망트 관현악단과 협연한다. 제네바콩쿠르의 특징은 류트브·클라리넷의 참가자가 월등히 많으며 수준 또한 높은 점이다. 주요출신으로는 42년 피아노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게오르크 스타, 57년에 우승한 미크와 아르케르히, 2위 입상한 볼리니 등이 있으며 한국 출하인드로서는 62년에 이경숙씨가 피아노부문에서 3위, 63년 김창국씨가 플루트부문에서 2위를, 71년에는 장영희씨가 첼로부문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은 바 있다.

● **소련국제피아노콩쿠르**

1927 년에 창설되어 가장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소련국제피아노콩쿠르는 20세에 조국을 떠나 언제나 고국을 생각하며 음악활동을 계획은 소망을 기뻐하여 창설되었으며 피아노부문에서는 가장 권위있고 수준 높은 대회이다. 5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1차에서 40명, 2차에서 10명, 3차에서 10명이 선발되어 본선에서는 오케스트라와의 합연으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 콩쿠르는 십사위지만 해도 20여명이 넘는 연주자들은 반드시 소련국악이아이 한다. 67년에는 아르타 아르테의 이기 1등을 하였으며 78년에는 레미 올슨이 1등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66]**

세계의 주요 음악콩쿠르

● 피아노 부문

콩쿠르명칭	개최지	개최간격
리츠 국제피아노경연대회	영국 리츠	3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이탈리 부조니	매년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폴란드 바르샤바	5년
클라라 하스킬 피아노콩쿠르	스위스 베베	2년
CFPA 더블린 국제피아노경연대회	아일랜드 더블린	3년
모베트카사르티 국제피아노경연대회	미국 클리블랜드	2년
루빈슈타인 국제피아노콩쿠르	이스라엘 텔아비브	3년
반클라이번 국제피아노경연대회	미국 텍사스 텍	4년
베토펜 국제피아노콩쿠르	오스트리아 빈	4년
시드니 국제피아노경연대회	호주 시드니	3년
에피날 국제피아노콩쿠르	프랑스 에피날	2년
윌리엄카펠 국제피아노경연대회	미국 웨일랜드	매년

● 바이올린 비올라 부문

콩쿠르명칭	개최지	개최간격
루이스 외포어 국제바이올린콩쿠르	독일 프림버그	3년
리피에르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이탈리 고리자아	매년
시벨리우스 국제바이올린콩쿠르	핀란드 헬싱키	5년
인디애나 폴리스 국제바이올린 경연대회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4년
칼 클레시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영국 런던	2년
쿠르치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이탈리 나프레스	3년
티보마가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스위스 시온	매년
과카니나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이탈리 가리발디	매년
보리스 비윤 국제비올라콩쿠르	프랑스 볼로네	3년

● 지휘·작곡 부문

콩쿠르명칭	개최지	개최간격
키리안 국제지휘콩쿠르	독일 베를린	2년
토스카니니 국제지휘콩쿠르	이탈리 베르스타	3년
프랑송 국제지휘자콩쿠르	프랑스 프랑송	매년
마리호세 마장 작곡콩쿠르	스위스 체네바	2년
고프레도 페트라세 국제작곡콩쿠르	이탈리 베르스타	2년

● 성악부문

콩쿠르명칭	개최지	개최간격
헤르도벤쉬 국제창악경연대회	네덜란드 헤르조겐	매년
프랑 지스코바나스 국제창악콩쿠르	스페인 바르셀로나	매년
빌바오 국제창악콩쿠르	스페인 빌바오	2년
이리암렐린 국제창악콩쿠르	핀란드 헬싱키	
베르디 국제창악콩쿠르	이탈리 무세토	매년

● 오르간 부문

종 류 로 명 칭	개 회 지	개 회 간격
안탈프루크너 국제오르간경연대회	오스트리아 린츠	4년
샤르트르 국제오르간콩쿠르	프랑스 파리	3년

● 종합부문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개회지 : 소련 모스크바 간 격 : 4년 종 목 :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	엘리자베드 국제음악콩쿠르 개회지 : 헝가리 브뤼셀 간 격 : 4년(각 부문 4년) 종 목 : ① 피아노, ② 성악, ③ 바이올린, ④ 피아노
뮌헨 국제음악콩쿠르 개회지 : 독일 뮌헨 간 격 : 4년(각 부문 2년) 종 목 : ① 성악, 첼로, 플루트, 바이올린, 피아노 ②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오보에, 타악기 합악 4중주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 개회지 : 스위스 제네바 간 격 : 4년 종 목 : ① 성악, 첼로, 류트, 오르간
바하 국제음악콩쿠르 개회지 : 독일 라이프치히 간 격 : 4년 종 목 : 피아노, 오르간, 성악, 바이올린, 클라리넷	통티보 국제음악콩쿠르 개회지 : 프랑스 파리 종 목 : ① 바이올린 ② 피아노
비오티 국제음악콩쿠르 개회지 : 이탈리아 베르제리 간 격 : 4년 종 목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등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개회지 : 캐나다 몬트리올 간 격 : 4년 종 목 : ① 바이올린, ② 피아노, ③ 성악
비안디안타 국제콩쿠르 개회지 : 포르투갈 리스본 간 격 : 4년 종 목 : ① 피아노, 바이올린	슈만 국제콩쿠르 개회지 : 독일 트리어 간 격 : 4년 종 목 : ① 피아노, 성악

명사 권히 10 권의 책

과학자는 사회에서 존경받지 않는 자아형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지성을 대표하는 대변자들은 오늘날, 일본에 당면해 고전학기를 권하고 있다. 역사·사상·문화분야의 고전들은 오늘날의 삶과 사회를 보다 깊게 있게 할 줄 아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사론대, 고려대, 만세대 등 장의 권리는 불타서를 소개한다.

• 맥베스/제임스 코어
영국의 대표적 작가 셰익스피어의 16세기부터 17세기 중엽 스코트랜드를 중심으로 주인공 맥베스의 권위권력과 비극적 최후를 그린 작품이다.

• 모비딕/헤밍웨이
19세기 미국의 작가 헤밍웨이 자신의 경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쓰여진 실존적 소설로 동양의 문명사상, 넓은 천장 에너지를 그 노래를 주지하는 줄거리로 꾸며졌다.

•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슈뢰더)
「마르크스학설」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사회주의는 적용할 수 있는가」 등 모두 5주로 나뉘어져 있다. 마르크스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체제로서 사회주의를 폭넓게 소개한다.

• 역사란 무엇인가/조지 카
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기도 한 조지 카의 역사학론서. 전쟁과 미래를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해 과거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유명한 구절이 이 책에 담겨 있다.

• 그리스·로마신화/헤르만 고데
고대 그리스·로마의 전설을 모은 책. 헤르만 고데의 이 책은 고전과 영웅담이 원형된 것에 비해 비교적 쉬운 문체를 사용한 점이 특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계몽서로 쓰여졌다.

• 과학혁명의 구조/토머스 쿤
과학철학자가 쓴 과학철학으로서 20세기 후반 인본·사회·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충격을 던진 문헌이다. 실험과학과 사회과학을 중요시하는 서파는 과학혁명은 낡은 패러다임의 개선이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과 목표를 채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카트 드르
사르트르는 2차대전후 등장한 실존주의의 대표적 사상가. 그의 실존주의는 무신론, 행동적 실천적 성격, 휴머니즘적 특징을 갖는다. 특히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이므로 자신의 존재는 구체적인 결단에 의해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동양사상과 한국사상/윤서은
한국의 전통사상을 주제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입문서. 궁제, 맹자, 순자 및 노장철학 등 동양사상가들의 소개를 통해 한국사상의 바른 자리를 모색하고 있다.

• 심포지움/들라톤
「한편」으로도 소개된 이 책은 서구철학의 뿌리인 동양에 문학작품을 으로는 큰 상가를 지닌 명저. 철학자들의 논쟁을 통해 에르스트(언어)란 무엇인가를 밝힌다.

• 시학/아리스토텔레스
관라론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 카타르시스와 인간의 예술적 충동이 모방본능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주장은 서구의 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글**



心의
타

- 동전저금통
- 알뜰진
군복속의 당신
- 조종사의 길
- 조륙박의 의미

[illegible]

어린 추억 진 30 보 소 의 나 선

오늘도 도시락을 열어 놓고 출근하던 당신의 뒷 모습을 창가로 바라보면서 짧은 한숨으로 모든 상념을 밀쳐 봅니다.

작별의 시간, 하얀 도끼들의 방석이 있고 이슬모를 새들의 노래와 하얀 구름의 지붕이 나를 감싸고 있어.

여기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잠시나마 그저 그윽한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짧게 손을 짚 봅니다.

언제라도 당신과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눠 마시며 우리의 반향을 얘기하고, 우리의 딸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태연히 하면서 장미의 여류를 가지로 걸지던 언젠가 축 늘어져 들어오는 당신의 어깨를 바라 보면서 그런 생각 보단 건알한 우위에 당신을 뒤우고 싶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당신의 품으로 안긴지 몇년과 시간이여 참된 불운난의 생각은지 알았던 일들이 현실로 느껴지면서 갈등과 갈등 속에 걸림 서 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 버릴 시간만은 아깝게 차운 회포를 해 줍니다.

우리는 불난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참문을 타고와 어른인 나의 가슴에도 푸른 활관을 찾아 다리고 일흔의 대기로 활살 날아 있는 저마다 얼굴을 살피며 바라보는 때 밝은 아이의 눈을 볼 때 당신을 향하고, 당신의 책임인 군인이라는 것을 행상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말만은, 우리말만은,을 가슴에 끼치며 숨겨 버립니다.

고 미 애

공군 제 3579부대
 활동사소장 부인



이제는 이런것들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당신의 아쉬운 말 뒤에, 우리도 다음에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거라는 그 말에 거짓일 줄 알면서 작은 위로는 해줍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을 여유롭게 바라 보지 못하는 당신의 아내가 원망스럽지 않은가요? 이런 내가 매일매일 최선을 하면서도 당신에겐 부족함이 표현 못하는 나의 마음을 당신의 무궁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언젠가 당신이 출근 전에 살짝 놓고 간 짧은 자와의 메시지를 또 다시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마에"로 시작해서 "미안해요"로 끝나는 당신의 짧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이 붓도록 한나절을 울어버린 그날은, "나"를 잃어버리고 당신의 아내로서 남기를 원했습니다.

얼마전 인가요? 당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와 딸 유진이를 데리고 모형항공기 대회에 갔던 날 말이에요. 전시되어 있는 많은 종류의 폭탄들과 이를모를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지요. 그 무서운 것들을 관리하고 반지고 있다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간성으로 당신의 일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할상 비오는 날엔 빠른 회군을 하는 당신에게 후산장사 아내가 된 기분이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지요. 이제는 다이상의 후산장사 아내가 되자 않고 평범한 군인의 아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가 한권의 클래식 음악이라고 느껴졌지요.

어모! 사랑해요.

일찍진 푸른 군복을 입고 현관문을 들어서는 당신의 품에 흐른 그날 안기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우리 딸 유진이가 보냈을 그날 막 웃었지요? 그러면서 유진아도 커온단 당신 품에 안길됩니다. **당은**



조종사의 길

문군 제 5672부대
소위 이 학 물

이제 내가 공군에 입대하여 항공기와 동고공학을 한 지도 올해로 1년이 된다. 참군 4년이 되는 청년공군의 역사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살아온 시간들중에 작은부분이나마 청년공군을 위하여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참군이라 우리 공군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제는 방직장부한 장애공군의 기쁨을 마련하여 신에이 도입, 신장공군의 신철물을 통하여 백악공군의 범모를 비속 공군의 갖추게 되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중에는 군이 필요하다는 자식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군에 입대하여 학종한 군의 사명을 옹호로 애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의 가슴을 안타깝게 할 때가 있다. 「나라의 주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누가 지키겠는가?」 모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이 사는 길이 바로 나라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조국의 화상에 형준을 불태우며 조종사 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바로 이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이러한 공군의 역사와 우리의 임무인 조국방위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배들의 미래안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방직보단(防戩補丹)에 나오는 인내(忍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방직보단(防戩補丹)의 제방(製法)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사장(司長)이 공재(孔在)의 배움을 회독하고 따지를 교할 때였다. 사장(司長)이 "몸을 닦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재(孔在)께서 대답하시기를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이 그 으뜸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사장(司長)이 다시 묻기를 "무엇때문에 참아야 합니까?"라고 했다.

공재(孔在)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때가 있고, 제후가 참으면 큰나라를 이루고, 백승이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화목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보하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맑아지 않으며,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사장(司長)이 되문기를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다.

공재(孔在)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하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고, 백승이 참지 않으면 형벌에 의하여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따로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신으로 하여금 회음에 할 것이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리가 멀어질 것이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군살이 얹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다.

사장(司長)은 그 말씀을 듣고 길게 애단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고도 좋은 말씀입니다. 참기 어려운데여?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고, 참지 못하면 이 또한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대답했다.

인내(忍耐)의 어려움.

이는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으며 어려운것보다도 편한것을 쫓으려하고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아 참으며 생활함으로써 밋어지는 당연한 귀절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위를 자기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대는 자기수단만 가지고서는 모든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사회가 아닌 복잡다단한 분업화, 전문화 및 계층성의 시대이다.

따라서 직분아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조직체가 되고 그것이 모여 이 사회를 이루고 있다. 만약 어느 한 분야에서 실수가 일어났다면 이로 인한 도미노현상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관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비행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사, 정비사, 조종사, 지상요원, 지휘관중 어느 한사람의 실수가 그릇된 판단이 국가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이 국가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근무요원 각자는 자기의 업무와 근무 환경을 판단의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불합리한 주관을 억제할 수 있는 안내(引導)와 상호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종사에게는 인간인 사람보다는 급작된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항공기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소요도, 최소기력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무리한 VFR을 유지하지 말라"등의 무수한 제언이 따르게 된

다. 그러나 후에 조종사에게 귀찮게 여겨지는 소리와 전성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이중 어느 하나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임을 깨닫고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몇년전 일이다. 항공기 엔진, 동자등을 점검하여 여러기지를 정유하여 모가지로 돌아오는 정거장 수일부를 수행하던 중 그날따라 장제물자가 많아 시간이 조금씩 연기되어 마지막 정유지인 ○○기지에 접근할 때에는 임플시간이 가까워졌다. 기생도 VFR제한지 이하에서 FR로 운영해야 했으나 빨리 귀환하고 싶은 생각에 TWR에 TRAFFIC을 확인한 후 EXCELLENCE 내에는 TRAFFIC이 없다는 사실만 믿고 무리한 VFR접근을 시도했다. 이러한 근무속 몇분간 비행이 다에게는 별시간 이상이나 되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느껴졌다. 생각보다는 기상과 시황이 더 나빠 항공로 EXCELLENCE라기 접근해사아 저우 관주로를 확인하고 착륙할 수 없었다. ○○에 착륙후 우리 CREW는 식은땀을 닦으며 "휴—휴"하는 인도의 환송을 내뿜었다.

매일 귀가 이르도록 들어온 "무리한 VFR금지"이말이 그날처럼 가슴에 깊이 차 달기는 처음이었다.

모든 교훈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 한사 팔다지만 조종사에게 그릇된 경험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의 경험을 자주 들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선배들과 같은 그릇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

이렇듯 조종사들에게 금지사항이 많은 것은 비행안전이 선례보전과 직접되기 때문이다. 공군의 존재 의미는 바로 항공전력에 의한, 전쟁 억제력에 있으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비행안전인 것이다. 우리 공군은 현존 전력보전을 통한 권력극대화를 위하여 "최고의 훈련, 최상의 비행안전"을 일대적인 명목으로



고 있다. 따라서 계반규정과 절차의 입수는 비행단원의 생명이기에 우리 가슴에 단 WDG과 더불어 자기 자신과 무단히 싸워 나가자 말하면 안될 것이다.

비행을 생략하고 싶을 때마다 나의 가족을 생각하고 계반 규정을 위반하라 한 때이나 공군을 생략하고 계획되지 않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욕망이 생길때마다 너로 인해 과급된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겠다.

비행을 하면서 사리에 관여하는 우리 공수강산 이디에서나 우리 선인들의 말과 일이 서로 있음을 느껴야 하며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항상 가슴 깊이 간직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 / 국가를 지키는 우리라 사명과 공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된 의미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오늘도 무궁화꽃은 청계천 미소로 우리를 반갑게 맞

아래준다. 우리의 하늘이 있기에 그 힘든 순간도 견딜 수 있었으리라. 배운 전투 비극된 얼굴로 무릎 꿇어하는 하늘이지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비행단원 / 이는 말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싸움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 항공기대가 손실된다면 적에게는 2대의 항공기를 얻게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안전하며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는 내일과 전분까지 할양을 통한 비행기장의 할상과 계반 절차 및 규정을 상심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바로 믿음과 인내(忍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할수만 안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非人(비인)이"면 저절로요. 저절이면 非人이다"라는 자절(自決)의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영공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충실화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공민**



조종박의 의미



공군교관사
장사 오성환

우리가 산 이야기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생활속에서 지루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은 아닌가?

자신을 알고 깨우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물론이고 후한 집단에서의 위치 또한 커지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더우기 자신의 성취 만족감보다 집단 즉 군의 복제단일 측면을 중요시하는 군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부어지는 가치는 더욱 복잡하리 만질 것이다. 요컨대 집단적 생활에 적응해 우선 자신을 간혹 잃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라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찾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신을 아주 쉽게 잃어 버리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잃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에 무수히 많은 희생을 갖는다. 이미 그어왔고 그리고 그어가며 살아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희생에 얼마나 많은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흔적속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쩌다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음에 화평하다 그 흔적속에 자신을 찾을 수 없음에 더욱 절망하는 모습을 남기며 울부짖어나갈는지...

지금, 우리 젊음에 있어 아주 큰 희생을 그어 가고 있다.

더우 조국, 이 큰 두 존재를 놓고 우선 고된 생활속에

서 그 비움을 저를 할리며 수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사살에 살았었고 사방에 마는 자라던 우리가 지금은 두 가슴으로 포옹하기엔 박한 조국을 지키는 병사가 되어 가고 있음이 편지 가슴 뿜리는 일대일으 기억이 다카 사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찾아야 하는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자살하면 존재없이 사라져가는 젊은이의 기억만으로 남지 않을지 하는 생각에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 없음도 사실이다. 결론으로 나의 존재와 그리고 살태원 존재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내 삶의 흔적은 나라를 이끌어갈 길이 새겨질 것이다. 제마일다가 보다 생각해볼만한 이야기 한 편을 해 보려한다. 젊은 백승의 이야기이다.

한 바보가 복잡한 도시에 들어 있는데 거리의 복수한 사람들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움에 지나지 않았다. 바보는 우선 관을 차아왔기에 여관을 찾아 들어갔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관을 차아오니, 관이 들렸다가 깨어 나올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다. 그래서 급히 관에 자신의 발목에 조종박 하나를 매달았다. 자기 자신을 표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낯모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바보가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그의 발목에서 조종박을 빼어 자신의 발목에 매달았다. 이윽고 바보가 관에서 깨어나 조종박을 찾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종박을 발목에 매고 잠들어 있는 것이었다. 바보는 처음에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공격하며 화제가 시작됐다. '내가 나다면, 이이구 말소사? 나는 누구인가? 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우리도 조종박을 잃어버린 그 바보가 되지말라는 법이 없다. **문득**

루마니아 국군의날

(주한 루마니아 주권실 제공)

매년 10월 25일은 루마니아 국군의 날로서 온 국민의 절망일이다. 이 날은 자비한 의비를 지나는데, 1944년과 1945년 8월 아덴나 할랑에 의해 갈라졌던 북서쪽의 국경을 되찾은 날이기 때문이다. 루마니아는 유군한 무렵의 국경을 지키고 있다. 역사상 루마니아인들은 저항적인 업적때문에 여러가지의 침략과 공격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켜내어만 왔다.

현대적인 루마니아 군대는 지난 19세기 끝난 일러신 드루 이오만 루자의 집권시에 비로소 창설되었다. 러시아-루마니아-터키(1877-1878) 전쟁은 루마니아의 국가적 독립이란 영증을 가져다 주었고, 1916-1918까지의 군사행위는 루마니아인들에게 국민 계몽을 위한 전열을 의미하게 되었다.

10월 25일의 행사는 출판이 이해하기 위해서, 루마니아의 세기 제2차 대전 동안 있었던 비극에 대한 간단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에게 있어서 1944년은 불운한 해였다. 아무런 지원도 없이 소련과 독일의 침략병까지 이해의 상충지역에 고립되어 위대한 계원으로 무리적 위험에 의하여 비로니아(Bucovina)의 북쪽 그리고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의 반쪽 부속인 바르나비아(Banabia)에게 침략당하여 얻으며, 루마니아 군대는 실격회복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엄밀한 지휘에서 현수해야만 했다.

1944년 8월 23일, 루마니아군의 비관할 이들은 현대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트란실바니아를 해방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루마니아 행사는 동맹군과 함께 루어산맥(the Mures), 스칸맥(the Scamow), 그리고 크리스(Cris) 강에서 커다란 공격을 격파시켰다. 루마니아 병사들은 스칸맥에오스

키(Sfintu Gheorghe), 티트구(Titgu), 루어(Mures), 클루즈(Cluj), 오라데아(Oraden) 그리고 몇 개의 트란실바니아 도시에서 승리하였으나 희생은 막대했다. 루어산맥 오라데아에서만 700명 이상의 루마니아군이 전사했으며, 트란실바니아 전역에 걸쳐 부상자 및 실종자를 포함한 사상자가 42,744명에 이르렀다.

과시스트에 대항한 루마니아의 실종자를 포함한 사상자는 169,000명에 달하였다. 루마니아군은 승리를 확산했고 용감하게 싸웠으며, 1944년 10월 25일 까지 옛날의 트란실바니아에 도착하기를 해방시킴으로써, 4년 동안의 과시스트에 의한 공포를 종식시켰다.

1945년과 함께 루마니아군은 전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과시즘에 대항해 싸움을 계속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45년 5월 9일 승리의 날에 루마니아군은 유럽의 중심부에 있었으며, 크라피와 아덴나로부터 불과 수십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루마니아군은 그 임무를 완수했으며, 승리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루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은 수단이 오히려 후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공산 정권으로 루마니아 해군장교와 장사였다.

전세주의자들의 집권동안, 어떠한 무장 무력화한 동안 및 생활수준 군대의 사회적 지위 격하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어떻게든 국민들에 대한 불만의 제한된 형태로만, 주권 국가의 분할에 대한 의무감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1989년 12월, 루마니아군이 반란군중에 합류한 뒤에 대한 루마니아군의 방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없었다면, 루마니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중의 하나 있으며 루마니아군이 참전한 국가인 소련인 그 기간동안의 해방은 삼십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관에서

서 순리를 따름으로써 해결되었다.

내부적인 불안정, 새로운 국가권력의 위대한 성공에 의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계속되는 전환기동안에 루마니아군은 유일하게 안정적인 기관이었고, 국가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루마니아군은 어떻게든 쿠데타의 가능성과 반국가적인 행위를 지지함으로써 변화과정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가능케 했으며, 특수적으로 루마니아군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루마니아 헌정국가 수립으로 유도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군대 정당조직은 해체되었고, 군사기관은 모든 정치권력과 동등한 거리를 갖게 되었으며, 헌정국가의 기관 내에서 만들어진 변화를 위한 기초로서 안구와 계획이 실행되었다. 무장 및 군장비 소멸계획은 C.E.C 조약에 의해 조항되었다. 새로운 법적인 골격은 국방의 현대화 및 재산과 지상장비의 운용정책에 군체제를 적응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군사 지도부의 주요 방침은 군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군현대화와정을 지속시키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조직적 구조가 헌정국가에 원형에 충실하게 따르도록 만들어졌고, 이것들은 유연하고 효과적인 높은 전투태세를 가능케 했다.

각 부대 수준이 일반 및 특수 군수훈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는데, 모든 군부대의 훈련, 전문화, 계급, 진급의 체계는 진급성, 적성, 전문성의 기준에 의해 계획되었고, 진보는 급식 및 장비 조달 수준의 향상과 부대 생활수준의 절감, 전투훈련의 고강도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국제적 수준에서 루마니아에 의해 촉진된 개방정책에 잘 맞추어, 국방부는 외국군과의 관계를 증진시켰고, 현재 인접국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더이후 C.E.C 그리고 독일과 불가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것은 상호 국가안권보장을 위한 주요전제가 된다 또한

폴란드, 캐나다, 우크라이나, 이태리, 세르비아, 루마니아, 네덜란드, 콩고와도 장기 협정이 체결된 전망이며 불가리아, 몰도바(Moldova)군과도 유사한 협정체결을 위해 협상중인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군은 NATO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군은 국가안전을 보장한다는데 있어서 중요성을 띠고 있고 루마니아군 교리에 충실하게 따르며 경제 사회적 개혁의 수행과 민주주의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루마니아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군은 독립, 수호, 국가통일, 영토 보존의 기본사명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고 민주화와 성과 루마니아에 있어서 헌정국가 수립 성공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국문**



“정보화 인간의 매력”을 읽고



공군 제3정보부대
소위 김 규 진

1. 이면을 볼 줄 아는 인간, 세지마 류조

이 책을 꼭 줄 아는 인간, 삶을 철저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갔던 인간이었구나” 정보인간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세지마 류조의 참모적 인생을 기술한 이 책을 읽고난 느낌이다.

1930년 5월 22일 오후 고령의 일본인 특사가 JAL이 아닌 KAL 기편으로 한국을 극비에 방황하였다. 5월 24일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놓고 국내에서는 가쁜 반박의 여론이 일고있었다.

즉, 약탈로국과의 밀착 지대개선을 위한 일본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한·일간의 과거사에 관한 일본정부의 대한국 사과문안이 주제가 의제가 불명확하여 우리측 입장의 수용을 촉구하는 국민적 분화기때문이었다. 이때, 가이후 중위의 특사로 세지마 류조가 나서게 된 것이다.

세지마 류조는 한·일관계가 서역내역 할 때마다 한·일관계를 사이에 두고 조장역할을 맡아온 일본의 세대의 마후 실력자이다.

출생년(22년) 세지마인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사절도 비공식제년 역할을 해왔으며 고 박정희대통령에도 직접한 전보이 있었다.

또한, 전 일본총리 나카소네와 재일 중에는 비공식 자문 역할을 맡아 온 인물이다. 세지마 류조의 극비 한국방문은 당시 일왕의 사과문안에 대한 진전된 표현을 기대와 타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인간의 매력”을 집필한 藤田三三은 1934년생으로 명문 와세다 대학을 중퇴한 후 참사관 참모부에서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면서 주로 기업가, 재계인사들에 대한 평론을 집필해왔다. “스미노보론쟁-사람을 기르는 경영”과 “피루르트의 장이” 등은 잘 알려진 그의 저작이다. 20세기 초반부터 경제기를 앞둔 현대까지 일본의 경제 뿐 아니라 정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지마의 전후 삶을 조명한 필자도 아마 세지마의 매력에 빠졌을 듯 하다.

한편 본서를 번역한 김동호 장군은 공군본부의 작전 참모부장과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 군사장관인 한국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군사전문가로서 군의 초창기에서 도야말전기까지를 통솔 해왔한 공군의 원로이다. 특히 김동호 장군은 좌익 후 기업체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첨단과학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보화시대의 도래를 예감하고 정보문화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군의 지휘관 참모를 두루 역임하신 분으로서 국력은 다르지만 평생 참모로서의 묵묵한 삶을 살아온 정보인간 세지마에 대한 시선을 번역한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이책의 전 7장에 걸쳐 표현된 세지마 류조라는 인물에 공통적으로 가미된 요소는 예견과 엄밀과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자기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참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 본명 참단의 최후 결성원은 leader, 책의 표현을 빌자면 fire에게 있고, 단순한 도약이나 가위 바위 보가 아닌 바에야 한번 결성해지면

것의 힘이란 상상할수 없을 만큼의 파장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참모의 역할이란 "leader가 진정한 leader일 수 있도록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결정에의 동원, 정확한 정보제공, 계산된 분석에 입각하여 제시되는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다."

이책을 통해서야 겨우 정리 될 수 있었던 참모의 의미이다.

그 외에 참모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이책에서는 분명한 방법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 세지마와 에픽코 사장과와 관계를 예로 들면서 항상 언제나 에픽코 사장의 한 걸음 뒤에서 움직이는 세지마를 묘사하고 있다 "참모는 차기 leader가 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참모로서의 자기역할을 작게나가는 것이 최고의 참모다"라는 것이다.

2 인간 세지마 류조와 "세지마형 참모"

참모의 의미와 세지마 류조가 훌륭한 참모가 된 배경을 요약정리한 제 1장은 특히 "세지마 참모형"의 특성을 잘 얘기해 주었다. 그것은 다음 아닌 "국가를 위한 참모적 충실"이라는 일관된 테마를 짚어준 것이다.

2차대전의 패자로 끝나버린 군사참모로서의 길과 일본경제속에서 또 한 차례의 중립무기한 참모역할을 보여준 경영참모로서의 길이 바뀌었던 비교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참모가 되기 위한 경구로서 "참모는 항상 조언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지명도 함께 전달해 주었다."

한 인간이 넘다룰 수 있는 조건 중에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상황의 어려움속에서도 평정의 기개를 잃지 않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일

다. 주로 시베리아 유형생활을 다루는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간 세지마가 어떻게 훌륭한 참모라는 참모=세지마 류조의 보통 평지가 될 수 있었는가를 "유형생활 속에서의 세지마"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1945.05.08 체코로 부터 1945.8월까지 11년간의 시베리아 유형생활, "자본주의 세계붕괴"라는 혁명으로 중노동과 독방생활로 이어지는 유형생활 기간 동안 벌어진 온갖 사건들 속에서 세지마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좌파 포퓰리스트와 군인의 소위 민주그림, 친소적 색채가 강하다 하여 붙여진 것)와 우파도로 사이의 반목과 질서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느끼고 하바로프스크 사건으로 병행화어진 수용소 인권투쟁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혹독한 환경속에서도 "인간"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더욱 더 깊어진 애국심, 패전한 조국 일본의 미래에 대한 열리, "광산호"에 몸을 싣고 귀국하던 세지마의 내면속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정열이 때때로 사위어 가고 있었을까.

"패전의 책임은 참모로서 나도 당연히 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숙명적인 애국심은 군인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세지마 류조에게 수용소 생활을 잊어버리고자 한 것처럼 버릴 수 없는 것이었을까. 참모는 역시 키워지는 것이고 커나가는 참모적 인재의 리치가 출현할 때 그 효과는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다.

일본군 최고의 엘리트 코스, 육군사관학교-육군대학 과정을 최상의 성적으로 거처온 세지마 류조는 다른 군인들 보다 확실히 뛰어난 천재가었다.

전쟁으로 치닫는 조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참모의 참모. 그래서인지 세지마는 국가사회주의파(참모파) 군국주의적 수리(통제파) 등 동료들이 상상수 포함된 대립과 유혈, 내전이 되어가는 사건의 와중속에서 모른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세웠고 결국 전쟁속에서 그는

전주만 공격, 카다르칸 함수계획 등 모든 중요작전계획을 맡는 참모의 일을 착실히 견디었다.

엄격한 군대의 규율과 상대한 학습열. 이것을 완전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추진시키는 "세지마식"방법, 즉 가상전쟁 시나리오에서 작전도면을 그려나가는 세지마기 태인 것은 철저한 군지제시와 정보의 수집, 수집된 정보의 등급을 매겨나가는 정보맨의 방법이었다. 이것은 이후 경영정보로서, 군안정보로서 세지마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최고의 무기였다.

참모: 특히 군사참모가 절대로 발각해서는 안될 것은 "실수"다. 도서관에서 REPORT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우던 세지마의 모습은 이러한 실수를 자기것으로 하지 않으려는 과다는 노력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마시즘, 군국주의적 전쟁으로 수많은 민중과 인명을 살해하는데 일조한 세지마가 전범으로 출판대에 서는 것은 당연했다. 그 속에서 세지마의 모습은 이리했다. 도호조 장군(일본군 최고 사령관)의 참모 세지마는 천황의 대리인 참모였다. 그리고 출판대에 선 세지마에게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참모의 수완의 원형을依稀히 마주칠 수도 있었다. "철저한 중립"전쟁을 겪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마련인데, 특히 패자측의 변화는 그것이 사회구조가 됐든, 개인적 변화가 됐든 더욱 급격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전쟁에서 처위한 참모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세지마 류조는 일본군중 가장 최첨단 정략을 지닌 작업 군인이었다.

군복을 신사복으로 갈아입기까지 그의 고향은 도서관에서 과거 11년간의 심문을 피하지는 않기로 대신

하져있었고 결국 "산업계"의 참모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적과 이가 다투기는 충칼로 하는 전쟁과 경제전쟁이 다를 바가 없다. 훌륭한 참모, 세지마는 경제전쟁의 장소인 상황을 이렇게 대처해나갔다고 자랑에선 기록하고 있다.

국가가 심혈을 기울인 인재교육, 육군대학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친 세지마, 전다구상에 몸을 바친 세지마에게 "이도츄 상사"라는 존함상사는 제 3의 인생(제 1의 인생 군인, 제 2의 인생 포로, 제 3의 인생 상사편)을 살기에 더 좋은 토대가 된 것이다.

값없이 움직이는 두뇌, 간단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부하들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도록 보장해주는 용인술, 그리고 사명(지휘관)의 판단을 돕는 능력. 이것은 방법론적 독특함, 즉 군사참모의 도상연습을 기업전략 구상에 적용시킨 전직 군사참모의 방법으로서 세지마류치 참모술이 되어 버렸다.

세지마가 이도츄 상사라는 오사카의 지그미한 섬유 업체를 일본 3위의 종합상사로 키내기도록 할 수 있었던 데는 사정(지휘관)의 판단을 돕는 능력, 이것이 핵심이다. "line과 staff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회사의 경영태도, 전략사업의 참여를 살수없이 진행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이도츄 상사에 참모본부를 설치 그 top-class가 된 세지마는 "잡은 양날"로 사용되는 섬뜩하면서도 웅변한 의미속에서 전쟁후에서의 세지마 무서운 기세로 세력배치를 휘둘러잡고 있는 일본경제, 그리고 그 후의 일본의 변신이 표한 비교를 이루며 파울의 같다.

무기거래장 전(근대적인 경영방법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공회화공업으로의 업종변신을 감행하는 이도츄 상사) 세지마 회장, 그는 세지마가 보려하는 leader였다.

세지마는 특별한 인간관리, 방법을 경영에 도입한 인물이었다.

군의 조직을 도입, 전략 입안, 전술구상에서 전진과 후퇴의 진취관전을 정확히 내리는 세지마는 군대의 좋은 점을 조직에서 살피려고 무심했다. 결국 50년대 중반 이후 60년대 중반에 걸쳐 “기요즘”의 전격은 세지마 참모의 초창기에 국제기업으로 나타났다.

세지마의 등극명이 도리야격하의 국제정공은 전설을 중심으로 꾸민 그의 특별한 고상성을 입술에 주었고 이것 또한 기업화 준비의 결과였다.

62년 전제를 통해서 보여준 세지마의 참모들은 일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합리적이야 일단 일을 하나면 다스려야 하라지, 남편으로 돌아갔다고 고증되고 있다.

상하부의 인간관리의 관계에서 세지마가 카드로 걸고있는 것은 하의살인 신상살인(부하의 전매가 일에 지음되며, 살수나 잘못을 따지 빌리지 아니한다)의 편향이었다.

지침, 행정, 정보 이 세지마가 인간 세지마의 기본 성격이며 내면의 모습에게 관정한 참모가 될 수 있지 않았는가.

3 삶을 자기것으로 만든 인간, 세지마 류조

전설이 별다른 진부한 이치에서도 아니었고, 주위의 입력때문도 아닌 세지마의 최고 참모직으로부터의 골라낸 물라일 시기를 스스로 파악한 세지마 참모의 역할 수행으로 파악할 것 같다.

세지마라는 leader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세지마의 깊은 또다른 의도와 같아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그 의도 본래의 같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정보수집 능력, 정보관리, 활용능력면에서 어느 참모보다 특별한 세지마는 그의 방법을 주매 참모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세지마의 뒤집어 쓴 자신이 최전해야 할 시기임을 스스로 자각한 그는 참모가 어기지 쉬운 것 중의 하나인 “leader를 세지마”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음으로 참모의 길을 완성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최전의 미학”이라면 참모를 위한 그의 가업장도의 바깥이다.

젊은 안락기감을 30자의 변신을 하면서 사대를 전하게 한 세지마 류조, 그가 보여준 참모적 인간 정보인간의 고상과 매력은 현대사회의 승리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로서 길이 남을 것이다.

“국가의 건재함”을 모토로 살고 모는 일을 수행한 세지마는 수에대를 앞서서 나아가는 참모인, 참모인이라는 생각과 사물에 감정을 적으며 사색한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인간 이면을 파악하는 인간이기에 매력적이다. **정리**

故 김정렬 장군님께



김정렬장군님 /

공군 전 장병과 함께 시기를 슬퍼하며, 삼가 일전에 머리숙여 뉘를 비읍니다.

장군님의 존주 비록 고귀를 남기셨다 하지만 나라와 공군에 대한 애정과 항열은 남도 더 뜨겁기만 하셨습니다. 평생 그토록 소원하셨던 조국의 통일과 우리 공군의 발전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지 못하고 휴일을 맞이하시다니 정말 애절한 마음 기를 길이 있습니다.

수훈은 고귀요 생애는 순교라 하였지만 우리 공군 장병의 창신적 대표이자 아버지이고 스승이셨던 장군님께서 휴언히 떠나가시니 허전함과 안타까움을 주리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활상 저희들을 아끼고 염려하시며 온근하게 지켜 알려주시던 온화하신 모습이 눈에 선하고 입치하신 말씀이 귀에 울립니다.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변지 않는 것은 무슨 하늘에 대한 꿈과 초월에 대한 열수라시면서, 비행기만 다면 달인 별도 낮이라고 말씀하시던 여정할 수 없는 열원 한 심념의 조인이었습니다.

문어해보면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오로지 우리 공군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일관된 기세말고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뻗어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시고 하늘에 눈을 돌려 조종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나라의 빼앗긴 일제 치하에서 용지를 발휘 남만을 사해리며 비행기장 조종에 전념하시던 중, 중상을 당해 되자 병자보국의 각오를 하고 귀국하여 비행기장의 전 각자들과 함께 공군 창설의 지를 마련해 동조서주 하셨습니다.

당시 혼란한 정세하에서 건국의 초대를 굳건히 화기 위해서로는 자주 국방태세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시어, 이순신 장군의 백의충군 정신으로 허탈병도 버려 파지 않으셨으며, 갈려 어느 누가 그로 알에서 공명심과 사리 사욕을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상좌전선 일제전으로 공군하여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하시고 공군이 독립하여 국군이 규범있게 발전해야만 국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주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시어 불과 1,100명의 병력과 2대의 연락기로 공군 독립의 위업을 이룩하셨습니다.

선구자이고 개척자였던 장군님께서도 초대 공군 참모총장의 중책을 맡으시자 무엇보다도 단결을 강조하시며 제제정비와 전비태세를 갖추는데 온갖 열과 성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모두가 팔공인이 되자고 호소하시며 범국민적으로 애국기 헌납운동을 전개하시니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단숨에 우리의 힘으로 10대의 연습기가 갖추어지는 놀라운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언제나 6·25가 발발하자 우리 조종사들은 이 건국기를 타고 출격하여 북한과 수류탄을 손으로 차전에 투척함으로써, 우리 공군의 존재와 부지를 보여주었고 기습남침으로 당황하고 있던 우리 국민과 국군의 사기를 드높였으니, 선전자명에 보합면 갑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장군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원수의 산령을 갖고 일면 전열 일면 훈련에 임하여 종전정화의 회기를 극복하고 휴전을 맞이하게 되자 후진방성과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였다는 일념으로 직접 아슬한 태물령에게 상소문을 올리 스스로 참모총장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상소문을 통해 '장군 참모총장직을 임기제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실사구시한 결과 발령이 현 직책에서 해방되는 최선의 시기라 판단되고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둔다' 함은 남아병력의 자살인만큼 부디 작아진 입술 수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알렸하였으니 휴무와 존경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후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제 3대 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되자 공군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시어 제트 전투기 사대를 열고 공군이 중장에 박차될 기해권을 공군의 확고한 위상을 성립하는 위대한 공력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사회에 나가시어 국방부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거대한 나라를 위해 잠시

도 열일이 없으셨으나 마음과 눈길은 늘 하늘에 두고 재성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종기에 거의 빈손으로 출발했던 우리 공군이 오늘날 원수의 장악공군으로 일취월장하게 된 것은 비로 이만한 노고와 집념의 크다른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장군님께서는 가셨지만 애국애족의 주국충성과 하늘을 향한 뜨거운 창열은 장병들의 가슴속에 불사조처럼 영원히 살아남아 대한공군 총마의 원한이 될 것이며, 저들이 난관에 부딪힐때마다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군은 장군님의 유지를 이어 받들어 국가방위와 핵심전력으로서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원만한 영공방위임무 완수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군 전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민족의 숙원인 평화의 통일의 단상과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선진 조국건설을 차분히 할 수 있는 강한 공군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명 함에 고개 숙여 굳게 다짐합니다.

환영한 귀환을 남기시고 만인의 존경속에 생을 거두신 영원한 공군 위대한 노병이시여!

일류 신자가 되라, 일류 전문가가 되라, 일류 자필관이 되라! 말한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

생전에 늘 당부하셨던 언하단점, 강한 훈련, 임무완수를 공군 장병들에 대한 유언으로 생각하고 온전·실현 하겠사오니 조금도 험락하지 하시옵소서.

바라만 가시는 길에 우리 공군 전 장병의 애국은 애도와 다짐을 함으시고 부디 행복을 누리시며 권미 쉬시옵소서.

1992. 9. 9

제 21대 공군 참모총장
공군대장 이 일 호

잘못 알고 쓰는 음식이름들



이 군 용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원)

— 설농탕은 조선시대에 先農壇에서 그 해의 농사가 잘 되었길 기원하는 제사를 치내고 소를 잡아서 폭 고은 후 임금과 백성이 그 국물에 밥을 말아 함께 즐겼던 음식으로 현재에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식입니다. 선농단에서 탕을 끓여 먹었다 해서 선농탕으로 불리웠으나 지금은 설농탕, 설렁탕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

최근 어떤 민간자에 실린 음식의 광고 문장을 타이프한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이 광고 문장에서 몇 가지 잘못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음식 이름의 위대한 발명가가 '설농탕'으로 불린다는 것이 잘못이다. 이 광고에도 설농탕을 설렁탕, 설농탕 등으

로 표기하고 한자로 先農湯이라고 쓴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는 설렁탕의 발음을 잘못하고서 한자로 取을 표기한 것이다. '농사'가 잘 '채웠'의 '채'는 '채'가 되어야 한다. '채'가 줄면 '채'로 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농사'가 잘 '채어졌'이라고 바꿀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는 준말을 쓸 수 없다. '묵 고은'도 '묵 굶'이라고 해야 한다.

동사의 관형사형을 만들 때 '먹은 밥'의 '먹다'처럼 동사의 어간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동사 어간에 'ㄴ'을 붙이지만 '전서망'의 '가다'처럼 받침이 없는 동사이므로 '묵곤'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 광고문에서 '불리웠으나'와 '불리우고'는 '불리었으나/불렸으나'나 '불리고'로 바뀌어야 한다. '불리다'가 피동사이기 때문에 굳이 'ㄴ'을 넣을 필요가 없다. 요즘 영어의 영향인지 미술 작품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우리 말 어법이 아니다.

음식 광고를 제대로 알았으니 음식 이름 중에서 흔히 틀리기 쉬운 한 두 가지를 더 들어 본다.

중고등학교 일 급목장에 있는 분식집 차림표에 '떡볶이'로 표기한 것이 있는가 하면 '떡볶이'로 표기한 집도 있다. 이는 '떡볶기'라고 표기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국어의 한자식 'ㄴ'기는 '끓기', '말기' 등에서와 같이 어떤 행위를 나타내므로 떡을 볶는 행위는 '떡볶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떡볶이'나 '떡볶음'을 '떡볶알' 또는 '떡볶'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떡볶알'을 떡볶알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떡고기를 넣어 끓인 국으로 떡과 관계가 없다. 또 '떡볶'의 '떡' 발음을 잘 구분하지 못해 간혹 '떡볶'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원래 '떡볶'인 것이다.

원래의 발음 떡볶과자는 '호도 떡볶'이 아니라 '호두 떡볶'이라고 해야 한다. 한자음으로는 호도이지만 우리말에서 발음이 변한 것을 인정하여 호두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 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말을 잘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꾸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만 바른 국어 생활이 가능하다. **문경**

일본색이 강한 어휘

순화대상용어	순화한용어	순화대상용어	순화한용어
가건물(假建物)	임시건물	곡도(曲圖)	거는 도표
가결의(假決議)	임시결정, 임시로 결정	교대(交代)하다	번갈다
가교(假橋)	임시 다리	교부(交付, 交付)하다	내(여)주다
가면(假面)	탈, 가면	구보	달리기
가명(假名)	가짜이름	고정(苦情)	불만, 고초
가품(假品)	사품질	구좌(口座)	계좌
가석방(假釋放)	임시석방	금반(金板)	이반
가수금(假收金)	임시 받은 돈	금반(金板)	이반
각계점호(各係點呼)	전원 점검	내치지(裸空地)	빈 집터
간수(看守)	교도관	낙승(落乘)하다	엎겨, 거꾸로 떨어지다
개찰구(改札口)	표 쓰이는 곳	납기일(納期日)	내는 날
개표구(開票口)	표 쓰이는 곳	납득(納得)하다	이해하다
거중조정(居中調停)	중간 조정	납부(納付)토록	내사도록
거처기간(居處期間)	대처 기간	납입(納入)	넣
건구상(建具商)	문짝가게, 창호가게	복비(糶肥)	웃거름
건담(乾潭)	마른 논	녹지대(綠地帶)	우편 지대
견본(見本)	본(보거)	대금(貸金)	무어른 돈
견적(見積)	보임셈, 어림셈	대부(貸付)하다	빌려주다
견지(見地)	(살아는) 자지, 관점	대청(貸切)	전세
견출장(見出張)	찾음장	대출(貸出)	빌려줌
견출지(見出張)	찾음표	대환상(待會堂)	대기실, 기다리는 곳
거출(居出)	산고	도구(道具)	연장, 연도
고침(去書)	선임자	도박(賭博)	홀치는 베틀
공설(公設)	공 부려짐	도선(道船)	나룻배
공조(假組)	배대	동파(凍破)되다	얼어 터지다
공가(空家)	빈 집	동침(動睡)	출근
공변	빈 몸	매도인(賣渡人)	관사원
공전(空轉)하다	회돌다, 갈돌다	매도(賣渡)하다	공야별거다
공(共)히	같이, 모두, 함께	매해(賣買)	물고사기
과남	더남	매물(賣物)	말, 물건, 팔 것
과년도(過年童)	학년도	매상고(賣上高)	판매할 때
과도(過渡)한	지나친	매수(買受)하다	사들이다
관지(官邸)	관서	매입(買入)하다	사들이다

커브길 운전 3원칙 익히도록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못하고 산간지대가 많기 때문에 구부러진 도로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단장을 밟으면서 손수운전자들의 장거리 여행이 늘어나는 때에서 이러한 도로의 특성에 따른 주행방법을 반드시 익히게 필요가 있다.

사정차가 청색의 직선도로를 달릴 때보다 아무래도 구부러진 도로의 주행은 쉽지 않은 편이다. 커브길에서 코너링을 해야하는 순간에는 알맞는 운전요령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하기 때문이다.

코너링할 때의 기본운전술에는 적어도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는 아웃 인 아웃(Out in out)주행이다. 커브의 전방은 아웃코스(가장깎은 중간중에서는 인코스)에 가깝게 그리고 마지막 직선에서는 다시 아웃코스 쪽으로 주행하여 커브의 회전반경을 완만하게 이용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이 방법은 도로의 폭을 되도록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자칫 잘못 알고 중앙선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점이다. 커브길의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을 수 없는 선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커브의 입구와 출구에서는 되도록 바깥코스로 중간중간에서는 안쪽코스를 달리면 회전반경을 제대로 완만하게 조정하는 운전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로는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Slow in fast out)주행이다. 특히 급커브길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주행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커브길에 들어서기 전 직선길에서 무신 감속을 해야 하는데 커브가 급한 경우에는 최속으로 기어를 변속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커 커브길을 들어 나가면서 직선도로와 연결되기 시작하는 자점에 이르러 다시 가속하게 되면 커브길도 아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세번째는 스티어링(Steering)특성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도 다양한 성격과 행동특성을 나타내듯이 자동차 역시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게 마련이다. 따

라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스티어링(Steering)특성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를 때 코너링을 할 경우 완강력이 작용되어 차가 다소 미끄러지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 이 때 앞뒤 바퀴가 같은 정도로 미끄러지면 고차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대개는 앞뒤 바퀴의 미끄러지는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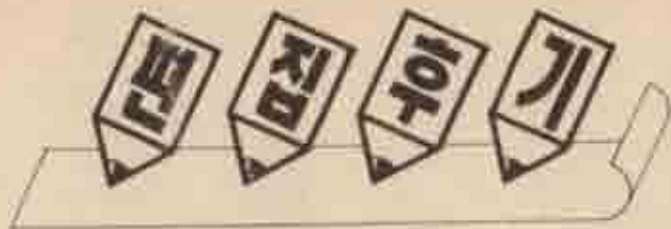
FR(Front engine rear drive)차(앞부분 엔진 후륜구동)는 빠른 속도로 돌 때에는 바깥쪽으로 밀리는 성향이 있다.

반면에 FF차(Front engine front drive)차(앞부분 엔진의 전륜구동차)는 코너링할 때에 핸들이 안정되어 안전한 편이다.

FR 차도 코너링 돌 때는 가속할 경우 핸들이 지나치게 흔들리는 오버스티어(Over steer), 속도를 낮추게 되면 핸들조작이 흔들리는 언더스티어(Under steer)가 되기 쉽다. FF차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커브길에서 조심하면서 코너링을 성공적으로 하는 운전습관을 형소 익혀두도록 해야 한다. **등문**





龍井의 한 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피란 특이 큰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이기에 어디까지 자랑하

그는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아련히 그 사나이가 미워져 들어옵니다
돌아가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기뻐어집니다
도르가 돌아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들어옵니다
돌아가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기뻐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별다른 말없이 나의 거울을 손바닥 앞바
닥으로 닦아보내고 갑니다 그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목숨 거울을 창밖의 눈물로 닦아 주어야 할 때
입니다

광복의 시대를 건너며 오륙의 시간속에서도 공군차의
영광을 지켰던 여러 선배분들과 인사드립니다 또 공군
차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 준비하고 함께 주신 여러분
과 그리고 앞당기는 젊은이 여러분의 새끼손으로 모이서
일게 사랑과 성령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
사합니다 공군차는 정치적이 결코 서가해 진영의
고하는 집사나 아닌 둘러보고 또 둘러보다 표치가 나
열나열해 칠 민족 일원기 위한 책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다 (30)

"사랑의 고뇌처럼 달콤한 것은 없고
사랑의 슬픔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으며
사랑의 괴로움처럼 기쁜 것은 없고
사랑에 죽는 것처럼 애절한 일은 없다고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을 부하를
당신을 팔백을 그리고 널 사랑하지 않는
사랑과 「공군차」를 사랑합니다
새롭게 열린 「공군차」를 인생사인 「공군차」에게
모든 박수의 찬사를 보냅니다
백만마음으로—

(19)

■ 글을 기다립니다. ■

- 모집부문 : 수기, 수필, 초는문, 교양,
독후감, 시—
- 보낼 곳
충남 논산군 두아산 푸날리
사서함 310호 공군차 담당자
- 전 화 : 공군본부 3537, 3534
(02) 506-3532
(042) 552-3532

공 군 1992. 221호

- 발행처 : 공군본부 정보감실
- 발행일 : 1992. 10. 30
- 인쇄처 : 종합민체 금성산업
(042) 254-7434, 256-7434

蒼空無敵

壬午夏月
青軍



